

불교 바로 알기

-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원만한 교육 -

認
識
佛
教

삼보제자

불교 바로 알기

-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원만한 교육 -

- ◎ 불교란 불타가 온 세계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지극히 선하고 원만한 가르침이다.
-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경문 내용은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인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우주는 곧 우리의 생활환경이다.
- ◎ 깨달으면 부처라 하고, 미혹하면 범부라 한다.
- ◎ 수행이란,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 그리고 표현과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 ◎ 불교수행의 요지는 바름과 청정함[正淨]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아서 미혹치 않고, 올바르게 살되 지 않으며,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계戒、정定、혜慧 3학學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 ◎ 닦고 배움修學의 기초는 3복福이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는 6화和에 의거하며, 사회생활은 6도도를 닦는 데 있다. 보현행원普賢行願을 따르고 정토淨土에 귀의한다면 불타 교화의 능사能事를 마쳤다 한다.

〈석정공釋淨空법사 마이애미 강의록〉

십념법정요 十念法精要

삼가 정공_{淨空} 법사가 강설한 ‘필생의 10념법_{必生十念法}’의 간결한 요지는 정토를 닦는_{淨宗} 학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수행_{自修}과 함께 하는 수행_{共修}의 일반적인 규범임을 알리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 스스로 하는 수행이라 함은, 하루 동안 아홉 차례 10성_聲 부처님의 명호_{佛號}를 염하는 법으로, 즉 아침에 일어나서 한 차례, 잠들기 전 한 차례, 세끼 공양 때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오전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오후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기 한 차례씩 모두 아홉 차례이다. 매 차례마다 10성 4자_{十聲四字} 혹은 6자_{六字}의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인데, 평상시 행하던 예불의례는 그대로 행하여도 무방하다.

함께하는 수행이란, 경을 강의_{講義}하던 법회를 열든 대중공양을 하든 특별히 정해진 의규_{儀規}가 아닌 대중 집회를 진행할 때, 그 시작 때에 10념법_{念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중과 더불어 합장하고 한 목소리로 ‘10성_聲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거나 함께 하는 10념법에 의한 수행의 특별한 법익_{法益}은 아래와 같다.

- (1) 이 법은 행하기가 쉽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널

리 실행할 수 있다.

- (2) 이는 불타의 가르침에 의해 가정을 교화하는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매끼 식사 때마다 이 법을 행하게 되면, 이 법을 믿든 믿지 않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불법(佛法)에 포섭되어 빠짐없이 그 가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불타 교화를 받는 친지나 이웃이 생기게 되어 사회 전반에 그 이익을 두루 보급할 수 있다.
- (3) 이 법은 간단하여 하루 아홉 차례 행하기가 용이하므로 종일토록 불타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다. 매일 이와 같이 염불을 계속하면 수행인의 기질과 심성이 점차로 맑아져 신심과 법락(法樂)이 생겨나니, 그 복덕(福德)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
- (4) 만약 모든 것에 수순하여 친화하고서 10성(聲) 불호(佛號)를 염송한다면, 잡되고 더러움에 물든 것을 없앨 수 있어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모아져 도를 닦는 데 전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쉽게 성사되고, 다가오는 것마다 좋은 징조가 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며,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을 것이다.
- (5) 스스로 하거나 함께 하는 수행, 이 둘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융합하여 자량(資糧)을 모으니, 개인의 왕생극락도 가능케 하고 공동이 함께 하는 보리(菩提)의 대업도 함께 이루게 한다.
- (6) 이 법은 두 가지로 이름 할 수 있는데, 우선 다음과 같이

부르려고 한다.

첫째는 ‘정업가행십념법_{淨業加行十念法}’인데, 이미 정해진 과업을 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원래 행하고 있는 과업에 힘을 더하여 수행하게_{加行}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른다.

둘째는 ‘간요필생십념법_{簡要必生十念法}’인데, 이 법은 현재 또는 이후라도 정업을 닦는 학인들 가운데 일정한 수업이 없는 대부분에게 적절한 법이다. 오늘날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총망_{總忙}하여 여유가 없으므로 법을 행하기에 걸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그러나 이 법은 자량_{資糧}을 모으기가 쉽고, 심신과 서원으로 행하기 때문에 평이하고 원만 구족하다. 또한 ‘두루 6근_{六根}을 포섭하여 청정한 생각이 이어지게 한다.’는 기준에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부합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매번 염불하는 시간이 짧아 마음을 거두어들이기가 쉽고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홉 차례의 염불 공덕이 하루 동안 균형 있게 분포하여 관통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몸과 마음이 부처 아닐 수 없다. 즉 하루 생활의 염불화, 염불의 생활화가 그것이다.

종합해 말하면, 이 법은 간결하고 행하기가 용이하여 정체가 되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은 법이 크게 행해진다면 정업의 학인들에게도 다행한 일이고, 미래 중생들에게도 다행한 일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다.

들어가기 전에

불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불자·학인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인쇄하고 널리 배포하여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록 말이 뜻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진솔한 공양과
참되고 성실한 발심_{發心}으로
인연 있는 법우_{法友}들이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고,
아울러 참된 수용과
법익을 얻기를 바란다.

차 례

1. 불법이란 무엇인가?	12
부처란 무엇인가 / 법이란 무엇인가 / 불법이란 무엇인가	
2. 불교란 무엇인가?	19
불타의 가르침	
3. 변형된 현대 불교	23
전통적 불교 / 종교적 불교 / 학술적 불교 / 섰된 외도의 불교	
4. 불타 교육의 목표	26
1) 불교의 계위	26
아라한 / 보살 / 불	
2) 불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30
미신타파 / 진정한 지혜의 개발	
5. 불타 교육 입문 — 지장경	32
1) 대원만	32
대원만 / 대자비 / 대지혜 / 대반야 / 대삼매 / 대길상 대복덕 / 대공덕 / 대귀의 / 대찬탄	
2) 대승원만법	47
지장 / 관음 / 문수 / 보현	
6. 불법 수학修學의 5대 과목	50
1) 3복	50
(1) 인천복人天福	52
효경孝敬 / 자비慈悲 / 신선身善 / 구선口善 / 의선意善	
(2) 이승복二乘福	65
삼귀의 / 자성삼보 / 주지삼보 / 계율의 엄격한 수지정신과 그 원칙	

(3) 대승복大乘福	97
발보리심 / 선단번뇌재도중생 / 염불을 하면 필시 성불한다는 깊은 믿음 독송 대승경 / 수행자 되기를 권고하기	
2) 6화경六和敬	127
견화동해見和同解 / 계화동수戒和同修 /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諍 / 의화동열意和同悅 / 이화동균利和同均	
3) 3학三學	149
계戒 / 정定 / 혜慧	
4) 6파라밀六婆羅蜜	153
(1) 보시	153
(2) 지계	170
(3) 인욕	173
(4) 정진	178
(5) 선정과 반야	186
5) 10원十願	193
예경제불 / 찬탄여래 / 광수공양·수지정토 염불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원만 한 공양임을 홍양하기 / 업장참회·아미타불 염송으로 모든 죄업장 소멸 수회공덕 / 청전법륜 / 청불주세 / 상수불학 / 향순중생 / 보개회향	
7. 불법의 수학차제佛法修學次第	232
1) 신해행증信解行證	232
2) 계정혜제수戒定慧齊修	240
8. 불법佛法의 예술교육	248
음악 / 경전 / 조각 / 불상 / 건축 / 공양구	

〈부록〉

달라스 불칠강화佛七講話	269
--------------	-----

認
識
佛
教

釋淨空法師의 글

불교 바로 알기

-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원만한 교육 -

강술: 釋淨空법사

옮긴이: 김귀주

1. 불법이란 무엇인가?

법우_{法友} 여러분!

불법_{佛法}을 닦거나 배우기 전에 반드시 불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설사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운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 법우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그리고 요점만을 추려 설명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불_{釋迦牟尼佛}입니다. 석존께서는 3,000년 전에 북인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석존은 주소왕_{周昭王} 24년, 즉 갑인_{甲寅}년에 태어나시어 주목왕_{周穆王} 53년 입멸 때까지 79년간 세상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현대 중국 불교의 윗대 노숙_{老宿}과 대덕_{大德}들이 석존의 입멸을 기릴 때 이 연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석존께서는 살아 계실 때 대중을 위해 49년간 경을 강_講하고 법_法을 설하셨다 하는데, 석존 입멸 후 1,000년이 되는 해, 즉 중국 동한 명제_{明帝} 영평_{永平} 10년 서기 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불교가 정식으로 중국에 전래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불_佛이란 무엇인가?

법_法이란 무엇인가?

불법_{佛法}이란 무엇인가?

불교_{佛教}란 무엇인가?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몇 가지 질문은 우리가 불타의 가르침을 닦거나 배우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_佛’ 자는 인도 범어를 음역_{音譯}한 것으로 ‘지혜·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경이 한역될 당시 어째서 ‘지_智·각_覺’으로 번역하지 않고 ‘불타_{佛陀}’라는 음역을 차용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불타가 내포하는 뜻이 무한 무변하여 중국의 어휘인 지_智 또는 각_覺으로는 그 의미를 완전히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타라는 음으로 번역한 것을 빌리고, 그 위에 다시 주해_{註解}를 덧붙였습니다.

‘불_佛’ 한 글자에는 체_體도 있고 용_用도 있는데, 본체로 말하면 지혜요 작용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체로 말하는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체지_{一切智}’ : 현대철학의 용어로 풀이하면 우주 본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불법에 서는 ‘일체지’라고 합니다.

둘째 ‘도종지_{道種智}’ : 종_種이란 갖가지 대단히 많은〔許許多多〕현상들을 지칭합니다. 우주의 현상은 그 종류가 무량

무변합니다. 이같이 허다한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디서 왔으며, 현상되는 과정은 어떠한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처럼 우주 만상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지혜를 ‘도종지’라 합니다.

셋째 ‘일체종지一切種智’ :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을 마침내 원만히 깨달아 털끝만큼의 미혹이나 오차도 없는, 그런 지혜를 ‘일체종지’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이와 같은 삼종지三種智를 구족하였기 때문에 그 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주 전체와 인생의 참 모습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큰 깨달음大覺이라 하는데, 부처님께서 경에 설하신 깨달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깨닫는 것自覺이요, 둘째는 남을 도와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각타覺他라 합니다. 셋째는 원만히 깨닫는 것입니다. 소승교의 아라한阿羅漢이나 벽지불辟支佛은 스스로 깨달은 이로써 깨달은 후에 능동적으로 남을 도와 깨닫게 하려는 발심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에서 종종 이러한 이를 소승인이라 일컫습니다.

대승의 보살은 깨달은 후에, 깨닫기를 염원하는 모든 중생을 능동적으로 돕습니다. ‘깨닫기를 염원한다’ 함은 곧 기연機緣의 성숙을 말합니다. 기연이 성숙하면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중생을 도와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마

침내는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침내 원만한 깨달음’이란 다른 종교에서 찬미하는 ‘전지전능’의 주(하느님)와 같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불타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원만한 지혜의 덕능(德能)을 우리에게 설하시면서 깨달음이 곧 지혜의 덕능이요 작용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원각경(圓覺經)》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은 모두 여래의 덕상이 있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과 부처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와 덕능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왜 상실하게 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 병의 뿌리를 바로 설파하셨습니다. “오직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병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부처의 경계에서 지금 이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망상과 집착의 해를 입었기 때문이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단한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것도 망상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며, 생활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망상과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과 집착은 확실히 모든 미혹의 뿌리이며, 재난

의 병근_{病根}입니다.

망상과 집착을 한 부분이라도 떼어버리면 떼어낸 그 한 부분만큼 우리는 자재하고, 떼어낸 그 한 부분만큼 우리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망상과 집착을 깨끗이 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본래 부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진상을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명명백백히 설하고 계십니다.

대지대각_{大智大覺}할 대상은 바로 다함없는 시공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일체의 만사만물_{萬事萬物}입니다. ‘만_萬’이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많은 것을 형용하는 것으로 한량없는 것의 한량없음입니다.

경에서 자주 이르시길, 사람 몸의 한 털끝과 미진의 한 티끌을 두고 작음을 말합니다. ‘정보_{正報}’ 가운데 작은 것은 털끝이고, ‘의보_{依報}’ 가운데 작은 것은 티끌이라 하지만, 큰 것은 허공 법계에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사물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대상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만사만물을 ‘법’이라는 하나의 대명사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두 글자를 연결하면 바로 다함없는 지혜요 깨달음이라 우주와 인생 일체의 만사만법_{萬事萬法}을 알게 되는 것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종종 ‘불법무변_{佛法無邊}’이라는 말을 하는데,

확실히 한량없고 끝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하는 대상도 끝이 없고, 깨닫는 지혜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 한량없고 다함없는 깨달음, 여러분! 이는 본래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중 우리가 쉽게 체득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인, “우리의 본능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대상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냉철히 사유하고 관찰해보면 - 만약 이 깨달음이 구경究竟 원만圓滿한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성립한다면 - 이 말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능지_{能知}’ 와 ‘소지_{所知}’ 가 대립적인 것이라면, 깨달음은 원만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유한한 것이어서 구경 원만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지_{能知} · 능각_{能覺}’ 과 ‘소지_{所知} · 소각_{所覺}’ 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항상 말하는 일진법계—眞法界—요, 화엄에서 말하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원만한 최상의 경지인 것입니다. 정토종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도 이 일진법계에 속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불법’이라는 명사가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 대략 적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화민국 건국 초기에 활동한 우양경무^{歐陽竟无} 선생은 당대의 저명한 불교 학자입니다. 그는 남경에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을 세워 적지 않은 불교인재들을 배출했는데, 그들 중엔 출가 승려도 있고 재가 신도도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1923년 현재 남경사범대학이라 불리는 제4중산대학^{第四中山大學}에서 ‘불법은 종교도 철학도 아니다. 다만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연은 당시 중국 사회에 상당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예문을 들어 불법의 의미를 바르게 밝혔습니다.

그 후 왕은양^{王恩洋} 거사가 이 강연문을 정리하여 작은 책자로 출판하였고, 현재 대만에서도 유통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관점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과연 무엇인가? 불법을 배우는 이는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불타의 가르침입니다. 즉 온 세상 중생을 위해 불타가 설하신 지극히 선하고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다함없고 끝이 없는 현상과 이치도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의 교육 과정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를 말하고, 공간적으로는 눈앞의 생활에서 곧장 다함없는 세계까지 추단_{推斷}하고 연역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르침과 배움이요 교육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요, 우주와 인생을 깨닫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공자_{孔子}의 교육이 일세_{一世} 즉 일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불법은 3세_{三世}, 즉 과거·현재·미래를 말하는 교육입니다.

불교가 참으로 교육인가? 만약 자세히 관찰해보는다면 이 의문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오직 가르침과 배움만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불을 근원적 스승 즉 본사_{本師}라 부르는데, 이것은 이 교육이 그가 창시한 것임을 뜻하고 그에 의해만 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자’라 합니다. 제자란 예부터 학생이 자신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호칭만 보더라도 부처님과 우리는 사제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두고 말하자면 하느님과 신도는 사제간이 아닙니다. 불문(佛門)에서는 부처님과 우리는 사제간이고, 보살과 우리는 동학(同學)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보살은 부처님의 초기 제자이고, 우리는 부처님 현재의 제자입니다. — 따라서 우리와 보살은 전후기의 범우이고, 보살은 우리의 선배가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출가한 이를 ‘화상(和尚)’이라 부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원 안에는 단 한 사람의 ‘화상’만 있습니다. ‘화상’은 인도말로 친교사(親教師)의 번역어입니다. 즉 친히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란 뜻으로, 지금 학교 내의 지도교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관계란 매우 친근하고 밀접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나를 가르친 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법사(法師)’라 불러야 합니다.

마치 같은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나를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처럼 ‘화상’과 ‘법사’의 차별도 이와 같습니다.

또 화상을 가르치는 스승을 ‘아사리(阿闍梨)’라 하는데, 아사리의 언행은 우리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므로 우리는

그를 따라 배웁니다. 이와 같은 호칭은 교육에만 있지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불교는 교육이지 종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사원의 조직 체제를 보면, 사원은 마치 학교와 박물관을 결합해 놓은 것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과 예술을 결합시켜 놓은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현대에서 말하는 예술학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술 예술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2, 3천 년 전에 이미 예술적 가르침을 폈습니다.

사원 조직에서도 현대 학교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상’은 학교 교장에 해당하고, 학교 행정을 주관합니다. 학습 프로그램도 세우고, 교사도 초빙합니다. 이것이 교장의 임무입니다.

화상 밑에는 그를 도와 일을 보는 이가 있는데, 불가^{佛家}에선 그들을 ‘강령집사^{綱領執事}’라 부르고, 세 개의 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교무를 담당하는 이를 ‘수좌^{首座}’라 하고, 훈도를 관장하는 이를 ‘유나^{維那}’라 하며, 총무를 관장하는 이를 ‘감원^{監院}’이라 합니다.

그 명칭이 학교시설과는 사뭇 다르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담당하는 교무·훈도·총무 등의 업무는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원이라는 조직체계는 확실히 하나의 학교체제이고, 따라서 사원은 완벽한 하나의 학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총림_{叢林}’이라 부르던 기관은 바로 불교대학입니다.

불교의 기원에서부터 중국불교 건립에 이르기까지 사원은 확실하게 하나의 학교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주지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변형된 현대불교

현재 이 세계에는 최소한 네 가지 다른 형태의 불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세간에 출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전통적 불교’, 즉 ‘불타의 교육’입니다. 석가모니불은 본래부터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통적인 불교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타의 불교도 얼마간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불교는 본래 종교가 아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교가 종교라 말해도 우리는 이를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보여지는 외형은 확실히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총림과 사원에서는 하루 8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루 8시간씩 수업하는 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중국의 사원은 매일 8시간씩 수업을 하고, 8시간씩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좌선하는 것이고 하나는 염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하루에 평균 16시간을 공부에 힘을 쓰므로 해행(解行)이 상응하였습니다. 수업이란 경문에 대한 강의를 듣거

나 연구 토론하는 이론적인 것이고, 그런 연후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각^覺·정^正·정^淨을 닦습니다.

매일 16시간을 공부에 힘을 쓰게 되면 자연히 망념^{妄念}이 줄어들어 빠른 시간에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찰 도량에서는 그저 매일 불공이나 드리고 약간의 복덕을 쌓을 뿐이니, 불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교학^{敎學}으로서의 불교**’입니다. 불교가 학술 또는 철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일부 대학에서 ‘**불경^{佛經}철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일종의 철학으로써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불교를 철학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교육은 완벽한 하나의 대학교육입니다. 모든 학과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저 철학에만 국한시키어 자그마하게 축소시키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양^{歐陽} 선생께서,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불법^{佛法}은 불법^{佛法}이고, 모든 중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불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생활에서 오는 문제를 비롯하여 미래에 닥

처음 생사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불교 가르침이 내포하는 것이 매우 정밀하고 광대하므로 그것을 단지 철학으로만 인식한다는 것도 변질된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삿된 외도(邪門外道)의 불교**’입니다. 이는 최근 3, 4십 년에 나타난 것으로 불교계에 있어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로서의 불교는 권선(勸善)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이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연구하므로 그다지 사회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교가 사교(邪敎)나 외도(外道)로 변하여 인간 본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간판 삼아 중생을 기만하고 상해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대중의 안전을 위해한다면 그것은 변질이 되어도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말도 되지 않게 변질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삿된 외도의 말이나 행동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일단 발을 들여 놓게 되는데, 그리되면 훗날 일을 그르친 뒤에 뒀에 걸려든 것을 알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범우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네 종류의 불법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을 배워야 우리에게 참으로 이익이 되는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보고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 불타 교육의 목표

1) 불교의 계위階位

불교가 교육이라면 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서는 종종 많은 경전에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어의 음역音譯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타 교육의 총체적 목적이 되는데,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_{無上正等正覺}’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각_{正覺}’이고, 둘째는 ‘정등정각_{正等正覺}’이며, 셋째는 ‘무상정등정각_{無上正等正覺}’입니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 중생들도 우주와 인생에 대해 깨닫는 것이 있지만 다만 그 깨달음이 원만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철학자·종교가들도 세간 이치에 대해 확실히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은 ‘정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정각이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세간 이치에 대해 다소 깨달았다 하여도 그들의 번뇌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탐_貪·진_瞋·치_痴·만_慢 그리고 옳고 그름·남과 나라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부 중생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탐貪·진瞋·치痴·만慢·인아人我·시비是非·번뇌煩惱 등이 모두 끊어졌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정각’이라 하고 정각의 계위에 올랐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라한阿羅漢’이라 하는데, 아라한은 불교 계위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계위입니다. 아라한 이상의 계위를 ‘정등정각’이라 합니다.

‘등等’은 부처와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불한 것은 아닙니다. ‘등’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의 마음 씀이 부처님의 마음 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라한이 쓰는 마음은 부처님과 다르고 우리와 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겐 번뇌가 없고 우리에게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한의 이와 같은 마음을 불교에서는 ‘식심識心’이라 하는데, 이것은 거짓된 마음이지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은 모두 거짓된 마음으로 망심妄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이 당신에게 잘해준다 하여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지 참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호의를 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참이라 믿는다면 당신은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간의 중생들을 보면 오늘 사랑한다 했다가도 내일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로써 중생의 망심은 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살이 쓰는 마음은 참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쓰는 마음은 참 마음이고, 보살이 쓰는 마음도 참 마음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쓰는 마음은 ‘원만한 참마음’ 이고, 보살이 쓰는 마음은 ‘분별하는 참마음’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달의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셨는데, 보름의 만월^{滿月}을 부처의 마음에, 초사흘·초나흘과 같은 초승달은 보살의 마음에 비유하였습니다.

저 초승달을 보십시오! 어느 빛이 거짓이고, 어느 빛이 참이겠습니까? 거짓 빛은 하나도 없이 모두 참된 것입니다. 다만 원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하루부터 14일까지는 모두 보살의 마음이라 하고, 원만하지 않을 뿐 그 마음 모두를 참된 것으로 보기에 우리는 그를 ‘정등정각’ 이라 부릅니다.

아라한^{阿羅漢}과 벽지불^{辟支佛}이 쓰는 마음은 마치 물속에 어린 달과 같고, 거울에 비친 달과 같아서 경화수월^{鏡花水月}이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참이 아닙니다. 마음 쓰는 것을 두고 말한다면 부처와 보살이 쓰는 마음은 모두 참된 것으로 이 둘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처음으로 일품무명^{一品無明}을 깨트려 일본

법신一分法身을 증득한 초주初住 보살이라 하여도, 그의 용심用心은 참된 것으로 절대 허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등정각’이라 합니다. 닦고 배워 정등정각에 이르면 이를, ‘보살’의 계위에 올랐다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라한은 학사學士이고, 보살은 석사碩士이며, 부처는 박사博士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통칭으로써 석가모니불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지혜가 마침내 원만한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곧 참된 마음을 원만히 증득한眞心圓證 것이므로 우리는 그를 부처라 부릅니다. 부처님이 증득한 것은, ‘무상정등정각’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든 보살이든 아라한이든 이 모두는 불교 계위의 명칭일 뿐, 그들 모두는 사람입니다. 결코 신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절대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을 깨달은 이로써 마침내 원만한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불교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지혜의 교육이고, 지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2)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불교교육이 추구하는 방침은 철저하게 ‘미신’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깨트려 깨달음을 이룬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미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참 모습, 그리고 생활환경의 참된 모습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와 인생의 참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 따위가 없다면 그가 맛보는 결과는 매우 즐거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깨트려 깨달음을 이룸’은 인因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는다.’는 과果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불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미신을 타파하여 참된 지혜를 개발하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진眞·망妄·사邪·정正·시是·비非 나아가 선善·악惡·이利·해害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런 연후에 모든 중생을 도와 이지_{理智}·대각_{大覺}·분발_{奮發}·진취_{進取}·낙관_{樂觀}·향상_{向上}의 온 세상을 구제하는_{〔慈悲濟世〕} 우주관과 인생관을 세우게 합니다. 낙오

불교는 소극적인 것도 뒤떨어진_{〔落伍〕}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불교는 원만한 것이어서 우리를 도와 중생의 모든 고통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일생동안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국가와 계급이 없고 사람마다 평등한 대동_{大同}세계를 이루게 한다.” 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이 세간에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 이후의 목표를 말하자면, ‘번뇌를 끊고, 삼계를 벗어나는 것’ 이고, 그 밖의 뛰어난 이익은 더욱이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법은 가르침이고,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진·선·미·지혜의 영원하고 진실된 그리고 행복한 교육성과를 얻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 불타 교육 입문 — 지장경地藏經

1) 대원만大圓滿

우리는 불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방침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설하신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그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은 불교의 교과서입니다. 대승불교를 일깨워주는 경전은 지장경인데, 이는 초학 입문하는 1학년의 교과서로서 불법의 참된 이치가 《지장경》에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은 언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방광^{放光}으로 그 이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법회가 시작하자마자 곧 큰 광명을 발하셨습니다. 무량한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문은 대원만 광명운大圓滿光明云에 대한, 대자비광명운大慈悲光明云에 대한, 대지혜광명운大智慧光明云에 대한, 대반야광명운大般若光明云에 대한, 대삼매광명운大三昧光明云에 대한……, 나아가 대찬탄광명운大讚嘆光明云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구^句는 법을 표현한 것으로 법이 오직 열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량무변^{無量無邊}을 10이란 숫자로 표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에서 10에 이르는 숫자 가운데 10을 가장 원만한 숫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무량’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무량_{無量}’은 곧 《지장경》에서 말하는 ‘원만’입니다. 원만을 열 가지로 나열해 설명하였다면, 그렇다면 무량은 어떠합니까? 무량에 대해선 단 하나 ‘수_壽’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한량없는 수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량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한량없는 것 가운데 수명이 가장 으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량없는 전답과 한량없는 금은 재물이 있다 하여도 만약 수명이 다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토종_{淨土宗}에서는 단 한 글자, 수_壽로써 일체 무량을 나타내고, 《지장경》에서는 열 가지 광명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가 곧 다수_{一卽多}이고, 다수가 곧 하나_{多卽一}이니, 다함없는 우주와 인생은 이로써 다 설명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도대체 무엇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경을 강_講하고 법_法을 설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에 대해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원만광명운_{大圓滿光明云}’입니다.

밀종^{密宗}에서 말하는 ‘대원만’ 이 바로 현종^{顯宗}에서 말하는 ‘진여자성^{眞如自性}’ 입니다. 진여자성이 바로 대원만이고, 참 마음·제1의제^{第一義諦} 이 모두 대원만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뒤이어 거론되는 아홉 가지도 ‘대원만’ 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비’ 를 설명하자면 자비는 원만한 것이고, ‘지혜’ 를 설명하자면 지혜는 원만한 것입니다. 갖가지가 다 원만하고,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원만하여 어느 하나도 원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대원만’ 이라 합니다. 따라서 대원만은 바로 우리의 진여본성^{眞如本性}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지에서 우리들에게 한량없고 다 함없는 경전을 설하시어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설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 모두 우리 자신의 본유^{本有}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이고, 불교가 일반 교육과는 달리 우리와 절실히 연관되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석가모니불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설하신 것은 한 마디로 대원만법^{大圓滿法}입니다. 세간 사람들은 매일 힘들게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힘이 그들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도록 부추깁니까? 여러분도 잘 압니다. 바로 명예와 이

득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득은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혀 이득도 없고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은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되면 당연히 게을러지고 힘을 쓰지 못하여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작동시키는 동력의 근원은 바로 이득이고, 그 다음이 명예입니다.

불보살은 명예에 애착하지 않고 이득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시방세계에서 중생을 가르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고생합니다. 무슨 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2구인 ‘대자비광명운’大慈悲光明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특히 갓난아이를 돌볼 때는 조금도 미흡함 없이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이득을 위해서? 그들은 아무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 하나 하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자비심’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대비大慈大悲합니다.

이런 자비는 두루 평등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힘으로 영원히 불보살로 하여금 시방세계에서 끊임없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도록 이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만광명운’ 뒤에 ‘대자비광명운’을 설

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우리는 모름지기 자기 수행도 해야 하고, 남도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불법을 주위에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을 보급케 하는 것은 무슨 힘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자비의 힘이고, 진정한 불법입니다.

만약 명예를 위해 경을 강연하여 자신의 지명도^{知名度}를 올리려 하거나 혹은 경 한 부에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등,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을 편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에서의 자기 수행과 중생 교화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불법의 유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요즘 인쇄되는 경전 뒷면에 종종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단 번역 인쇄는 처벌받습니다.’ 이는 사고 파는 장사일 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게 불교서적을 선물하면 저는 먼저 판권이 기재되어 있는 뒷면부터 봅니다. 만약 뒷면에 위와 같은 글귀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책을 넘겨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왜 보지 않느냐고 묻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선지식이라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판권 따위

에 연연하지 않고 번역하여 인쇄하는 것을 권장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탁 트였고, 부처님께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이 절박하며, 심행(心行)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글은 후학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속이 좁고 명예와 이득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떻게 대원만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는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미혹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문에서는 종종, “자비(慈悲)를 근본으로, 방편(方便)을 문으로 삼는다.” 고 말합니다. 이는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양대 원칙입니다.

후에 불가에서 다시, “자비는 재화를 낳고, 방편은 비열함을 낸다.”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다면, 자비는 곧 재화가 되고 방편은 비열함이 됩니다.

그런 연유로 뒤이어 바로 ‘지혜대원만’을 설하신 것입니다. 원만한 지혜에서 원만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이때의 지혜는 바로 방편입니다. 갖가지 다른 방법과 수단에 대자대비의 힘을 덧붙여 이끌 때 비로소 다함없는 중생을

도와 미혹을 깨트려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제4구 ‘대반야광명운大般若光明云’은 원만한 반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반야’와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반야경》에 분명하게 해설합니다. “반야는 ‘분별의’ 앎이 없고, ‘분별의’ 앎이 없는 것이 반야이며, 반야는 알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 것이 없다’ 함은 ‘반야’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체體이고, 하나는 용用입니다.

만약 다른 각도에서 이 두 명사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지혜를 ‘지혜’라 하고, 번뇌를 끊고 무명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는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지혜는 무명 번뇌를 끊을 수 있으므로 ‘근본지根本智’라고 말하고, 우주 만유 현상을 능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후득지后得智’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후득지’는 ‘근본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우주 전체의 대원만에 대해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입니다. 마치 중국 선종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6바라밀 중 제 5 바라밀인 선정바라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 역시 ‘반야바라밀’입니다.

육조 혜능대사를 보십시오! 그는 《육조단경》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염독^{念讀}하라고 했습니다. 반야와 지혜, 하나는 지혜의 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 것이 없다’이고, 하나는 ‘알지 못할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알 것이 없는 지혜만이 번뇌를 끊을 수 있고, 무명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무명과 번뇌가 다 하면 자성의 대원만을 깨닫게 되고,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작용이 바로 알지 못할 것이 없음이요, 하지 못할 것이 없음입니다. 지혜와 반야의 광명운은 이와 같이 깊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지혜 모두 앞장에서 말한 교육의 최종 목표인 ‘무상정등정각’이요, ‘구경원만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능이요, 본유^{本有}며,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처님께서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지혜는 다시 회복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혹을 깨트리어 우리 본성에 본래 갖추고 있는 원만한 지혜를 회복할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정禪定이라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정은 《지장경》에서 ‘대삼매광명운大三昧光明云’이라 칭하는데, ‘삼매三昧’는 범어를 음사한 것으로 ‘정수正受’라 번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뜻입니다.

불법에서는 수행修行을 강조합니다. 수는 수정修正이고, 행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인간의 한량없는 행위를 세 가지로 귀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신으로 짓는 신업행위身業行爲이고, 둘째는 말로 짓는 구업행위口業行爲이며, 셋째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짓는 의업행위意業行爲입니다.

행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중국에는 이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3업행위業行爲’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 잘못된 언사,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잘못된 행위라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 모두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수행입니다.

3업 행위의 수정修正은 마음이 위주가 됩니다. 선종에서

‘수행은 근본부터 닦아야 한다’ 고 말하는데, 무엇이 근본이겠습니까?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근본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언행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그 언행이 바르게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마음에서부터 닦아야 합니다. 삼매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즉 ‘심정心定’ 입니다.

불법에서는 행문行門이 무량무변하여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은 방법이고, 문은 길입니다. 이 많은 방법과 길 모두 정定을 닦는 것입니다. 사실 정을 닦지 않는 종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것을 선정이라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정토종의 ‘일심불란一心不亂’ 이 선정이고, 교학에서 닦는 ‘지관止觀’, 그 지관이 바로 선이며, 밀종에서 말하는 ‘삼밀상응三密相應’, 그 상응이 바로 선입니다.

불교의 각 종파와 법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달라도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법에서는 ‘법문은 평등하다[法門平等], 길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殊途同歸], 높고 낮음이 모두 없다[并無高下]’ 를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내게 익숙하고 자유롭고 순조롭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불법을 수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법

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법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법문이 많을수록 미혹이 커지어 오히려 깨달음을 성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인식입니다.

‘삼매’는 불교 수학의 요점입니다. 계戒·정定·혜慧, 3학學 중 정은 계로 인해서 얻고, 혜는 정으로 인해 열립니다. 그러므로 반야지혜는 선정에서 나오고, 선정은 곧 자성본정自性本定이어서 ‘대삼매광명운大三昧光明云’이라 부릅니다.

열 가지 광명운 가운데 앞의 반은 원리이고, 뒤의 반은 원칙입니다. 원리는 부처님 설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어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칙이 되는 첫 번째 광명운은 ‘대길상광명운大吉祥光明云’입니다. 길상吉祥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이 길상입니다. 내가 얻어서 안 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함축된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허공이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 편재한, 그것이 이론이든 현상이든 모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현상과 사물의 수용 또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대길상大吉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심으로 염불하여 서방 극락정토에 나기를

염원한다면, 서방 극락세계의 의보_{依報}·정보_{正報} 장엄은 마땅히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세계_{華藏世界}에 난다면 비로자나불의 의보·정보 장엄 또한 여러분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상의 본뜻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부처님께서 대기_{對機} 설법을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길상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첫째로 절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중생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준에 맞지 않게 정도가 얇은 것을 너무 깊게 설명하여 알아듣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이 되므로 길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도가 깊은 것을 너무 가볍게 설명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한다면, 이 또한 길상이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연에 계합하고, 진리에 계합하는’ 설법만이 가장 길상하다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헛되지 않고 우리 또한 헛듣지 않아서 진실로 참된 이익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길상한 것이고, 대길상이며 그리고 원만한 길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복덕_{福德}’입니다. 대길상은 기연과 진리에 계합해야 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아야 합니다. 현존하는 우리 대중들이 항상 잊지 않고, 마음으로 늘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재복과 지혜와 건강과 장수일 것입니

다. 이러한 것들은 눈앞에서 당장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복덕이라 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주지 않고 그저 불법만 배우라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릴 겁니다. 어째서인가? 지금 당장 갖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데 내생에 큰 복덕을 얻는다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언제 그것을 누리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앞의 복록을 얻을 수 있어야 훗날의 복덕을 믿습니다. 마치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현재 꽃이 피어야 멀지 않은 장래에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만약 꽃도 피우지 않았는데 장래에 맺힐 열매에 대해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길상 뒤에 반드시 대복덕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복덕을 얻습니까?

‘복덕’은 과_果이므로 그 전에 반드시 인_因을 닦아야 합니다. 이른바 어떤 인을 닦느냐에 따라 어떤 과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말합니다. 공덕은 복덕과 다릅니다. 공덕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부처님들은 불과를 이룬 뒤에도 백 겁의 시간을 들여 복을 닦습니다. 왜일까요? 복의 과보_[福報] 없이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할 때, 듣는 이들 눈에 그가

복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에게 큰 복덕이 있고 그것이 수행에서 얻은 것이라 말한다면,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그를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여야 비로소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_定은 인으로 인해 얻고, 혜_慧는 정으로 인하여 열린다.’ 고 말하는 계·정·혜 3학은 모두 공덕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 수복_{修福}·수혜_{修慧} — 복혜쌍수_{福慧雙修}인 것입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준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칙을 ‘대귀의_{大歸依}’라 합니다. 대귀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승 3보에 대한 귀의가 아닙니다. 대귀의는 원만한 자성에 대한 귀의로써 원만한 자성 3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찬탄’입니다. 찬탄은 사실상 중생교화입니다. 자성이 원만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고, 자성이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만한 자성을 증득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종에서는 종종 부모 미생전^{未生前}의 본래면목을 말합니다. 부모 미생전의 본래면목이 바로 대원만 자성입니다.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 불법에서 배우는 것 모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방향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모든 것은 《지장보살본원경》에 의거한 것입니다. 경문은 광명을 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광명 속에 한량없고 끝이 없는 의취^{意趣}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열 가지(열은 원만을 뜻합니다)로 나열해 설명했습니다. 이 단락의 경문은 대체로 두루뭇실 어렴풋이 읽고 넘어가기 쉬워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지장경》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론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대원만’에서 흘러나와 설해진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5구는 대원만의 자성이고, 뒤의 5구는 자성이 일으킨 작용 즉 대만원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타 가르침이 의거하는 준거입니다. 이 같은 경문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말로써 설하시고, 때로는 방광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서 경을 읽는다면 그 흥취는 배가 될 것입니다.

2) 대승원만법大乘圓滿法

지장地藏/ 관음觀音/ 문수文殊/ 보현普賢

대승불교의 수학修學의 차례는 4대보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구화산九華山의 ‘지장보살地藏菩薩’ 이고,

둘째는 보타산普陀山의 ‘관음보살觀音菩薩’ 이고,

셋째는 오대산五台山의 ‘문수보살文殊菩薩’ 이며,

넷째는 아미산峨嵋山의 ‘보현보살普賢菩薩’ 입니다.

이 4대보살로써 전체 불법을 대표합니다. ‘지地’ 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오곡을 내어 우리를 살찌우니 대지를 떠나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하 자원과 보물은 우리 생활을 윤택케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대지’ 로써 우리의 마음자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진실로 대원만하여 본래부터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반야와 나아가 한량없는 길상과 한량없는 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론이 다 한량없습니다. 모든 경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 경론의 글자 글자마다 무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쯤에야 그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지장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불법에 입문하여 가장 먼저 수학해야

할 ‘효친_{孝親}’ 과 ‘존사_{尊師}’ 입니다.

불타의 교육은 사도_{師道}에 있고, 사도는 효도_{孝道}를 기초하여 세워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스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을 존중치 않고 스승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스승에게 학문과 능력이 있다한들 그에게 전수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길 때, 학업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불가_{佛家}의 효경_{孝經}입니다. ‘효도’는 ‘대원만’의 뿌리이자 근본이어서 모든 대원만이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대원만’의 전개와 상승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므로 이 효도와 존경을 확장 발전시켜서 모든 중생을 효경_{孝敬}하되,分別심을 내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평등하게 허공계의 모든 중생을 효경_{孝敬}한다면, 이것이 바로 ‘관음_{觀音}’의 법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음은 지장의 확대며 전개입니다.

만약 지장이 없다면 관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이층집을 짓는 것처럼 일층이 없는데 어떻게 이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음을 지장의 확대와 전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음을 대자대비라 합니다.

‘효와 자비’를 행함에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성의 기반에 의지해야 비로소 진실한 수용을 얻을 수 있고, 직접적인 이로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살인 ‘문수보살’은 ‘지혜’를 대표하고,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효와 경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에 대해, 사실에 대해, 사물에 대해 마음이 이끄는 그대로 하되, 전혀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누가 보현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보현입니다. 보현법문은 원만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현행을 닦지 않으면 불도를 원만히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째서인가? 보현은 마음 마음이 대원만이고, 서원 서원이 대원만이며, 행동 행동이 다 대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가운데 진실된 지혜가 없다면 보현보살의 대원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살은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대승의 원만한 불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지장에게서 효경을 배우고, 나아가 관음에게서 자비를, 문수에게서 지혜를, 보현에게서 대원대행을 배워야 합니다.

6. 불법 수학修學의 5대 과목科目

1) 3복福

부처님의 설법은 활발한 것이라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펴시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의 교법은 대원만을 여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자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서 법문은 진실로 평등합니다.

이것이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주체와 객체가 원만하게 용융한다는 주반원융主伴圓融입니다. 주반원융은 하나가 주체가 되면 나머지는 모두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사이신 석가모니불을 주로 보면 나머지 모든 부처는 객이 되는 것이고, 만약 비로자나불이 주가 되면 석가모니불은 객이 되며, 아미타불이 주가 되면 비로자나불은 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처님이라도 주가 될 수 있고, 객이 될 수 있어 주와 객이 원융무애圓融無碍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고 보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한다면 나머지 제불은 객이 되고,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한다면 관세음보살은 객이 됩니다. 불교경전 역시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량수경》을 주로 삼으면 나머지 모든 경전

은 객이 되고, 《금강경》을 주로 하면 《무량수경》 뿐만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 모두 객이 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그것의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무애자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교학의 요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어떤 법문을 수학하든 다 그것이 제1이라고 찬탄합니다. 이 법문이 제1이라고 찬탄한다 해서 나머지 법문이 제2·제3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확히 해야 과실을 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실이겠습니까? — 자신의 것을 찬탄하고 남의 것을 비방하는 — 이러한 과실은 큰 계율을 범하게 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수학_{修學}의 요강_{要綱} 가운데 《무량수경》의 연기설에 의하면 위제희_{韋提希} 부인의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쳐와 사바세계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 진실로 체득한 바가 있어 석가모니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생활환경, 더 청량한 세계, 악을 짓지 않는 그런 세계는 없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면 저는 그 세계에 나기를 원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서는 매우 자비로우셔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신통력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선택케 하셨습니다. 그녀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중 서방

극락세계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석가모니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그녀에게 세 가지 청정한 업을 닦도록 하고, 아울러 이 세 가지 청정한 업이 ‘삼세제불 정업정인^{三世諸佛淨業正因}’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3세의 모든 부처님, 즉 과거불·현재불·미래불이 수행하여 불과를 증득할 때 이 3복을 기초로 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2층집을 짓는 것처럼, 얼마나 높이 짓든 어떤 양식으로 짓든 그 지반이 같은 것과 같습니다.

‘정업삼복^{淨業三福}’은 불법의 공통된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초 위에 세워야 모든 불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 인천복^{人天福}

정업삼복^{淨業三福}의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봉양하며 [孝養], 스승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10선업^{善業}을 닦는다.’ 이고, 둘째는 ‘3귀의^{歸依}를 수지하고, 모든 계율을 갖추며, 위의^{威儀}를 범하지 않는다.’ 이며, 셋째는 ‘보리심^{菩提心}을 내고, 인과를 깊이 믿으

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하기를 권장한다.’ 등 모두 11구절입니다.

우리는 경문에서 부처님께서 ‘선남자·선여자여’ 하고 부르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무엇을 ‘선_善’ 이라 합니까?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이란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업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11구절을 모두 행해야 비로소 대승경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가 되니, 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만약 소승경이라면 그저 앞의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장경》과 《무량수경》은 모두 대승불법이어서 선남자 또는 선여자라 칭할 때 반드시 삼복의 11구를 모두 행해야 합니다.

만약 한 구절이라도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선남자·선여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을 읽을 때 자신은 선남자·선여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것이 기본적인 수학방법에 대한 것이든 우주와 인생의 진리에 관한 것이든 구절 구절이 다 대원만과 상응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진여본성_{眞如本性}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법마다 모두 대원만인 것입니다. 이 삼복 11구 역시 글자마다 다 원만합니다.

우선 첫 구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보십시오. ‘효’라는 자는 회의자_{會意字}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가 가지는 의미

를 알아야 합니다. ‘효’의 위 부분은 ‘노_老’ 자이고, 아래 부분은 ‘자_子’입니다. 이는 윗대와 아랫대가 일체임을 시사하므로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서양의 아버지와 아들은 들이지 하나가 아니어서 그들 사이에 세대차가 있습니다. 이는 효도가 아닙니다.

‘효’는 세대차가 없습니다. 과거에 또 과거가 있고 미래에 또 미래가 있어, 과거는 시작이 없고 미래는 다함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 본래부터 일체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세로로는 3제_際를 다 하고, 가로로는 시방에 두루 미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효’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온 허공계와 법계에 두루 편재_{遍在}한 것은 오직, ‘효’ 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이 아주 원만하게 효를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부처님뿐입니다. 만약 불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아무리 효를 행한다고 해도 원만치 않습니다.

‘효양_{孝養}’의 효_孝는 이성을 가리키고, 양_養은 덕행을 가리킵니다. 참된 효양은 부모의 육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까지도 봉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계경_{戒經}에 이르기를, “모든 남자는 내 아버지이고, 모든 여자는 내 어머니이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모께 효도하는 마음을 확대한 것이고, 온 허공계와 법계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효’ 이므로 대승 불법은 효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불법은 사도師道입니다. 사도는 ‘효도’ 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효도가 없으면 사도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모도 공경치 않으면서 스승을 공경한다 하면, 이는 이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선생님께 아부하는 것은 분명 좋은 생각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상 당연한 것이므로 사람마다 응당 그리 해야 합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불·보살과 고대의 성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효도’ 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불가의 효경孝經입니다. 오직 ‘효경孝經’ 만이 우리 자성의 무진한 보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효경孝經’ 은 우리 성품의 덕성입니다.

오직 우리 성품의 덕성만이 자성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 가지 정업 가운데 맨 첫 구에 두어 그것이 모든 정업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며,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시사합니다.

중국인들은 예부터 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비록 조상이 몇 백년, 몇 천년, 몇 만년, 우리와 아득히 멀리 있다 하여도 매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고 그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그 안의 도리를 깨달으면 추모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일체여서 이 사이에 전혀 틈이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추모한다는 것이 곧 자성과 일념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득히 먼 옛 조상들도 잊지 않고 그리는데, 하물며 눈앞에 계신 부모께 효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 조상을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께 효도할 것이고, 부모께 효도하는 사람은 스승을 존경하게 되니, 이것이 성덕^{性德}의 대용^{大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승을 존경치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열심히 그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애를 태우게 되므로 이것은 불효입니다.

다음, 형제간에는 화목해야 합니다. 만약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니 이 역시 불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칙을 따르고 법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쓰지 않게 하고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효도는 확실히 성덕의 구경원만^{究竟圓滿}이고, 불법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최초의

스승입니다. 3천 년 전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득히 먼 스승조차 존경하고 그리는데, 어떻게 눈앞에 계시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경배하는 것은 그 불상을 신명으로 여기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사^{本師}의 유상^{遺像}으로 보고 처음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보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들이 불상을 공양하고 조상을 공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위패를 보거나 불·보살의 형상을 보면 바로 효경 — 부모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 을 떠올리는 깊고 넓은 교육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장경》에서 대원만을 설한 뒤 불법은 이어서 ‘자비’에 대해 설명하는데, 즉 3복의 효친^{孝親}과 존사^{尊師}를 뒤이은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가 성덕이며,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효와 경을 확대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첫째 살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뜻이 깊습니다. 만약 《지장경》을 정독하지 않고 그 뜻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 한 구절에 함축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히 깨달은 연후에 비로소 모든 악업^{惡業} 가운데 살업

殺業이 가장 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생명을 가지는 모든 중생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살생은 원한에 의한 과보라 할지라도, 과보를 받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내가 전생에 그를 죽였기 때문에 금생에서 그에게 살해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내가 그의 육신을 먹었기 때문에 금생에서 내 육신을 그에게 공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업의 빛이 자연히 깊어져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원한이 가슴에 사무치어 내 다음 생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한다면, 원한에 의한 인과응보는 끊이지 않고, 원한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특별히 ‘자비’를 설하셨는데, 자비가 포함하는 면은 무한히 깊고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행(殺行)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효시한 다섯 가지 근본 계율 가운데 첫 번째가 불살생(不殺生)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살생을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어깁니다. 이는 스승에 대한 불경이고, 불경은 바로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

르지 않고 못 중생을 해친다면, 이는 비단 자비심만 잃는 것이 아니라 효경조차 잃게 되는 것이니, 이 깊고 깊은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자세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1구는 ‘10선업을 닦아라’ 인데, 10선업은 세간 선법_{善法}의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 가지 선업을 닦으면 결정코 3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상품_{上品}의 10선업은 천상에 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정과 4무량심_{無量心} — 자_慈·비_悲·희_喜·사_捨 — 을 닦으면 예를 들어 색계천_{色界天}·무색계천_{無色界天}과 같은 하늘의 최상층에 나게 됩니다.

‘10선’을 귀납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신·구·의입니다. 신업_{身業}에는 살생하지 마라·도둑질하지 마라·사음_{邪淫}하지 마라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동학들을 위하여 설한 것입니다.

만약 출가자라면 사음은 음욕_{淫欲}으로 바뀌어야 하고, 탐애_{貪愛}를 깨끗이 끊어야 합니다. 만약 음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법문을 닦든, 공부와 선행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정의 힘이 아무리 깊어도, 겨우 욕계천_{欲界天}에 날 뿐입니다.

욕계_{欲界}는 여섯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 갈수록 정욕은 열어집니다. 이런 연유로 참으로 선_禪을 닦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설사 그가 초선_{初禪}, 즉 세간선을 얻었

다 하여도 음심을 조복할 수 있어 결정코 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財·색色·명名·식食·수睡와 같은 5욕欲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5욕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 해도 선정의 힘으로 충분히 이 같은 망념을 없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초선천初禪天 이상의 하늘에 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선을 참구하여 정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참선을 한다면 우선 진지하게 재財·색色·명名·식食·수睡, 이 5욕에 마음이 동하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동한다면 초선계는 그대들의 몫이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선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이는 많아도 선정을 얻는 이는 적습니다. 완전한 정에 이르지 못한 소정小定을 얻은 이는 간혹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선정을 얻어 색계천에 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투도偷盜란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회를 틈타 교묘하게 탈세를 피했다 합시다. 탈세 그 자체가 곧 나라 것을 훔친 도둑질이므로 그 죄과는 더욱 엄중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의 빚만 갚으면 되겠지만, 나라 것을 훔쳤다면 수천만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채권자가 됩니다.

미국 인구가 2억입니다. 만약 이 2억 인구가 모두 채권자가 된다면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갚아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규칙을 따르고 법을 지키어 절대 교묘하게 이득을 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투도계를 범하지 않고, 사음계도 범하지 않으며, 살생계도 범하지 않는 것을 청정한 신업身業이라 합니다.

구업口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口란 언어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네 가지 선법이 있습니다.

첫째 불망어不妄語로, 망어란 저의를 품고 남을 기만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불양설不兩舌로, 양설이란 이간질하는 것으로 갑이라는 사람 앞에서 ‘을이 네 흉을 보더라.’고 말하고, 을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갑이 네 흉을 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마리 소를 어지럽게 싸움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간질은 저의가 있든 없든 모두 양설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시시비비를 충돌질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을 전할 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본의와 어긋나 잘못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말을 한 사람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 한 마디 나 한 마디 덧붙이다 보니 남의 본뜻을 완전히 뒤바뀌 놓습니다.

이는 큰 과실입니다. 이런 경우 작게는 두 사람의 사이를 벌려 놓겠지만, 크게는 두 나라간에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종류의 과실은 매우 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악구惡口입니다. 악구란 말을 할 때,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예의를 무시하며, 거칠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어綺語이며, 기어는 감언이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매우 좋으나 그 의도는 매우 불손합니다. 마치 요즘 사회에 유행하는 영화나 춤, 음악처럼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살생과 도둑질 그리고 사음과 망어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이 전부 기어에 속합니다. 입이 이와 같은 네 가지 악업을 여의게 되면 청정한 구업이라 합니다.

세 번째 의업意業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생각은 불탐不貪·불진不瞋·불치不痴, 이 세 가지로 귀납됩니다. ‘탐貪’은 탐애로써 인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탐慳貪이라고도 합니다. 욕망은 만족되는 법

이 없는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만족스럽기를 갈구합니다. 이는 탐심입니다.

또한 이미 얻은 것을 놓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은 인색이라 합니다. 인색은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써 간탐의 장애를 없애도록 가르치십니다.

몇몇 노숙들은 세간법과 명리, 이양^{利養} 또는 5욕 6진 등을 탐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법을 탐하여 이것도 배우려 하고 저것도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탐심을 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탐심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끊으라고 하셨지, 탐닉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세간법을 탐하고 지금에 와서 불법을 탐한다면, ‘탐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잘못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간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탐해선 안 됩니다. 이는 탐애가 모든 업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에^{瞋恚}는 성냄입니다. 성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요? 탐한 것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탐한 것을 얻는다면 성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냄은 큰 번뇌입

니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이 ‘탐·진·치’를 3독번뇌라 부릅니다. ‘간탐^{慳貪}’은 아귀의 업인^{業因}이 됩니다.

사람이 죽은 뒤 무슨 연유로 아귀가 될까요? 탐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유로 지옥에 떨어질까요? 진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유로 축생이 될까요? 우치^{愚癡}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치라 합니까?

지혜가 없는 것을 우치라 합니다. 세간법과 불법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으며, 바름도 있고 삳됨도 있으며, 옳음도 있고 그름도 있으며,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만약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를 변별하지 못하고,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여 거짓을 참으로, 삳됨을 바름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우치’라 합니다.

이 3독 번뇌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데 가장 심각한 장애입니다. 불법의 수행, 특히 선종의 조사 대덕들이 제창하는 것은 근본서부터 닦는 수행입니다.

근본이란 마음을 일컫는 말로써, 탐·진·치를 멀리하고, 탐·진·치를 단멸한다면 참된 마음이 절로 드러나므로 근본서부터 닦는다고 합니다.

이 신업 세 가지와 구업 네 가지, 그리고 의업 세 가지를 합하여 10선업이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10선업을 닦는다면 우리 모두 세간의 선한 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이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가장 낮은 기준도 행하기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정부는 착한 사람 선한 일 찾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위의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착한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이 딱히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기준은 불법의 네 가지 조건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달렸는데 행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하기 어렵다 해도 이는 선행의 가장 낮은 기준이므로 열심히 배우고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2승복乘福

삼복의 두 번째는 2승복乘福인데, 이는 소승불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승은 소승을 기초로 합니다. 소승불교는 수隋·당唐 때에 중국에 전해져 경전 번역을 완성하였고(팔리경장은 한역 경장보다 50부 가량 많습니다), 또한 한동안 유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 당나라

말엽에는 이미 쇠퇴하였습니다.

소승불교가 중국에서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유가·도가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유학과 도학(도가는 도교가 아님)은 소승불교를 대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유가와 도가의 사상은 확실히 대승불교와 비슷합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유학과 도학이 소승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사서_{四書}와 오경_{五經}을 읽었고, 노자·장자와 같은 전적을 읽었기 때문에 대승불법을 수학할 기초가 매우 탄탄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까닭으로 소승불교가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소승경도 배우지 않고 유학과 도학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지반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1층을 짓지 않고서 2층부터 지으려 하는데, 이는 공중누각이므로 아무리 지어 올리려 해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세대에 참된 불법의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승불법은 효친_{孝親}·존사_{尊師}·자비심_{慈心}·10선업을 닦음_{修十善業}이라는 인천복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진실로 불문에 입문하여 불법을 수학할 조건

을 갖추게 됩니다. 불문에 입문하고자 하면 먼저 스승을 맞이하고, 3귀계歸戒를 받습니다.

3귀계는 성대하고 엄숙한 대사大事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정식으로 스승을 맞이하는 의식으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을 스승으로 맞이하여 일생동안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수학하고 수행하기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스승을 모시게 되면, 스승은 자연히 그에게 수학의 총강령을 전수하고 원칙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수행에 기준이 있게 되는데, 이 기준은 수정修正행위의 가장 높은 지도원칙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전수삼귀의傳授三歸依’라 합니다. 3귀의는 귀의불歸依佛·귀의법歸依法·귀의승歸依僧입니다. 예전에 3귀의를 말하면 사람들 모두 그 의미를 알아들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르러 불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불·법·승 3귀의를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여, ‘귀의불’ 하면 불상을 떠올리고, ‘귀의법’ 하면 경전을 떠올리고, ‘귀의승’ 하면 출가인을 떠올리는 등 3귀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나라 선종의 육조 혜능대사께서는 후학들이 3귀의에 대해 잘못 이해할 것을 걱정하여 《단경》에서 3귀의 전수를 설명할 때, 귀의불·귀의법·귀의승이란 글귀를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귀의의 의미에 착안하여 불·법·승 세 글자를 빼고 귀의각_{歸依覺}·귀의정_{歸依正}·귀의정_{歸依淨}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3귀의의 용어 혁신은 우리의 귀와 눈을 일신하여 한번 들으면 바로 그 의미를 짐작케 합니다. 그리하여 절대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런 연후에 여기에 해석을 더 붙여 ‘불_佛’은 각_覺이라고 말합니다.

불이란 곧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법_法’은 정_正입니다. 즉 법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정지_{正知}, 정견_{正見}을 의미합니다. ‘승_僧’은 청정입니다.

우리의 여섯 가지 인식기관인 6근이 청정하여 한 점의 티끌에도 더럽혀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수행의 주된 의지처는 바로 자성각_{自性覺}·자성정_{自性正}·자성정_{自性淨}입니다. 이를 일컬어 ‘자성삼보_{自性三寶}’라 하는데, 이 자성삼보야말로 진실한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따라서 3귀의는 절대 특정한 어떤 인물에 귀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에 입문한 첫 걸음부터 잘못되어 한 번 잘못되면 끝끝내 잘못이니 무슨 성취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귀의를 전수할 때, 전수 증명하는 스승은 반드시 3귀의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주어야 진실로 3귀의를 전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설명된 3귀의를 듣고 환희심이 일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가르침에 따라 행한다면, 그 때부터는 바로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시방 모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부처님의 제자라면 경에 이르기를 36분의 법을 옹호하는 신장神將이 밤낮으로 보호한다 합니다. 만약 잘못된 귀의라면, 이는 거짓된 것이므로 모든 부처님의 가피와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먼저 ‘귀의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을 귀의라 합니까? ‘귀歸’는 되돌아간다 또는 회심回心한다는 뜻이고, ‘의依’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게도 구원 겁久遠劫에서부터 의지할 곳 없이 6도六道 속에서 유전 윤회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는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다 오늘에 이르러 좋은 스승을 만나니 그는 우리에게 자성각에 의지하여 미혹됨과 전도됨에서 돌이켜 개심改心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성은 본래 깨달음이므로 귀의불은 바깥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불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정토종에서는 흔히 ‘자성미타自性彌陀’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말합니다.

미타는 자성이 변화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미타불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불도 자성이 변화한 것이고, 시방 삼세의

모든 여래와 부처님 또한 모두 자성이 변화하여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의해야 할 대상은 자성불이고, 이것이 바로 자성각입니다.

부처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든, 사실에 대해서든, 사물에 대해서든, 반드시 깨달아 절대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아야 참된 귀의입니다.

만약 그대가 부처님께 귀의하고서 여전히 미혹하고 전도된다면, 그대는 결코 돌이킨 것이 아니고 의지할 것도 없게 됩니다. 바뀐 말하면 진정으로 귀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귀의는 유명무실하므로 호법신장의 가호도 받지 못하고 감응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성각에 귀의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귀의법’에서, ‘법_法’은 우주와 인생을 보는 관점과 견해가 사실 진상_{真相}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와 인생에 대한 정확한 사고와 정확한 견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에서 흔히 말하는 ‘바른 앎 바른 견해’ 혹은 ‘부처의 앎 부처의 견해’이고, 자성의 법보_{法寶}에서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견해를 돌이켜 자성의 바른 앎과 바른 견해에 의지하라 가르치심

니다. 이것을 ‘귀의법’ 이라 합니다. ‘법’ 은 자성의 앎과 견해여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배하는 부처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의 코를 잡아끌지 않고, 완전히 우리 스스로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선 독립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승^僧’ 이란 청정을 의미합니다. 즉 6근^根 청정을 뜻합니다. 6근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6근이 접촉하는 외부 환경인 6진^塵에는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이 있습니다. 범부의 6근이 6진과 접촉하게 되면 대체로 외부 환경에 의해 물들어 더럽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에 순응되는 외부 환경을 접촉하게 되면 탐심^{貪心}이 생기는데, 탐심이 곧 물들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환경과 접촉하게 되면 진심^{瞋心}이 일어나는데, 진심 또한 물들어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욕^欲과 7정^情은 모두 물들어 더럽혀진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자리의 더럽혀짐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라 더럽혀진 적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더럽혀진 모든 것을 돌이키어 자신의 청정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귀의승’ 이라 합니다.

3귀의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귀의불’ 은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고, ‘귀의법’ 은 바르기 때문에 샷되지 않는 것이며, ‘귀의승’ 은 청정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수지 수행의 3대 요강(세 개의 기준)이 바로 ‘각^覺·정^正·정^淨’ 인데, 이를 일컬어 자성삼보라 합니다. 각·정·정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어 자기의 자성삼보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시시각각 각·정·정을 생각해야 하고, 생각 생각마다 각·정·정을 떠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정·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견해 그리고 언행을 수정하는 것이 3귀의이고, 이러한 3귀의가 진정한 귀의입니다.

‘각·정·정’ , 이 3가지 원칙이 바로 3보^寶입니다. 3보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의 견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견해가 잘못되었다면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르게 알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견성성불_{見性成佛}하는 세 가지 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법당에 문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떤 문으로 들어온다 해도 법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문으로만 들어와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성취하면 나머지도 다 얻게 됩니다.

중국 대승불교 종파 가운데 선종은 ‘깨달음’ 즉 각_覺의 문을 선택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철대오_{大徹大悟}와 명심견성_{明心見性}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천태종·화엄종·삼론종·법상종과 같은 교종(선종 이외의 모든 종파를 교종이라 함)들은 먼저 ‘바름’ 즉 정_正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이런 교종들은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 견해와 사상 그리고 언행을 수정합니다. 염불하는 정토종과 밀종, 이 두 종파는 모두 ‘청정’ 즉 청정한 마음을 닦는 정_淨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많은 종파들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임의대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비록 선택은 다양하지만 공덕과 성과는 완

전히 같습니다. 물론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릅니다만(각·정·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에 들어서면 그 때부터는 완전히 같아집니다.

이 때야 비로소 법문은 참으로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 즉 각의 문은 반드시 상상^{上上}근기에 총명하고, 마음자리가 청정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재가 아니라면 이 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조단경을 보십시오! 육조가 상대한 대상은 모두 상상^{上上乘}의 근기를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만약 상상의 근기가 아니라면 이 깨달음의 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문에 의지해 뉘는 다 하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름’ 즉 정의 문은 일반 근기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며,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마치 학교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등 오랜 시간동안 수학을 해야 합니다.

‘청정’ 즉 정의 문은 정토종과 밀종 양 종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 문은 한마음으로 청정심을 닦습니다.

말법시대에서 이 양 종이 각광을 받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정문^{淨門}’은 상상의 근기도 필요치 않고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양종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을 염하는 정토종은 밀종보다 그 포섭이 광범

위하고 성취가 빨라서 청정심 얻기가 수월합니다.

진실로 귀의하기 위해서 우선 자성삼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어떤 법문을 선택하여 수행의 의지로 삼아 진정한 귀의처를 찾을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형식적인 3귀의를 전수 받았다 해도, 사실상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무엇에 의지할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자성삼보의 도리를 아마 대충은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귀의처를 찾지 못한다면 3귀의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의지처를 찾습니까? 이것이 바로 3귀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불교 내의 어떤 종파라도 의거하는 경전과 수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엄종이 소의_{所依}하는 3보, 즉 소의불_{所依佛}은 비로자나불이고, 소의하는 법_法은 《화엄경》이며, 소의하는 승_僧은 문수_{文殊}와 보현_{普賢}, 그리고 41분의 법신대사보살승_{法身大士菩薩僧} — 수행의 본보기가 되는 — 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같이 될 때 삼귀의는 실현됩니다.

법화종_{法華宗}은 본사이신 석가모니불이 주불이시고, 본사 석가모니불을 따라 수행하므로 불보는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리고 《묘법연화경》은 법보, 그리고 《법화경》에서 말

하는 보살은 승보가 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수행의 본보기입니다.

정토종에서 소의로 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진정한 우리의 귀의처입니다. 그리고 법보는 《무량수경》과 정토의 5경 1론이고, 승보는 관음觀音·대세지大勢至·문수·보현과 같은 대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대세지보살을 통해 전일專一을 배웁니다.

《능엄경》[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에 이르기를, “대세지와 그의 동학들은 처음 귀의부터 시작하여 성불에 이르기까지 닦은 것이 오직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호佛號는 그야말로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빌린다’ 함은 다른 법문의 도움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정업을 닦는 자들은 다른 법문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처음 발심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송해야 합니까? 그 비결은 바로 ‘6근을 거두어들이고, 청정한 생각을 계속 잇는다.’ 입니다.

‘청정한 생각’이란 염불시에 조금의 의혹이나 더럽혀짐이 없는 청정한 마음 상태를 일컫습니다. 염불할 때엔 반드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염해야 합니다. ‘계속 잇는다’ 함은 한 구절 이어 또 한 구절 끊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끊임이 없는 것’은 대세지보살이 우리에게 일러준 염불의 비결입니다. 만약 청정한 생각을 계속 잇고, 6근을 거두어들이면 염불은 결정코 성취할 것입니다.

하련거^{夏蓮居} 거사가 편찬한 《정수첩요^{淨修捷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토종의 초조^{初祖}는 대세지보살이다.” 내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한 뒤에는 그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였기에 몹시 찬탄하였고,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온 허공계와 온 법계에 제일 먼저 오로지 염불법문을 닦은 초조이며, 법계의 초조입니다.

여기서 다시 고개를 돌리어 사바세계를 봅시다!

사바세계의 석가모니께서 성불을 나타내 보이시고는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회상에서는 보현보살 십대원왕이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끄는데, 그렇다면 화엄경에 있어서 보현은 곧 초조가 됩니다.

《무량수경》이 중국으로 전해진 뒤, 동진^{東晉}의 혜원^{慧遠} 대사가 여산^{廬山}에 염불당을 세워 의기투합하는 백련회^{白蓮會} 법우 123인을 결집하여 《무량수경》에 의지하여 오직 염불법문을 닦았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정토종의 초조입니다.

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오늘날 정토 3조_祖라 하면 중국의 초조 혜원대사와 사바세계의 초조 보현보살과 법계의 초조 대세지보살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홍법차 갔을 때, 이병남_{李炳南} 선생님께서 정토종을 서방국가에 전도해주기를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자그마한 포교당을 하나 열었는데, 어르신께서 손수 ‘화엄연사_{華嚴蓮社}’라는 편액을 써 주셨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17년간 ‘화엄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도량도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지은 도량은 그 법당 높이가 21척이나 되는데, 중국대륙에서 모셔온 서방 극락정토의 세 분 성현의 높이는 겨우 4척 남짓 되어, 법당 안에 모셔두니 법당의 높이가 유난히 높고 불상이 유난히 작아 보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법당 벽에 큰 탕화가 한 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탕화의 불상을 미국인 얼굴과 닮게 그리어 불법이 서방세계로 전파됨을 상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탕화를 한 부 보내왔는데, 누가 보낸 것인지 누가 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금회_{基金會}의 간풍문_{簡豐文} 거사가 저 대신 받아 놓은 것입니다. 보내올 때, 달라스의 불당에 모셔다 공양해주기를 당부하더랍니다. 그 탕화를 펼쳐보니 유화로 그린 서방정토의 세 분 성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미타불은 인도 사람의 얼굴로, 관음보살은 중국 사람의 얼굴로, 대세지보살은 미국사람의 얼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감응이 교차됨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대세지보살은 정토종의 초조이십니다. 그러한 초조_{初祖}가 미국으로 건너가니 정토종이 진정으로 미국에 전파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정종학회_{淨宗學會}’가 미국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정종학회’는 하연거 노거사가 제창한 것으로 중국 대륙에서는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정종학회’는 미국 달라스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이 미국인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량없이 기쁩니다. 이는 정토종의 3보이고, 우리의 참된 귀의처입니다.

아미타불을 배우고, 《무량수경》을 배우며,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수행의 모범이고, 수행의 기준이며, 바로 참된 귀의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지삼보_{住持三寶}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지삼보’란 불상·경서·출가자를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귀의처는 아니지만, 그의 작용은 삼

보의 주세_{住世}를 상징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성삼보로 회귀하여 의지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집에 불상을 모시고, 불상을 볼 때마다 자성불에 귀의해야 함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할 때 반드시 깨달아서 미혹됨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일깨워 주는 이가 없다면 쉽게 잊어버려 다시금 미혹하고 전도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귀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불상의 작용이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공양하는 공덕, 그 이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서는 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는 불·보살께 들려주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무량수경》을 읽는다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들려주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읽는 것입니다.

그는 경서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며, 어떻게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리하여 《무량수경》이 우리의 생각·견해·언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무량수경》이고, 《무량수경》은 바로 우리의 실제 생활 그 자체이므로 이처럼 법에 귀의해야 비로소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보’입니다.

‘승보’란 출가인을 말합니다.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계를 범하든, 일단 출가인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자신의 6근을 깨끗케 하여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각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인의 공덕입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주지삼보가 우리에게 베푸는 공덕이요, 이익입니다. 귀의란 특정적인 어떤 법사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사는 단지 승단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3귀의의 의미와 수행의 요지 등을 전수해주어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각覺·정正·정淨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불법이 희구하는 것은 지혜, 더구나 대원만의 지혜, 원만한 자성입니다. 불법의 수행은 각·정·정을 닦는 것입니다. 즉 깨달아서 미혹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되지 않으며, 청정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각·정·정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이른바 8만 4천 법문, 한량없고 끝이 없는 법문이 그것입니다. 법은 방법이고, 문은 통로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모두 각·정·정을 닦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각·정·정을 닦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방법이 많아도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은 다르지만 이르는 곳이 같음이고, 모든 법문이 평등함이요, 높고 낮음이 없음입니다. 정토를 배우는 이들은 절대 선종이나 밀종과 같은 타 종파를 비방해서 는 안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이 걷는 길이 비록 우리와 다르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차를 타고 이곳에 오고, 그들은 걸어서 이곳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오는 방법을 택했다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다 이곳으로 통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트빌에 있을 때, 어떤 법우가 물었습니다.

“불법에 이렇게 많은 법문이 있다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문을 닦아야 좋습니까?”

그 때 마침 땅 위에 작은 공이 하나 있기에 제가 그 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법은 이 공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공의 표면에 있는 무수한 점들은 무수히 많은 법문과 같습니다. 불법은 당신으로 하여금 원의 구심점(球心點)을 구하라 가르칩니다. 어떠한 점이라도 곧장 닦아나가면 모두 구심에 이를 수 있으니, 제2, 제3의 다른 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곧장 집으로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빙빙 돌아가는가.’ 했습니다.”

그는 이내 불법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성품을 밝히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문이든 핵심은 ‘전일^{專一}’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법문이든 전일하게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바뀌 말해 선정을 얻고, 지혜가 열리며, 대원만의 자성을 증득하기 때문에 자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지삼보는 우리에게 큰 공덕이 되고, 큰 공헌을 합니다.

출가인은 승보입니다. 출가인이면 누구라도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훌륭한 출가인은 가까이 하고, 여법하지 못한 출가인은 공경하되 멀리하십시오. ‘멀리한다’는 말은 그를 따라 배우지 말라는 뜻이지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를 보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암시하고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귀의삼보입니다.

그래서 ‘귀의삼보’는 절대 어떤 특정 인물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특정적인 어떤 한 사람에게 귀의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승단은 화합된 하나의 승단이기 때문입니다. 온 허공계가 다하고 법계가 다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의 승단이고, 비록 법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해도 총체적 승단입니다.

이 세간에 있는 승단은 지부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법사만을 인정하고 그에게 귀의하여서, 오직 이 법사만이 우리의 스승이고 저 법사는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한다면, 당파를 조장하고 단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되어 ‘파화합승(破和合僧)’이란 죄과를 범하게 됩니다.

파화합승한 죄는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지는 5역중죄(逆重罪)라고 계경에서 말합니다. 5역중죄란 살부(殺父: 아버지를 죽인 죄) · 살모(殺母: 어미를 죽인 죄) · 출불신혈(出佛身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 살보살아라한(殺菩薩阿羅漢: 보살과 아라한을 죽인 죄) · 파화합승(破和合僧: 화합된 승단을 파괴시킨 죄)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차라리 귀의하지 않는 편이 좋을 뻔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요. 잘못 귀의하여 화합된 승단을 깨트린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3귀의는 반드시 한번으로 족해야 합니다.

어떤 법사를 만나면 어떤 법사에게 3귀의를 전수 받고, 또 다른 법사를 만나면 다른 법사에게 3귀의를 받는 등, 많은 법사에게 3귀의를 했으니 이들이 모두 나를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진흙보살이 강을 건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자성삼보에 귀의할 때 비로소 제불보살의

진정한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선신^{善神}의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3귀의를 전수한다 했을 때, 만약 그대가 예전에 이미 귀의한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서부터 회심하여 자성각^{自性覺}·자성정^{自性正}·자성정^{自性淨}에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참 귀의가 됩니다.

의식에 관해서는 따로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명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만 한 생각 돌리고 참 마음으로 수지^{受持}한다면, 진실로 그대에게 삼귀의를 전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지삼귀의^{受持三歸依}’는 불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매우 성대하며 엄숙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받들어 봉행^{奉行}한다면 불법의 수행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3귀의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것을 보임하되 절대 각^覺·정^正·정^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정·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수정^{修正}행위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수행방법이 제 아무리 많아도 모두 각·정·정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覺·정^正·정^淨 3문^門이 바로

명심견성^{明心見性} 3문이므로 그 중 어떤 하나라도 닦아 이루면 3문을 모두 얻게 됩니다.

중국에 현존하는 불교 종파는 모두 열댓 개입니다. 각 종파가 편중하는 수행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염불법문을 배우고자 발원한 이라면, 염불은 곧 정문^{淨門}이므로 정문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바뀌 말해 염불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고,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청정심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지고, 청정한 국토인 정토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친견하므로 말미암아 원만히 불과를 이루게 됩니다.

‘구족중계^{具足衆戒}’의 ‘중^衆’은 많음을 뜻합니다. 많은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5계입니다. 불문에서 근본이 되는 계율이 바로 이 5계입니다.

출가한 비구는 250개 조항의 계를 받는데, 사실상 진정한 계율의 조항은 앞의 17개뿐입니다. 즉 4중13승잔^{四重十三僧殘}은 계율에 속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위의^{威儀}에 속합니다. 위의란 무엇입니까? 위는 예의범절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같은 것입니다.

전에 장가^{章嘉} 대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3귀계, 즉 3귀의와 5계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한 순간이라도 여의어서는 안 된다.” 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대북^{台北}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북에서 기차를 타고 고웅^{高雄}으로 간다고 합시다. 당신은 차표를 사 기차에 오를 때도 이 표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하겠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이 표를 개찰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내내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기차를 타는 그 순간부터 내린 후까지 한 순간도 이 표와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3귀의와 5계는 이 표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대사의 말은 귀의와 계율을 여의면 불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불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계의 제1조는 불살생^{不殺生}이고, 제2조는 불투도^{不偷盜}이며, 제3조는 불사음^{不邪淫}이고, 제4조는 불망어^{不妄語}이며, 제5조는 불음주^{不飲酒}입니다.

앞의 네 개 조항은 ‘성품의 죄’ 이므로 계를 받든 받지 않던 범하면 모두 죄가 됩니다.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합니다. 다만 계를 받은 사람이 범하면 ‘파계^{破戒}’ 라는 죄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마지막 불음주는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가 되지 않지만, 계를 받은 사람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차계^{遮戒}’ 라 합니다. 불음주는 만취 후에 성품이 어지러워져

앞의 네 가지 계율을 범하게 될 것을 방지하는 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방하는 차원이지만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심하여 계를 수지한 사람은 반드시 계사戒師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어떻게 수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율의 조문만 본다고 해서 계를 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를 잘 지키고자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계율의 제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왜 이 조항을 제정하였는지, 이 계율이 우리의 수행에 무슨 공덕과 이익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수지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계율마다 ‘개開·차遮·지持·범犯’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과계’가 아닌 ‘개계開戒’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지계持戒를 하되 개계할 수 없는지, 무엇을 지持라 하는지, 무엇을 범犯이라 하는지 모두 명명백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지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뜻대로 응용되어 자유롭고 편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율이 너무 많아 툭하면 계를 범하게 되니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경전을 배우고 경론을 읽으며, 이치를 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배우기 쉽지만 계율은 너무 엄격하므로 배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율은 부처님의 행지_{行持}입니다. 행지가 없다면 불법도 없습니다. 유학_{儒學}에 예가 없다면 유학이 멀하듯이, 불법에 계율이 없다면 불법은 단멸되고 맙니다.

단순히 경전만 독송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참된 이익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학문은 실행에 있고, 불법의 실행은 곧 계율의 수지입니다.

계율은 정각_{正覺}의 생활규범입니다. 부처님 재세 당시 생활이든 설법이든 어느 것 하나 활발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모든 대중이 기꺼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절대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계율의 제정은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규범 같은 것입니다. 이 대목을 분명히 알아야 즐거이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지닐 수 있습니다.

지금 경을 강하는 법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강하는 율사는 너무 적어 거의 찾아보기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경전 강연을 듣는 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 강연을 듣는 이는 적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조항을 범하면 죄가 되고 저 조항을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번이지 두 번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흘이 지나면 청중이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 계율의 원만함은 개·차·지·범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있고, 그래서 결코 딱딱하거나 고지식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대중_{臺中} 이병남 거사의 생활은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즉 해가 있을 때 한 끼 먹는 일중일식_{日中一食}을 하는데, 제가 대중에 있을 때 이미 몇 십 년 동안 그리 해온 터였습니다. 그의 일중일식은 일반 오후불식_{午後不食}보다 엄격했습니다.

만약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는 초대에 응해주었는데, 응해 줄 뿐만 아니라 갈 때 종종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오후 불식하므로 저녁은 먹지 않고 아침과 점심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내가 오후 불식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왜 항상 날 끌고 갈까? 그러나 그는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하고는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모양새와 태도는 소승인의 것이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합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중생을 제도하려면 모든 중생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계_{破戒}라 하지 않고 개계_{開戒}라 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계齋戒에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남이 좋은 마음으로 초청하였는데 가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인정과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그는 불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법을 배우는 자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품만 잡으니 불법을 배우는 이와는 왕래하지 말라.’ 고 떠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업을 짓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이것을 파계가 아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여 인연에 따라 제도하는 개제라 한 것입니다.

초대석상에 이르자 주인은 오후 불식계를 수지受持하는지 모르고 초대하였다며 몹시 미안해하였습니다. 오후불식하면서도 초대에 응하니 주인이 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만약 저녁에 무언가 먹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저녁 초대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파계입니다. 남이 오후 불식하는지 모르고 공경히 예를 다해 청한다면 가야 합니다.

이처럼 불문의 계율은 참으로 활발하고 자재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제가 대중에서 이병남 선생님께 배운 것입니다. 전에 제가 참운懺云 법사에게 배울 때는 오후불식의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참운 법사를 떠나 대중에 와서 이병남 선생님께 배우면서 여러 차례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이선생님처럼 활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항전^{抗戰} 당시 남경에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일본인에게 쫓겨 중화문^{中華門} 밖의 한 절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절의 노화상이 이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인에게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전 승리 이후 이들은 남경으로 돌아와 당시 노화상이 그들의 목숨을 구해 준 사실을 기억하고(사실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경의 한 술집에서 매우 성대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노화상을 청했습니다.

노화상이 와서 보니 술이며 오리와 닭이며 생선이며, 과연 성대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출가인들은 소식^{素食}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노화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자리를 어째서 소식으로 차리지 못하였는지 내심 후회하면서 난감해 하던 차에 자비로운 노인장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덥시다!”

그렇게 술자리는 시작되고 노화상은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감동 받았습니다.

이 노화상이 참으로 파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자비를 근본으로 하고, 방편은 수단으로 한다.” 이고, 바로 4섭법攝法 가운데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노인장을 농락하기 위해 그리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심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화상 또한 그들에게 매우 고맙게 여기고 조금도 탓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이 모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보살이 중생을 제접하는 한 방편입니다.

만약 그 때 노화상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었다면 대중의 불법佛法 기연機緣을 모두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상에게 큰 지혜가 있어 마침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생을 불법으로 이끈 것입니다. 불법은 이처럼 편리하고 이처럼 원융합니다. 이것이 대승불법의 뛰어난 것입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킨다.’ 는 것은 계율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단순히 석가모니불이 제정한 계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사회에는 도덕이 있으며, 지방마다 풍습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른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세속을 준수하고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률과 도덕관념, 그리고 풍습 습관을 따르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미국인의 도덕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율의 범위에 속합니다.

바뀌 말해 계율이란 우리 일상생활의 규범을 말합니다. 요즘 교통수단이 원활해지고, 통신이 발달되어 세계 각국 각지로 여행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단 자국의 법률과 풍습·인정뿐 아니라 우리가 여행하는 나라의 법률과 풍속·습관도 알아야 이른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엄지계율嚴持戒律’이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2,500년 전 고대 인도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정한 계율 대부분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생활방식이 다르고 복식服飾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한 250개의 계율 가운데 열 몇 개 조항은 의복에 관한 규칙입니다. 우리의 복식은 인도의 것과 달라서 그 규칙은 우리에게서 무용지물입니다. 요즘 사람의 식생활도 옛 사람과 다릅니다.

종합하여 말하면 요즘 사람은 옛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계를 염송하는 것은 계율의 정신과 이념, 그리고 앞선 성현의 모범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율을 수

지한다는 것은 계율의 정신과 원리 —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실행하라 — 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라’ 는 것은 소승의 계율이고 자율적인 것이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 말하는 독선기신(獨善其身: 스스로 그 자신을 선하게 하다)입니다. 계를 수지한 이는 비록 보는 사람 없이 홀로 있을 때라도 계율을 범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보살계는 대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대할 때,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하며,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대할 때는 ‘모든 선을 받들어 실행하라’ , 스스로에게는 ‘모든 악을 짓지 말라’ 고 가르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계율입니다. 계율에 준거하여 행동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가 마땅히 인지해야 할 계율의 정신입니다.

불법이 중국에 전해진 뒤로 중국의 국정과 문화배경이 인도와 다르고, 심지어 중국인의 의식형태와 생활방식도 인도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계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백장_{百丈} 선사가 제정한 청규_{淸規}가 바로 계율의 본토화요 현대화인 것입니다. 계율의 수정이란 계율의 정신은 바꾸지 않고 단지 그 조문_{條文}만 새로이 수정하는 것입

니다. 마치 국법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원칙과 원리는 그냥 두고) 조문을 수정해야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은 지역마다, 성_省마다, 현_縣마다, 사찰마다 청규가 있습니다. 청규란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중의 수행조건에 맞아야 하고, 대중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계율의 현대화요 지역화입니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은 통하지 않게 되어 죽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현대화와 지역화가 활성화되어야 불법이 비로소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불법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고,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즐거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름지기 계율과 법규를 지킬 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걱정과 고민이 없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뒤에야 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계율을 매우 중시합니다. 만약 간악한 짓거리를 일삼고 죄를 범한다면, 설사 정부가 제재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몸과 마음이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선정은 닦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정을 닦고자 하면 우선 먼저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은 선정을 닦는 기초입니다. 그런 까닭에, “계로 인하여 정을 얻고, 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열린다.” 고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조, ‘엄지계율_{嚴持戒律}’은 2승_乘의 복보이고, 2승인의 수행 기초입니다.

(3) 대승복_{大乘福}

소승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대승입니다. 대승은 소승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승복에는 4구가 있는데, 첫째는 ‘발보리심_{發菩提心}’입니다.

중국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종 입에 보리심을 발한다는 말을 담습니다. 이는 중생들에게 마음을 일으키라고 권고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리심이라 할까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3귀의 · 지계 · 보리심’은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만약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불법은 엉터리 불법이고, 미혹되고 전도된 불법입니다. ‘보리_{菩提}’는 범어로서 번역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보리심이란 진실로 깨달은 마음을 뜻하고, 진실로 미혹

되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고통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3계界의 고통에 대해 말해 주셨습니다. 그는 인간계도 고통이지만 천상계도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3고苦와 8고苦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두 시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색계천에 난다 함은 이미 선정을 닦았고, 또한 재財·색色·명名·식食·수睡 등의 5욕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색계천엔 고고苦苦는 없지만, 괴고壞苦와 행고行苦는 있습니다. 만약 선정의 공력이 이보다 더 깊다면 무색계천無色界天에 태어나 육신을 버리게 됩니다.

이곳은 3계 중에서 가장 높은 범부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몸이 고통의 근원이고, 물질이 병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물질로 된 색신이 없다면 얼마나 자재한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색신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靈界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중생에선 오직 신식神識만 있기 때문에 고고와 괴고가 없습니다. 색신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이고, 물질이 있다면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색계天에 비록 위의 두 고苦는 없으나 행고行苦는 있습니다.

무엇을 행고라 합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것,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춘은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

행고입니다.

한해 한해씩 노쇠해지는 것과 한 경지에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행고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이 3계에 다 있으니 어디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만약 진실로 3계의 참 모습을 알았다면 당신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는 당연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을 여웁니까? 반드시 3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3계에서 벗어나니까?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발보리심’이라 하고, 진정한 깨달음이라 합니다.

이외에 부처님께서 ‘사홍서원^{四弘誓願}’을 말씀하셨는데, 사홍서원은 보리심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종종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승인과 아라한 그리고 벽지불은 보리심이 없다. 오직 대승의 보살만이 보리심을 일으킨다.” 만약 사홍서원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데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서 자신도 제도해야 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도 제도해야 하며, 나아가 한량없고 다함없는 모든 중생도 제도해야 합니다. 평등하게 두루 제도하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소승인에게는 여전히分別심과 집착이 남아 있어 제도하기를 좋은 사람만을 제도하고, 제도하기 싫은 사람은 제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승인은 중생이 그에게 배움을 구하면 기꺼이 가르치지만, 중생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승의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중생을 위해 불청객이 된다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찾지 않아도 그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불법을 자발적으로 중생에게 소개하고 중생에게 추천하는데, 이것이 보살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 2승인의 마음과 다릅니다. 이것이 사홍서원 가운데 첫 번째 원인 ‘한량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입니다.

사실상 4가지 대원은 바로 이 한 원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뒤의 3가지는 이 원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이 제도되지 않고는 어렵도 없는 일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법을 닦아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순서이고, 제1차제次第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순서를 모르고 차제를 마구 뒤섞는다면 수행은 결정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번뇌를 끊고, 그런 연후에 법문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울 때 번뇌를 끊지 않고 처음부터 이 불법 저 불법을 섭렵하고 다닙니다. 그는 사홍서원의 뒤의 2가지만 원할 뿐 중생제도와 번뇌의 끊음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리라, 위없는 불도를 다 이루리라’ 에서 착수하는데, 이는 마치 4층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아래 두 층은 짓지 않고 위의 두 층부터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해서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취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근본부터 닦아야 함을 알지 못하는 데 있고,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흥원을 세우지 않음에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자비심(大慈悲心)입니다. 이 마음의 한량없는 힘이 정진에 불을 붙여 열심히 수행에 노력하게 합니다.

번뇌는 왜 끊어야 할까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중생이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만약 덕행이 없고, 학문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모든 번뇌가 끊어지기를, 모든 덕행이 성취되기를, 모든 법문을

다 배우기를, 모든 학문을 다 성취하기를, 모든 불도를 다
원만히 이루기를 발원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의 힘이며,
《지장경》에서 대원만을 설한 뒤 이어 대자비를 설한 까
닭입니다.

만약 당신의 스승이 당신에게 먼저 법문을 배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당시 제가 이병남 선생님 가까이 있을 때, 저는
정식으로 그를 스승으로 모시어 불법을 배우고자 하였습니
다. 그러자 그는 제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첫째, 오늘부터 나 한 사람 외에 그 어떤 법사나
거사 또는 대덕이 강설하는 경론과 법문을 들어선 안 된
다. 둘째, 오늘부터 불경을 보거나 그 밖의 다른 서적들을
보려면 내 동의 없이 그 어떤 책도 함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첫째 조건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를 가리는 것이
고, 둘째 조건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눈을 가리는 것입
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셋째 조건은 즉, “이전에 배운
것은 내가 전부 인정치 않으니 모두 버리고 오늘부터 나를
따라 다시 배운다.”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3가지 조건은 매우 각박한 것이었습니
다. 듣기만 해도 이 선생님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막무가넌

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만我慢을 치켜세우고 남을 대단히 업신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그래도 그 조건을 수락하고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저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는 계율이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면 번뇌도 많아지고, 적게 듣고 적게 보고 심지어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번뇌도 없어집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다함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겠습니다.’ 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그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반년 뒤엔 과연 망념妄念이 적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졌으며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참으로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가르침을 5년간 지키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로 인해 진실한 수용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감격하여 스스로 5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저는 그가 정한 3가지 계를 10년간 지키어 불법 수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함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겠습니다.’ 입니다.

마음자리가 청정해지자 그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참학參學하기를 권장하는 등 가르침의 폭을 넓혔습니다. 참학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강연하더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참학입니다. 설사 마구니와 귀신이 강연한다 해도 다

들을 수 있고, 어떤 책이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면 모든 건문은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샅됨과 바름, 옳음과 그름을 변별할 능력이 있어 남에게 코를 잡혀 끌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능력이 생기면 스승은 제자에게 나가서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본디 초학자들은 이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다고 여기어 따라가고, 저 말을 들으면 다시 저 말이 옳다고 여기어 방향을 돌립니다. 초학의 제자를 스승이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는 부모가 잘 돌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샅됨과 바름,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득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참으로 대자대비 합니다!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이끍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이는 스승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스승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자상승師資相承’입니다. 덕의 성취는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참 스승을 만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점생의 선근善根과 복덕과 인연이 성숙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생동안 만나

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법사님!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당신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했습니다. 정말이지 상승^{相承}의 이치는 인연에 의한 만남이지 갈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기연이라 정말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근^{善根}도 심고, 선연^{善緣}도 키워야 합니다.

만약 정말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선근과 선연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배우십시오. 옛날 이 병남 선생님이 저를 가르칠 때, 매우 겸허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으로는 너를 5년밖에 가르치지 못한다.” 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인광 법사^{仁光法師}를 배우라 하였습니다. 인광 법사는 그의 스승입니다. 그는 제게 인광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초학이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 가운데서는 소동파를 배우지 말고, 요즘 사람 가운데서는 양계초를 배우지 마라. 이 둘 모두 대단한 불교학자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불교학에 있어서는 대가일지 모르지만 불법을 배움에 있어서는 성취를 이루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에게 불법을 배워서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그

리고는 저에게 인광 법사를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가장 좋은 본보기이고 모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선지식을 찾지 못했을 때, 옛사람을 찾아 그의 사숙제자私淑弟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옛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수학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를 배웠는데, 그 당시 공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이 세간에 유통되었으므로 맹자는 오로지 공자의 서책을 한 마음으로 읽어 그 책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온 마음으로 공자를 배웠습니다.

그는 결정코 이 스승만을 쫓아 오로지 그 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의 배움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공자는 대성大聖 또는 지성至聖이라 부르고, 맹자를 아성亞聖이라 부릅니다.

그 뒤로 중국 역사상 이 방법을 선택해 성취를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의 사마천입니다. 그는 중국 첫 번째 역사서인 《사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좌구명左丘明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 가풍만을 배워 오로지 《좌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좌전》의 문장을 배웠고 《좌전》의 교양을 배웠는데, 그의 배움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일대의 문

장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당나라 한유^{韓愈}는 당송8대 문학가 중 한 사람으로 바로 ‘팔대지쇠^{八代之衰}’라는 문필 혁신을 일으킨 한창여^{韓昌黎}입니다. 그의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사기입니다. 그는 사마천을 배우고자 전일하게 사기를 공부하여 그 문장과 가르침을 따르고 익히어 훗날 당송8대 문학가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불가^{佛家}의 예를 보면 명나라 우익^{藕益} 대사는 정토종의 조사입니다. 그의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연지^{蓮池} 대사입니다. 당시 연지 대사께서 이미 열반하시어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의 저서가 유통하였으므로 우익 대사는 연지 대사의 저술에 의지하여 배웠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이병남 선생이 저를 가르친 것처럼 그는 마치 한 사람의 스승에게 배우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대덕을 스승 삼아 공부에 정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직접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나, 옛 사람의 언설을 서적을 통해 배우는 것이나 그 배움이 성취된다면, 모두 ‘사제간의 전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은 절대 저를 따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 될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병남 선생님이 저에게 인광 법사를

본받으라 하셨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상의 스승을 한 분 소개하러 합니다.

바로 ‘아미타불 · 《무량수경》’ 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무량수경》에 의지하여 수행합시다. 이 수행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성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법문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훤히 깨친다면, 선정을 얻게 되고 지혜가 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이 5년 동안에는 오직 하나의 법문에만 매진하고, 5년이 지난 뒤로부터 널리 경론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 때가 되면 안광에 빛이 나고, 경의 이치를 절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혜가 열리지 않은 채 여전히 의식으로 망령되게 분별한다면, 이렇게 배우는 불법은 설사 3백 년이 지난다 해도 경문의 이해는 고사하고 옛 사람의 주해_{註解}조차 그 뜻을 잘못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참된 견처_{見處}가 있는 연후에 옛 사람의 주해를 봐야 그의 경지를 알 수 있고, 또 경에 대한 그의 이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병남 선생님이 왕년에 저에게 가르친 3가지 계율은 그의 독창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작년(1989)에 제가

싱가폴에서 홍법할 때, 연배 법사演培法師가 나에게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그 강연에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참석하였기에 저의 과거 수행할 적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 연배 법사를 따라 배우고 그를 통해 일가一家의 언설을 익힌다면, 수행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연배 법사는 차를 마시자며 제 손을 끌고 접견실로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가 제게 말하기를 관종사觀宗寺에서 사미로 있을 때 제한 법사諦閑法師도 그에게 3가지 계율을 내려 주었다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3가지 계율이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중국 조사들이 대대로 제자에게 전승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때 비로소 ‘스승의 전승〔師承〕’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 3가지 조건을 지키게 하여 먼저 제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즉 ‘다함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기를 서원합니다.’를 성취케 합니다.

참으로 번뇌가 다 끊어지면 번뇌가 열어지고 지혜가 자라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제자로 하여금 두루 여러 곳을 다니며 배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기를 서

원합니다.’를 성취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까닭에 두루 배우는 것과 널리 듣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 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기를 서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되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므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아래 비유가 어찌면 여러분의 의심을 없애고 무언가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어떤 한 법사의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 법문을 닦는다 합시다. 만약 두 사람의 법사라면 필시 두 가지 법문으로 그대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이면 마치 몸이 삼거리에 놓여 있는듯 할 것이고, 네 사람이면 마치 사거리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난감해질 것입니다. 그리되면 의심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따라 배우는 것이 이치에 맞고 옳은 것입니다.

《고승전^{高僧傳}》이나 《거사전^{居士傳}》에서 우리는 종종 옛 대덕들이 오로지 한 스승을 쫓아 10년이고 20년이고 공부하다가 깨달은 연후에 나가서 참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는 방법입니다.

불법을 배우는데 있어 성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만약 이 비결도 모르고, 이 이치도 따르지 않으면서 불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

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승을 찾지 못했다면 내 이제 그대들의 스승으로 ‘아미타불’ 을 소개합니다. ‘아미타불’ 을 스승으로, 《무량수경》을 교과서로 하여 한결같이 이 경을 읽되 5년간 온 마음을 다해 읽은 연후에 다른 경을 보십시오. 여기에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 라 합니다.

이 경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경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뒤에 다른 경을 보게 되면 체득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정혜의 수양을 갖추게 되므로 어떤 것이라도 다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가르침과 세간의 가르침은 개념과 방법에 있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간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그 앞서 먼저 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를 선택할 때엔 신중해야 하므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고려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그대들의 원만한 지체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장래에 불교라는 대학에서 개설되는 모든 강좌를 다 깨우치기를 희망합니다. 불법은 이처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배워야 합니까?

한 법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른바

‘한 가지 경에 통달하면 모든 경에 다 통달한다.’가 그것입니다. 어떤 경전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법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한 경전을 통달하지 못했다면 절대 다음 경전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통달이라 합니까? 깨달음을 통달이라 합니다. 즉 하나의 경전을 통해 선정을 얻고 지혜가 열리는 것을 통달이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다른 경전을 본다면, 한 번 보면 바로 통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학문을 할 때 종종 학문은 금자탑처럼 먼저 넓은 후에 세밀하고, 그런 뒤에 다시 정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금자탑이 아무리 넓고 높다 해도 끝이 있어 정점에 이르면 멈추게 됩니다.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나무 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뿌리가 있고 등지가 있는 연후에 천천히 잎과 꽃과 열매가 있으니, 한량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불법은 이러한 점에서 시작하여 생기^{生起}되고 퍼져 나가므로 끝에 이르러서는 대원만입니다. 그 결과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은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세간의 학문은 통상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면 뚫고 나갈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위로 끌어올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불법의 교학 방편과 교수법의 훌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얇은 식견의 평범한 세간 인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의 성취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처음에는 세간 학문이 광대하여 마치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종종 접하는 것마다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세간 학문과 불법이 채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그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홍서원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수행의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따라 수행한다면 구경원만究竟圓滿에 이르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는 곧 번뇌의 끊어 없앰과 법문의 원만을 의미합니다. 즉 한량없고 다함없는 법문을 통달하지 못함이 없고, 원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일컬어 ‘성불도’ 라 합니다.

《화엄경》에서, 특히 우리가 40화엄경이라 부르는 화엄의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행원품〉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선재동자를 불법수행의 귀감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재동자는 이론과 방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

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재동자가 맨 처음 친견한 스승은 문수사리보살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지키게 하여 번뇌를 끊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계·정·혜 삼학의 기초를 완성케 하여 문수보살의 회상에서 지계·선정·지혜를 이루게 했습니다. 지혜를 이룬 뒤에 문수보살은 그로 하여금 여기 저기 두루 다니며 참학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3참(五十三參: 53선지식을 두루 친견하면서 그들에게 참문함)입니다.

53참은 사회의 갖가지 다른 행업과 각기 다른 학술과 각기 다른 인물을 의미합니다.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법을 배우는 이든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形形色색의 다른 인물을 가리지 않고 접촉하여 그들에게 묻고 배워서 구경원만한 지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특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현보살을 만나는 대목인데, 보현보살은 10대원으로써 그의 수행을 이 끌고, 서방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불을 친견하라 권합니다. 그리하여 선재동자가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그 자리에서 위없는 불도를 원만히 성취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

불을 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미타불을 친견하지 못했다면, 그저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도 위없는 불도를 성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화엄경》에서 보았듯이 화엄회상은 위대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법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법계眞法界이지 10법계法界가 아닙니다.

하나의 진법계 속에서 문수와 보현은 모두 원교(圓敎: 화엄교판에서 화엄과 법화를 일승 원교로 분류하였음)의 등각보살等覺菩薩입니다. 문수와 보현은 화엄회상에서 등각보살임에도 불구하고 정토에 나기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엄경》을 강설하면서 이 대목을 보고 무척 기뻐으나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화엄세계의 등각보살이 무엇을 하러 서방 극락세계에 가려는 것일까?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 보니 결국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곳에 가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증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 그들은 사실상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후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과연 이것 때문이었고, 선재동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야 문득 위없는 보리(원교의 불과)를 진정으로 원만하게 깨닫고자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사홍서원 4구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40화엄경》을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대승이란 길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알고 진실로 깨달으며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야 깨친 마음이 일어나서 더는 미혹하지 않고 더는 전도되지 않으므로 보리로 나아가는 길이 자연히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2구는 ‘심신인과深信因果’입니다. 예전에 제가 《관무량수경》을 읽을 때, 문득 이 구절에서 의혹이 일어나더니 줄곧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의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구절이 맨 처음에 나왔다면 말이 되므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복福 가운데 제3복인 대승복大乘福은 보살이 닦는 것인데, 대보살이 인과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선한 인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한 인에는 악한 과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보살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보살들에게 깊이 인과를 믿어야 한다고 권유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화엄경》 〈십지품十地品〉을 읽고서야 확연히 깨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십지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지의 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염불을 떠나지 않는다.”

알고 보니 화엄회상의 초지보살에서 10지, 나아가 등각에 이르기까지 이 열한 계위(최고의 법신대사)의 모든 보살이 닦는 것은 다름 아닌 염불법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과’란 ‘염불’과 ‘성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염불이 인이 되어 성불이라는 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보살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설사 부처님께 들었다 하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인과 — 염불이 인이 되고, 성불이 과가 되는 — 를 깊이 믿으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문수·보현·선재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서원하는 것도 바로 이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엄경》을 읽고 《화엄경》을 강연한 덕분에 이 구절을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쉽게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3구 ‘독송대승_{讀誦大乘}’은 보살선_{菩薩善}입니다. 보살은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하루도 부처님을 뵈지 않으면 안 되고, 하루도 경문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을 독송한다 함은 부처님께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

야 합니다. 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데,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경을 읽어 달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을 읽는 것은 불·보살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무량수경》을 읽으면 아미타불의 면전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설하신 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의 가르침은 이 세간에서 또는 보살도를 행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바뀔 말해 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확실히 실천할 때 비로소 경을 읽는 참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불제자라면 최소한 하루에 아침저녁 한 차례씩 예불 독경을 해야 합니다. 아침저녁 예불을 어떻게 해야 여법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침예불은 부처님의 교훈을 듣고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상의 모든 행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환기시키는 것이 아침예불입니다.

반면에 저녁예불은 반성이고 점검입니다. 경전을 펼쳐 놓고 진지하게 한 차례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겼는가?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

였는가? 만약 실천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참회하고 개과 천선하여 내일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침저녁 예불의 공덕과 이익입니다.

고작 아침에 한 차례 경을 읽어 불·보살에게 들려주고, 저녁에 다시 한 차례 읽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경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 씀이 그 경문과 무관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흠으로 빗고 나무로 조각한 불상은 아무런 지각이 없습니다. 그런 불상 앞에 앉아 아침에 한 차례 숙이고, 저녁에 다시 한 차례 숙인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살아 있는 사람을 속인다면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흠으로 빗고 나무로 조각한 불상조차 그것도 하루에 두 차례씩이나 잔인하게 속여먹는다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휴! 그 죄가 얼마나 지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절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침저녁 예불은 형식에 치우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덕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정토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아미타경》 한 권과 왕생주_{往生呪} 세 번을 읽었고, 부처님 명호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저녁 예불이 다 똑같은데, 이것을 일컬어 ‘몰두한

다’ 라 합니다. 경론을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더러워지기 쉽고 엉터리 수행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미타경》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합니다. 이 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한 신심인데, 신심이 청정하면 경을 읽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미타경소초》를 강연한 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녹음을 못했지만 두 번째 강연에서는 녹음을 하였는데, 90분짜리 녹음 테이프가 자그마치 335개나 됩니다.

다시 말해 335일 만에 겨우 대원만까지 강의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경》이 어렵고 심오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량수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무량수경》이 《아미타경》보다 이해하기 쉽고 덜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의 문장이 쉽다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한량없이 깊고 광대합니다. 반면에 《무량수경》은 문장도 어렵지 않거니와 의미도 여러분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교훈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배워두면 소용될 곳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일이 바빠 매일 경을 한 부씩 읽을 수 없다면, 우리 대만에 있는 도량이나 미국에 있는 도량의 경우 아침예불마다 《무량수경》 제6품, 즉 48대원이 설해진 부분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은 정토종의 핵심이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아미타불과 같은 서원을 세워야 가능합니다. 아미타불이 이런 대원을 세우면 우리도 이런 대원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아미타불과 같기를 희망하고, 우리의 서원이 아미타불의 서원과 같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아미타불과 서원이 같고 마음이 같다면 그와 우리는 동지(뜻이 같고 의기투합하는)가 되므로 장래에 같이 있게 됩니다.

저녁예불 때는 32품에서 37품까지 읽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악을 끊고 어떻게 선을 닦으며, 어떻게 삶을 보존해야 하는지 깨우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해지는 가르침은 모두 대인(對人)·대사(對事)·대물(對物)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은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두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6품의 경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지하는 것이 곧 지계이고, 지계 염불은 아미타불의 해행(解行)과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같고, 서원이 같고, 앎이 같고, 실천행이 같다면, 여러분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이처럼 정토수행

을 닦는다면 성취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매일 아미타불을 염하고 매일 아미타경을 읽으면
서 신_信·원_願·해_解·행_行이 아미타불과 어긋나고 다르다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상응하지 못합니다.

옛 사람이 말하는 이른바 ‘매일 목청이 터져라 십만 번
씩 불명호_{佛名號}를 외워도 허사로다.’ 한 것은 무엇 때문이
겠습니까? 마음 없이 입으로만 외우고, 서원이 아미타불
과 전혀 상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저녁 예불 독송은 본래 옛 사람이 정해 놓은 것입
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었지만, 요즘
은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경문과 의례는 이미 쓸모
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과거 사람들이 예불문을 독송할 땐, 그 내용을 모
두 이해하기 때문에 독송이 참으로 그를 일깨워 주고 참으
로 그의 반성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읽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반성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만 합니다. 마치 두세 살 아이가 노래를 부르듯
비록 발음도 또렷하고 음정 박자도 야무지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예불문 독송이 그저 불·보살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불·보살은 듣지 못하므로 괜히 독송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저녁 두 번 예불이 아무 효과가 없는 원인입니다.

독송의 목적과 방법을 잘 알고 이어 수행의 요지에 따라 실천한다면, 불법의 뛰어난 공덕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문에는 많은 경론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한 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뒤에 그 한 길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최소한 5년은 읽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5년이라는 시간을 20퍼센트, 또는 40퍼센트로 줄입니다. 40퍼센트 줄이면 3년이 됩니다. 더 이상 깎아 내리면 아마 효과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간 이병남 선생님 문하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경이 《아난문사불홍길경》阿難問事佛因吉經이라는 소승경전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아미타경》이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이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네 번째는 《금강경》, 다섯 번째는 대경인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입니다.

순서대로 한 가지씩 차례대로 배워 나갔는데, 경전 하나 하나마다 매우 긴 시간과 상당한 인내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엄경》은 이병남 선생님이 제1권을 강의해 주셨는

데, 그 아래 79권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본_{晉本} 60권, 정원본_{貞元本} 40권 모두 체득할 수 있었고, 법화·아함, 그리고 선종의 어록집 등은 배우지 않았지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옛 사람이 말한 ‘하나의 경전에 능통하면 모든 경전에 다 능통한다.’ 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이런 교수법은 한 경전을 배우면 단지 한 경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전을 배워서 모든 경전을 다 꿰뚫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그래야 모름지기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만약 학생이 하나를 보고 열을 알지 못하면 공자는 그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병남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을 들을 때 경속에 담긴 도리_{道理}와 교리_{教理}를 듣되, 경의 언어문자는 듣지 마라. 무엇을 ‘이치_理’라 하는가? 이치란 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을 관통하는 것이다. 만약 들을 줄 모른다면 교의_{教義}를 들어라.

무엇을 ‘교의’라 하는가? 교의는 한 종파의 이론이고, 한 지파_{支派}의 이론이다. 만약 이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면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가장 훌륭한 것은 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교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법을 다 썰 수 있고, 참된 수지를 가능케 한다.”

바뀌 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마음을 단정히 하여 색다른 것에 쏠리지 않도록 하며, 인욕바라밀을 닦아 지극한 끈기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이 좋고 저 경전이 뛰어나다’ 라고 한다 해도 참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잠시 듣지도 보지도 말고 한 쪽에 두십시오.

후에 자신의 지혜가 자라나면 그 때 가서 보십시오. 만약 지혜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봐서는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사코 한 법문에만 매진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성공 비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10구는 자리행_{自利行}으로 모두 자신의 수행입니다. 오직 마지막 한 구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법을 널리 대중에게 소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뒤의 1구를, ‘수행에 나아가기를 권유한다.’ 고 합니다. 즉 불법을 배우도록 권유하고, 정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보살행_{菩薩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의 ‘선_善’ 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부

모님께 효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수행에 나아가기를 권유하는 것까지 모두 다 실천하였다면 그 때 비로소 대승경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가 되는 것이니, 이 선의 기준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는 바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래에 100번이나 33천을 왕복하며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까?

이는 보통 수행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법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는 단지 제1복인 인천복^{人天福}만 갖추면 되고, 소승교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의 기준은 제2복인 소승복^{小乘福}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에서 말하는 선남자·선여자는 반드시 세 가지 복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 속의 선남자·선여자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몫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복분^{福分}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3복을 얼마나 실천하였을까요? 특히 대승불법의 기준에 합당할까요?

2) 6화경和敬

대승 경전의 3복은 우리 수행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여의고는 대승뿐만 아니라 인천人天의 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법 수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들도 하여금 많이 읽고 많이 체험하고 힘껏 노력하여 자기 공부의 기초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수행한 기초가 있어야 비로소 함께 수행할 기초를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초를 모른다면 함께 수행하더라도 이익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인식의 바탕이 없고, 더럽혀진 마음으로 쓸데 없는 말만하여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 수행하기보다 못할 것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공수共修에는 공수의 계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6화경和敬’입니다.

‘3복’은 개인 수행의 기초이고, ‘6화’는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계율로서 여전히 기본적인 수행방법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승단은 네 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를 위해 여섯 가지 계율을 제정하여 대

중들로 하여금 이 여섯 가지 계율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승단이고, 또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6화경’은 모두 다 같이 함께 수행하는 기본적인 규칙으로써 출가자 단체이든 재가자 단체이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6화경의 첫 번째는 ‘견화동해^{見和同解}’입니다. ‘견화동해’란 바로 공통되는 인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 안에서 우리들은 수행의 이론과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중들이 함께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중생에게 수순하고,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공덕’을 확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 한량없고 다함없는 법문을 시설하였습니다. 불교 종파와 법문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 생겨난 것입니다.

대중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참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먼저 사람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화합’만이 우리의 견해, 사상 나아가 생활방식까지 점점 가깝게 하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평등’입니다. ‘화합’한 뒤에 비로소 ‘평화’가 있게 마련이고, ‘평화’가 있는 후에야 사

람들의 마음이 ‘안정’ 되며, ‘안정’ 된 뒤에야 비로소 ‘즐거움’ 이 있습니다. 만약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도 안정되고 신체도 건강한 신심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화_和’ 는 가장 최초의 토대입니다.

불법은 ‘화합과 공경’ 을 중시합니다. 세간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합’ 을 중시합니다. 공자는 이 글자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열거하여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논어》에서는 “예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화합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북경에 가서 청나라 때의 옛 궁전 즉 자금성을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성에는 세 개의 중요한 건축물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건축물을 ‘금란전_{金鑾殿}’ 이라 부릅니다.

사실 이 건축물의 편액에는 ‘금란전’ 이라 쓰여 있지 않고 ‘태화전_{太和殿}’ 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화전 뒤쪽 건물을 ‘중화전_{中和殿}’ 이라 부르고, 중화전 뒤쪽 건물을 ‘보화전_{保和殿}’ 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전각 이름을 유의하십시오! 이 세 전각의 이름에 모두 ‘화_和’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청나라의 모든 제왕들이 무엇으로 천하를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화_和’, 즉 화합_{和合}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청나라 말엽에 이르러 가족 간에 불화하고, 조정과 재야 간에 화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태화·중화·보화의 정신을 지켜 왔더라면 아마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대청제국의 천하였고, 중국사람 또한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모임을 함께 할 때 반드시 이 글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수많은 경전과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셨다 하여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우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에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갖가지 견해와 중생들의 각기 다른 필요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그러다 훗날에 이르러 매우 많은 종파가 파생되어 나왔고, 그 지파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모두 10개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화엄도량을 지어 오로지 화엄만을 닦았고, 《법화경》을 좋아하는 이들은 법화도량을 세워 오로지 법화만을 닦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의 사원이나 총림叢林이 사실상 지금

말하는 전문대학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원이나 총림의 성립은 대중의 선호, 견해, 사상이 서로 일치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 도량에서는 절대 오늘은 이것을 배우고 내일은 저것을 배우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법은 그 어떠한 법문이라도 성취의 여부는 모두 ‘전일함’에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학문을 가르칠 때 우선 다섯 살 남짓의 아이에게 《삼자경三字經》을 읽게 하였습니다. 《삼자경》에 이르기를, “가르침의 도리는 전일하게 하는 것이 으뜸이다.”고 하였습니다. 《삼자경》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위 없는 심오한 불법을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모두 한 경전을 읽고 모두 한 법문을 닦을 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전일함’입니다. 이러한 도량이 바로 하나의 종지만을 전일하게 닦는 도량인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탁마하고, 정진을 고무하여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토법문을 닦습니다. 우리 정토종은 다른 종파에 비해 소의경전所依經典이 매우 적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세 가지 경과 하나의 논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가지 경과 하나의 논서'가 있습니다.

이는 청나라 함풍^{咸豐} 연간에 위원^{魏源} 거사가 《화엄경》의 마지막 권인 〈보현행원품〉을 삼경 뒤에 넣어 경이 4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화민국 건국 초엽에 인광^{印光} 대사가 《수능엄경》의 〈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大勢至菩薩念佛圓通章}〉을 그 뒤에 배열하여 5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로 삼아 말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무량수경》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미타경》을 좋아한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함께 둔다면 절대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량수경》을 읽으려 하고, 저 사람은 기어코 《아미타경》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도량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정토종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량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 이제 보니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같은 경에 귀의하는 것에 대해 말해 보기로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아미타경》에 귀의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연지^{蓮池} 대사의 소초^{疏鈔}를 따라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우익^{藕益} 대사의 요해^{要解}에 의지한다면, 이 두 사람들이 의거하는 해석 또한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아미타경》에 귀의하여 수행한다 해도 다

시금 두 개의 도량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견화동해_{見和同解}’의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수련해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같은 경에 귀의하고 같은 사람의 주석을 의지한다 해도 그 읽는 방법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아주 느리게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아주 빨리 아주 급하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수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날 불가 도량의 장엄함이 사람들에게 하여금 산문_{山門}에 들어서면 절로 숙연해지고 경건해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량 안의 도반과 법우들은 오로지 하나의 견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법문을 따라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즘 사람들의 불법 수행이 무엇 때문에 성취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의 도량을 보면 오 늘은 어떤 법사를 청하여 이 법문을 듣고, 내일은 다른 법사를 청하여 저 법문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같은 도량에서 함께 무량법문을 닦는 다 한들 어찌 마찰이 생기지 않고, 어찌 모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어서 부처님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범부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견화동해見和同解’는 도량의 기초 중의 기초임을 알 수 있고, 견화동해見和同解 할 때 비로소 대중들이 진정으로 함께 수행하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 그 속에서 대중의 생각과 견해가 일치하고 취미와 목적이 같을 수 있다면, 화합을 이룰 수 있어서 하나의 승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같지 않다면 별도로 승단을 조직하되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함께 수행하게 되면 서로 방해되어 피차가 모두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법문을 시설하신 의도는 여러 가지 견해, 상이한 사상, 같지 않은 취미를 가진 중생들로 하여금 개개 모두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위대함이고 세심함이니, 이른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이고 ‘법문 평등’ 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경觀經》을 보면 위제희韋提希 부인은 이 세상이 너무 괴롭다고 느끼어 불국佛國에 태어나기를 회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서방 극락세계에 나는 것에 대해 먼저 말해주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한량없고 다함없는 여러 불찰토佛刹土를 모두 그녀 앞에 보여주면서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스스로 선택

하여야 비로소 자기의 취향에 맞기 때문이다)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과 같은 범부들은 종종 사람에게 무언가 강요합니다. 자기가 이 법문을 배워서 좋으면 남도 와서 배우라고 끌어당깁니다. (그 사람이 이 법문에 취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법문에 들어온 뒤로 생각과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분분하여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단체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법을 두루 소개하여 그 법문이 좋으면 그 법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는 정토종입니다. 염불을 좋아하면 여기에 와서 자신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십시오.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사가 선종 법문을 수련하였는지, 밀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사가 밀교 법문을 전하더라 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느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모두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이 필요 없습니다. 법문은 평등합니다. 모두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기연에 응하고, 근기에 맞게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예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화동해’입니다.

두 번째는 ‘계화동수_{戒和同修}’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왕

함께 모여 수행한다 하면, 반드시 규칙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만약 규칙이 없으면 혼란스럽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됩니다. 물론 같이 사는 규칙 안에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정한 근본 계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가 승단인가, 아니면 출가 승단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재가 승단은 5계를 기초로 하고, 출가 승단은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일부 규칙이 첨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원의 ‘상주공약_{常住公約}’입니다.

이 공약은 한두 사람이 기초한 뒤, 회의에서 대중의 토론을 거쳐 마지막에 의결하여 통과한 것으로 도량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상주공약 가운데는 나라의 법률도 포함됩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도 지켜야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규칙을 따르고 법을 지킨다면, 이 단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요컨대, 단체 가운데서 사람마다 그 지위가 평등하여 특권 계급이 없기 때문에 불교의 승단은 민주적이고 계를 받들고 법을 지키는 단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화동주_{身和同住}’입니다. 신화동주는 여러분이 같이 거주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량은

함께 수련하는 모든 자들을 성취케 하기 위해 세운 것이
지, 절대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불문에 와서 생활하
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동주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방의 공양을 받아 소화해 낼 수 있
겠습니까! 이 죄과는 한량없고, 또한 그 빛은 반드시 갚아
야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명시해 놓으셨습니
다.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그저 같은 도량에서 함께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방이 하나
씩 있다거나, 심지어 요즘 사회에 생활이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스위트룸처럼 사람마다 그런 방을 갖는 것이 아닙
니다. 이같이 편안한 생활환경에서 수행해서 어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염부제의 중생이 마음을 일으
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없다.” 고 하
였습니다. 사람은 시작 없는 겹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미혹하고 전도顛倒되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죄업을 쌓아
악한 습기가 너무 많고 너무 무겁습니다.

대중이 함께 모여 살 때는 여러 사람의 이목과 손가락의
가리킴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법을 지키어 그런 대로 봐 줄

만 하지만, 일단 방문만 닫아걸면 보는 사람이 없어서 금방 제멋대로 하고 방일^{放逸}하여 갖가지 추태가 드러납니다.

낮에는 수행하고 밤에는 방일하니 공들여 수행한 것이 모두 잃게 되어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지혜로 이와 같은 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까? 통포(通鋪: 큰방에 여러 채의 이부자리를 나란히 펴놓은 것)에서 자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모두 함께 자고, 낮이나 밤이나 대중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잠을 잘 때도 얌전하게 조용히 자야 하므로 제멋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대중에 의지한 정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원이나 총림의 요사채에 가보면 모두 통포로 되어 있어,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이부자리가 주어집니다. 이 각각의 이부자리는 반듯하고 정연하게 개어져 있어 마치 군영과 같으며, 심지어 군영보다 더 엄격하고 군대의 규율보다 더욱 질서가 있습니다.

도량에 산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습에 길들어진 마음과 몸을 잘 갈고 닦아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도록 힘쓰고, 계·정·혜 3학으로 심행을 개조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수행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나 총림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요사채를 가지겠습니까? 주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과 재무와 총무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무가 번다하기 때문에 대중과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대중은 학생처럼 매우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재무나 총무는 업무를 처리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해서 겨우 작은 방 하나를 가집니다.

주지의 방을 ‘방장(方丈: 가로세로 넓이가 한 자이다)’이라 합니다. 방은 대체로 아주 작는데, 이는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주어진 방이 아니라 대중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 연로한 이도 방을 혼자 사용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혼자서 기거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포 생활을 합니다. ‘신화동주’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진정으로 수행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오늘날 같이 풍족한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구화무쟁(口和無諍)’입니다. ‘구화무쟁’은 대중이 함께 살면서 언쟁 없이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제일 쉽게 짓는 것이 바로 구업(口業)입니다.

옛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음식을 즐겨 먹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지 못하며, 먹은 것이 위생적이지 않을 때 병이 생긴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

다.” 고 하였습니다. 무릇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말실수가 생깁니다. 때로는 말하는 사람은 무심하였으나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뜻을 두어 오해가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을 맺어 훗날의 과보를 초래합니다.

솔직히 그것은 매우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옛 대덕들은 항상 우리에게, ‘말은 한 마디 적게 하고, 염불은 한 마디 더 외워라’ 훈계하였습니다.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필요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을 강할 때 함께 수행하던 법우 한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름 방학에 일본의 삼일선학회三日禪學會에 참가하고 돌아온 후에 겨울 방학이 되면 다시 참가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 선종 도량은 처음에 일본인이 세웠는데, 지금 도량을 세운 그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의 미국 제자들이 계속 도량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도량의 특색은 도량에 들어온 후부터 일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정은 좌선하는 것뿐인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좌선하고, 다시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좌선합니다. 이외에 다른 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3일 동안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홀가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앉아 있기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주 기분 좋게 앉아 있었고 그 느낌도 아주 좋았다 하였습니다. 이런 도량의 특징이 바로 ‘구화무쟁口和無爭’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니 언쟁할 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도량에서는 모여 잡담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없고, 참된 도량에서도 잡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지저분한 얘기와 잡담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염불을 외우는 도량에서 아침저녁으로 그저 ‘아미티불’을 외우는 염불소리만 땀땀히 들립니다. 염불은 큰 소리로 외워도 되고, 작은 소리로 외워도 되며, 묵념하여도 됩니다. 참된 밀종 도량에서는 끊임없이 외우는 다라니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처음에 불법을 장가章嘉 대사한테서 배웠습니다. 장가 대사는 대단히 이름 있는 대사로 제가 그를 가까이서 모신 3년 동안 그는 항상 다라니를 외웠는데, 저는 그의 입에서 다라니를 염하는 소리가 끊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라니를 외울 때 대체로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입술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가 다라니를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금강지金剛持라고 하는데,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

도, 심지어 손님을 접견할 때라도 다라니 외우는 일을 끊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얘기를 할 때만 잠시 멈추었다가 말이 끝나면 그의 다라니 수행은 바로 이어집니다. 세월이 이처럼 많이 지나갔어도 이 분 외에 저는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청정^{淸淨}하여 진실로 조금의 망상이나 잡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법익을 청하고 의단을 질문하면 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상대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절대 그 상대에게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면서 상대의 눈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상대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런 교수방법은 매우 특별하여 두 시간에 겨우 서너 마디 정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 말마다 천근의 힘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화무쟁’입니다.

그러므로 정토 법당에서 말을 금하는 것은 불전^{佛殿}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늘 익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신의 수행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번뇌를 떨치고 염불 삼매를 보다 빨리 성취하고자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화동열_{意和同悅}’입니다. ‘의화동열’은 평상시에 늘 말하는 ‘법희충만_{法喜充滿}’입니다. 불법을 배움에 있어서 어떤 법문을 배우든 가장 얇은 성취는 바로 환희입니다. 만약 불법을 배우면서 즐겁지 않다면 이는 반드시 문제가(불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수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불법을 배우는 효과, 즉 미혹을 타파하고 깨달음이 열리며 고통을 여의고 안락함을 얻는 등의 그런 효과가 결정코 매우 선명합니다. 고통과 번뇌는 하루가 다르게 적어지고 나날이 즐겁고 하루가 다르게 자재_{自在}해지는 것, 이것은 불법을 공부하여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진지하게 검토하여 원인과 병통을 찾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의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을 경험하고 마음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역_歷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겪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마음을 연마해야 합니까? 바로 청정한 마음을 연마하고, 바른 지견^{知見}을 연마하며, 깨달아서 미혹하지 않음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을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순조로운 환경에 처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장소멸을 돕고 복록과 지혜의 증장을 돕는 조연^{助緣}으로 본다면,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희열은 저절로 일어나는데, 이를 ‘법희충만^{法喜充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 수행하면 저마다 모두 이 같은 법희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진정으로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화동균^{利和同均}’입니다. ‘이화동균’은 함께 어울려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적 생활에서도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도량의 일부 재원은 제왕이 도운 것으로 나라가 세운 시방 도량입니다.

그 다음은 큰 부호장자들이 돈을 내어 세운 도량으로 사실상 화주하여 세운 도량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소규모의 화주로 세운 도량은 아주 후대에 와서야 생긴 것입니다. 이런 도량은 여법한 도량이 아닙니다.

특히 출가자 본인이 직접 밖에 나가 자그맣게 화주하여

절을 짓는 일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가한 사람의 생활이란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낮에 한끼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 탁발을 합니다. 잠잘 때는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 좌선하고 하룻밤을 휴식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합니다.

도량을 짓는 것은 마치 학교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그 지방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도량을 짓는 것은 우리들 중 참으로 학문이 있고 식견이 높은 인사들이 모여 창건을 제창하고, 부호장자들이 기부하거나 협력하여 도량을 세웁니다. 이외에도 덕행이 높은 고승을 이곳에 모셔와 주지와 수행을 맡겨 중생들을 교화합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도 이와 같아서 학교를 세운 뒤엔 덕망과 품행 그리고 학문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청하여 교장과 교사업무를 담당케 하여 그 지방 학생을 교육시킵니다.

불교도량을 지어 그 지방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나 학교를 세워 그 지방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량은 학교와 같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지방의 부호들이 기부하거나를 떠나서 도량에 머무는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 이든지 간에 향유하는 물질적 환경은 절대 평등합니다. 이를 ‘이화동균’이라 합니다.

도량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6화경 가운데 단 한 가지 항목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불의 승단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세간법으로 말하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입니다. 만약 나라 전체가 화합한다면, 강한 적이라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하가 단결한 힘이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가정, 회사,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단지 6화경 가운데 견화동해(見和同解), 계화동수(戒和同修), 이화동균(利和同均) 세 가지 항목만 실천한다면, 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견화동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치단결하여 같은 인식을 갖게 하고, 계화동수는 사람마다 법을 지키게 하며, 이화동균은 생활을 향유함에 있어서 가급적 평등에 가깝게 하여, 차이를 줄이어 인심의 동요와 사회폭동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만끽하는 생활의 향유가 눈에 거슬려 약탈과 반란을 일으키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나라도 일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발달

하여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늘에 와서 세계 1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본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항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업·상업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이 세 가지 조항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만약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고위층 간부들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부의 일반 직원들에게는 그대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의견이 있어도 절대로 파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다만 머리에 흰 천을 두르는 것으로써 ‘우리는 당신에게 제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반항합니다.’란 뜻을 드러냅니다. 사장은 이를 보고 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협상합니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이 되고,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같이 6화경의 세 가지 조항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 옛

성현들의 교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 교훈을 따라 실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이 세대가 조상들에게 진정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는 깊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2주 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범우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 결혼하려는데 어떤 여자를 상대로 맞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결혼 상대를 찾는다면 반드시 견화동해^{見和同解} 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노력하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취향이 모두 같게 되고, 서로 도와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 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저 사랑타령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상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일단 결합하면 서로의 흠집이 모두 드러나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 가정에 비극이 생겨납니다. 무상한 거짓 감정은 믿을 것이 절대 못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가정 역시 6화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깃들고, 이런 이치를 모른 채 일생동안 행복과 즐거움, 가정의 화목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3학學

계(戒) · 정(定) · 혜(慧)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불법의 기본 교과목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본질적으로 교육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과과정은 종류가 매우 많고, 내용 또한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어 절대 한 개 대학의 교과과정으로서는 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량없고 다함없는 교과과정의 교과서는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의 전부가 중국에 전래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기 때문에 인도의 고승이 중국에 오거나, 중국의 법사들이 인도에 가서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 그 중 가장 좋은 것들만 중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차등이나 더 차등한 것은 모두 버렸기 때문에 중국에 전해진 경전은 모두 엑기스입니다.

중국에 전래된 뒤에도, 가져 온 경전 전부를 번역할 수 없어서 다시 또 선택하여 오직 제일 뛰어난 것, 제일 중요한 것만을 골라 번역을 하였습니다. 역경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 역경도량의 일체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였고, 전국의 출가자나 재가자, 그리고 중국이나 외국의 각 인재들 가운데서 정화만을 모아 대규모의 번역 사업에 종사케 하

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구마라집 대사의 역경도량에는 4백여 명의 편집요원들이 있었고, 현장 대사의 역경도량에는 6백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역자명은 대개 역경도량의 주최자명(학교의 교장과 같다)을 그 대표로 사용한 것일 뿐, 주최자 개인이 전부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역경도량 내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성과입니다.

지금 중국에 보존되어 있는 경전은 한문본 불경으로 상당히 완벽합니다. 인도의 범어 경전은 이미 흩어져 유실되었기 때문에 남아서 내려온 것이 매우 적습니다. 한문 경전 외에 두 번째는 티베트어 계열의 경전입니다. 티베트 경전의 일부는 범어에서 직접 번역하였고, 일부는 한문 경전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의 문성공주^{文成公主}가 티베트로 시집가면서 불법을 티베트에 전했기 때문에 불법이 티베트로 유입된 것은 중국보다 6백 년이나 늦습니다. 티베트 왕이 불법에 신심이 생기자 다시 인도로부터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불법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유입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내용은 계·정·혜 3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3학의 주된 목적은 이 시대, 이곳 중생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곳이란 곧 지구를 가리키고, 이 시대란 석가모니불의
정법_{正法}·상법_{像法}·말법_{末法}의 1만 2천 년의 법운_{法運}을 가리
킵니다. 이 시대, 이곳 중생들의 병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조악_{造惡}, 즉 열 가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부
처님께서는 ‘계_戒’ 로써 이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계는
악업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산란하면 선정을 얻을 수 없고 청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정_定’ 으로써 이를 다스립니다. 마지막의
‘혜_慧’ 는 우치_{愚痴}를 다스리는 약입니다. 조악_{造惡}·산란_{散亂}
·우치_{愚痴}는 이 시대, 이곳 중생의 3대 병통으로써 부처님
께서는 계·정·혜의 세 가지 묘약을 처방하여 다스렸습니
다. 불타의 설법은 중생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중생에게 만약 병이 없으면 부처님의 법이 없었을 것입
니다. 이는 의사가 병에 따라 약을 쓰는 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에게 병이 있으면 부처님의 법_法이 있게 되
고, 중생에게 병이 없으면 부처님의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법조차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라.” 라고 한 《금강경》의 구절처럼 중생에게 병이 없
으면 불법도 필요 없게 되나, 기어코 불법을 요구하면 그
것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매일
약을 먹으면 없는 병도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설한 모든 경전을 그 쓰임에 따라 귀납하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경은 ‘경_經·율_律·논_論’ 3장_藏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은 곧 경장이고, 계는 율장이며, 혜는 곧 논장입니다. 이는 도서의 분류 방법인데, 최초는 불교에서 전래하여 그 후 중국 사람들도 이에 따라 모든 서책을 분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나라 강희_{康熙}와 건륭_{乾隆} 연간에는 전국 도서를 한 차례 총정리를 하여 이를 경_經·사_史·자_子·집_集에 따라 사고_{四庫}로 나누었습니다. 고_庫는 장_藏과 같은 뜻으로 고는 창고를 의미하고, 장은 갈무리 장이라 수장_{收藏}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불법의 ‘삼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삼장은 다시 대승과 소승으로 나눕니다. 소승에는 성문장_{聲聞藏}, 연각장_{緣覺藏}이 있고, 대승에는 보살장_{菩薩藏}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나누면 더욱더 세분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학 가운데 계학은 몸을 조절하는 것이고, 정학은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며, 혜학은 행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은 움직임과 언어의 구사, 이 모든 것이 어느 하나도 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러하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 6바라밀六波羅蜜

(1) 보시布施

우리는 불법의 표준적 교과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처세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부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는 같이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대승경론에서 이미 폭넓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보살행의입니다.

다시 말해 6바라밀이란 일상에서의 생활과 상호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여섯 개 원칙, 즉 보시_{布施} · 지계_{持戒} · 인욕_{忍辱} · 정진_{精進} · 선정_{禪定} · 반야_{般若}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안을 가시고 칫솔질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 밤에 자리에 드는 것까지 종일토록 접촉한 모든 것이 전부 6바라밀에 의거한 것이라면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세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재복_{財福}입니다. 왜냐하면 재복이 없으면 생활이 매우 고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복은 가장 먼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은 총명과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멍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또 백 살까지 건강 장수하기를 추구하는데,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마다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만족시킨다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종종 말하기를, “불문에서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대한다.”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실의 진상을 모르고 또 추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진상이란 바로 도리를 뜻하는데, 만약 도리를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면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원리와 원칙은 우리를 도와 바라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들은 세세히 체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복과 지혜,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모두 과보에 속한 것이고, 이런 과보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과보의 인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십니다.

선한 인은 선한 과를, 악한 인은 악한 과를 받습니다. 무릇 과가 있으면 반드시 인이 있기 마련이고,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이 총명하다거나 또는 기술이 아주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총명한 사람도 많고, 그 사람보다 기술이 재빠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서는 재복의 얻음은 전생에 심은 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전생에 어떤 인을 심었겠습니까? 재물을 보시한 인을 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바라밀에서 보시를 첫 번째에 둔 것입니다.

‘재보시_{財布施}’는 재복을 얻고, ‘법보시_{法布施}’는 총명과 지혜를 얻으며, ‘무외보시_{無畏布施}’는 건강과 장수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재복, 총명과 지혜, 그리고 건강과 장수 이 세 가지 과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재시_{財施}·법시_{法施}·무외시_{無畏施} 이 세 가지 인을 닦아야 합니다.

세간 사람이 금생에서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은 대개 전생에 닦아 놓은 것이고, 소수 사람들만이 금생에 닦아서 금생에 받습니다.

이번 생에 만약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생에서 바로 과보_{果報}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보입니다. 그래서 과보는 반드시 그 인을 닦아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 재보시(財布施)

‘보시’는 모든 대승불법 가운데 보살수행의 가장 중요한 한 항목입니다. 한량없고 다함없는 법문을 귀납하면 바로 6바라밀인데, 이 6바라밀을 다시 또 귀납하면 보시 한 항목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시바라밀을 닦게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시’가 갖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보시라는 말만 들으면 바로 약간의 돈을 사찰에 기부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협의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로 어떻게 보시가 보살의 수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시라 함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요, 공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매일 매일 보시바라밀을 닦고, 매일 보살도를 실천하지만, 다만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집안사람들의 세수 물건을 모두 잘 준비하고 아침식사와 차도 모두 끓여놓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집사람들을 위해 보시한 것이고, 공양을 바친 것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매일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시바라밀을 닦으며 보현보살의 10대원 가운데 광수공양(廣修供養)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만약 이처럼 깨닫는다면, 결단코 당신은 “아이고, 식구들 이 모두 나를 가정부나 식모로 여기어 매일 그들의 시중을 들게 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불평만 늘어놓으면 모든 보시바라밀의 공덕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생각을 바꾼다면 불평과 고통이 삼시간에 보시바라밀로 변하여 곧장 불법의 즐거움과 지혜의 실다운 이익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왜일까요? 병이 났을 때,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까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에 들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해서 의료비를 부담케 합니다.

매달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때, 만약 자기가 병이 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병이 나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으면 그 돈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각을 바꾸어 보시를 닦고 공양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공양한다면, 이 보시는 당신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병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이 닦은 것은 병이 생기지 않는 과보에 대한 인_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시를 하

고 무의탁 노인을 돌본다면, 미래에 당신은 선한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늙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며 시중을 들 것입니다. 어떤 인을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러한 과보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매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오직 돈을 더 벌기 위해서거나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이 회사에 보시하는 것이고 사회 대중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월급의 오름과 승진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는 보살도를 행한 것입니다.

보살의 시사심施捨心으로 일을 하면 영원히 피곤한 줄 모르고, 할수록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말에,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면 정신이 맑아진다.” 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일을 부득이 한다면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반대로 좋아하고 또 흥미 있는 일이라면 할수록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제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법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말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번뇌와 고통을 줄이고 불법의 즐거움과 지혜

를 얻어서 생명의 환희와 생활의 아름다움을 충족시키고
높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째 로스앤젤레스에 왔던 것은 1984년입니다.
강의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바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앉아서 들었
지만, 저는 서서 하루에 아홉 시간을 강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서서
강연하는 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연을 하면 할수록 정신은 또렷하였고 목소리는 더욱 높
아졌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
입니다. 만약 제가 불경을 강의하면서 한 시간에 얼마나
되는 강의를 받을 것인가를 계산하거나 또는 듣는 사람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곧 피곤함
과 싫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위없이 깊고 미묘한 불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피곤함과 싫증을 느끼지 않았
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즐거움이 바로 법열法悅이고, 제일
좋은 자양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자양분 저런 자양분을 쫓는데, 이
는 모두 거짓된 것입니다. 불문에서 말하는, “선열禪悅로 음

식을 삼는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禪이 무엇입니까? 선은 마음의 청정이고, 열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자양분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음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법열을 얻어야 건강하며 장수하고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면 사람은 늙고 병이 듭니다. 하루 종일 얼굴에 근심과 고통으로 뒤덮인다면, 병이 쉽게 생기고 노쇠도 빨리 옵니다. 즐거움은 건강의 원인이 되고, 이는 보시바라 밑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을 바꾸어 ‘이는 차 사고를 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보시행을 닦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차는 영원히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살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범부입니다. 보살과 범부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는 깨달은 것이고, 하나는 미혹한 것입니다. 미혹한 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이고, 깨달은 이는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위하고, 그로인해 얻어지는 좋은

점은 참으로 불가사의하여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만 위하면 그리하여 얻어지는 좋은 점은 아주 조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생각하되, 자기를 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금생에 당신에게 재복이 있는 것은 복보(福報)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지혜입니다. 돈을 사회를 위해 쓰고, 대중을 위해 쓴다면, 이는 큰 지혜로써 참으로 돈을 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자기를 위해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나마 지은 조그마한 복덕(福德)마저도 며칠 안 가서 다 써버리게 됩니다. 만약 생각을 바꿔 복덕을 중생에게 보시하면 복덕은 더욱 늘어나고 무성해져 다함이 없게 됩니다.

보시가 포함하는 내용은 한량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라도 닦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고, 바뀌지 않으면 6도를 윤회하는 범부인 것입니다. 이상은 재보시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체득하고 많이 사유하면 원만하게 재보시를 닦을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재보시를 내재(內財)와 외재(外財)로 나눕니다. 외재는 신체 외의 것을 말하고,

내재는 신체를 말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각막 또는 장기를 기증합니다. 이는 내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체력으로 남을 돕는 것도 내재 보시에 속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 일해 주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의무적인 일로써 이 역시 내재 보시에 속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보시행을 하지만 다만 보시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보시라는 생각이 있다면 시시각각 다 6바라밀을 닦는 것이고, 다 보살법을 닦는 것입니다.

보살법과 범부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깨달아 일체 중생을 위한다면 불·보살이고, 한 생각 미혹하여 자기를 위한다면 곧 범부인 것입니다.

불가에서의 선악 기준이란 무릇 자기만을 위한 것은 모두 악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모두 선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초심자가 알아듣기엔 어렵습니다.

사람은 왜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범부가 성불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집착 장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집我執이고, 다른 하나는 법집法執입니다. 아집을 없애면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

득하게 되고, 법집을 다 없애면 부처가 됩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아집이 늘어나는데, 설사 모든 선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집착만 증장시킬 뿐입니다. 집착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악이라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3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3계를 벗어나려 한다면 반드시 아집과 법집을 없애야 합니다. 아집은 번뇌장^{煩惱障}이라 번뇌의 근원입니다. 법집은 소지장^{所知障}의 근원입니다.

■ 법보시^{法布施}

두 번째는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지혜, 총명, 재능의 수행인^(修因)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포함하는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법보시는 일반적으로 세간과 출세간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불법과 세속법입니다.

무릇 다른 사람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할 수 있다면 열심히 그를 가르치는 것 모두를 법보시라 합니다. 그러므로 법보시란 다만 경을 강의하고 법을 설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을 강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무량법시^{無量法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밥이란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할

줄 아는 데 반해 을은 할 줄 모르지만 매우 배우고 싶어한다면, 갑이 진심으로 을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역시 범보시입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 일을 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를 가르친다면 그 역시도 범보시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교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범보시에 속합니다.

각종 계열의 무진장 많은 지식과 기술을 조건 없이, 그리고 보수를 따지지 않고 전수하는 것도 범보시입니다. 만약 대가를 바라거나 수업료를 받으면 보시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현직 교사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보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이는 교사의 한 생각에 달린 것이라 대답하겠습니다.

만약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함이지 명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이는 당연히 보시입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다시 말해 강사에서 부교수 그리고 교수로 승급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범보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범보시를 닦는 사람은 매우 열정적이고,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범보시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 명리를 얻지 못하면 이내 소침해지고 마음이 돌아

서 가르침에 열성적이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언제나 다함없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특히 불법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보시란 불법보시를 일컫습니다. 세간의 법보시는 구경이 아닙니다.

오직 불법보시만 일체의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한량없는 지혜와 다함없는 덕능, 그리고 재능을 얻게 합니다. 또한 번뇌를 끊고 생사를 깨달아 3계를 벗어나 불과를 이루게 합니다.

이런 보시야말로 가장 원만하고,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는 오직 대승의 보살법 안에서만 비로소 두루 갖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여래께서 대승 보살도를 찬탄하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는 경전의 보시를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그 다음은 경을 강하고 법을 설한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이고, 그 다음이 여러 곳의 요청에 응하여 불법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사회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법보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 책을 펴보면 뒷면에 항상 “판권을 소

유하고 있으니 임의적인 번역은 법적 추궁을 받습니다.” 라는 글이 찍혀 있거나,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번역하지 마시오.” 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법보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권 무엇입니까? 세간 상인이 책을 사고 파는 상술입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법시의 공덕과 이익은 모두 없어지고, 단순히 세간 상인들이 서점을 열어 책을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은 녹음테이프 뒤에도,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복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먼저 공양을, 즉 몇 시간을 강의하면 얼마나 되는 강의료를 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일종의 장사 행위이지 보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은 오직 중생의 이익만을 위해야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지방에 보수를 주지 않지만 대중들이 진정으로 불법을 갈구한다 하면, 불·보살은 스스로 여비를 마련하여 중생의 염원을 충족시키되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난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진정으로 불법의 뛰어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 무외시無畏施

세 번째는 ‘무외보시’입니다. 중생의 몸과 마음이 불안과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를 도와 그 공포를 없애주는 것을 무외보시라 합니다.

무외보시도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 민심이 혼란할 때, 종군하여 전방에 나가 적을 무찌르고 후방을 보호하여 후방의 민간인들로 하여금 안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외보시에 속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밤길 가는 것을 겁냅니다. 귀신을 겁내기도 하고, 강도를 만날까 겁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어서 내가 그를 한 블록 바래다주어 그의 무서운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이 된다면, 이것 역시도 무외보시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생의 몸과 마음을 안온하게 하여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는 것을 다 무외보시라 합니다. 무외보시로 얻는 과보는 건강과 장수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갑자기 여러분에게 특별히 깨우쳐 줄 것이 있습니다. 즉 채식을 하는 것도 무외보시에 속합니다. 채식을 하면 모든 중생들이 당신을 보고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

다.

이 같은 무외시를 참으로 원만하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건강과 장수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법보시으로써 총명과 지혜를 얻고, 재보시으로써 재복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과보를 모두 얻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이 3가지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 역사상 재복과 총명·지혜, 그리고 건강과 장수가 가장 크고 가장 원만했던 사람이 건륭황제입니다.

그는 ‘천자이므로 귀하다 할 수 있고, 천하를 가졌으므로 부유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총명과 지혜, 건강과 장수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황제로 지내었고, 또 4년 동안 태상황^{太上皇}으로 지냈습니다.

그도 스스로를 ‘고희천자^{古希天子}’라 했습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이고 조금도 거짓이 없으며 스스로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가 과거 생으로부터 세세생생 청정하고 원만한 재시와 법시와 무외시를 닦았기 때문에 이처럼 큰 복덕과 그 과보를 받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보살은 반드시 보시바라미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라밀이란 ‘구경원만^{究竟圓滿}’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시를 구경원만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보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 관계하며,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만 한 생각을 바꾸면, 하는 것마다 이르는 곳마다 보시행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시행은 원만구경한 것이 아닙니다. 구경원만한 보시는 놓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며,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놓아야 하겠습니까? 놓는다는 것은 ‘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버릴 사_捨 뒤에는 항상 얻을 득_得이 함께 따라 다닙니다. 즉 작은 버림은 작은 얻음이고, 큰 버림은 큰 얻음이며, 버리지 않음은 얻지 못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경원만한 버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번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째서 번뇌를 보시, 즉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사가 있습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보시해 버린다면, 당신은 곧 대원만

을 얻게 되고 대자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경원만한 보시이고, 보시바라밀입니다. 우리는 몸 외의 것부터 천천히 버리는 것을 연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버릴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 번뇌와 생사도 모두 버린다면, 자성의 청정한 광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지계持戒

두 번째 ‘지계’는 곧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사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자체로서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칙에 따라야만 비로소 원만과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바라밀 가운데 지계는 우리로 하여금 평상시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5계와 10계만을 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규칙이 있는데, 부자·부부·형제지간은 인륜이기 때문에 장유^{長幼} 같은 일종의 자연적 질서가 있어 절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뒤바뀐다면 집안은 어지럽게 되어 아버이는 아버이가 아니고, 자식은 자식이 아니게 됩니다.

밥을 짓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쌀을 씻고 솥에 넣어 온도를 조절하는 등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법

척대로 하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고, 설사 되었다 해도 골고루 익지 않습니다. 음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가마에 넣는 것도 앞뒤 순서가 있으며, 학습하는 것에도 모두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을 배움에 있어서 불가의 방법은 더욱 정밀하고 엄격합니다. 우리가 불법에 어떤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불교가 우리에게 준 수학의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먼저 큰마음을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큰마음이란 모든 중생을 제도_{濟度}하겠다는 서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낸 연후에 번뇌와 습기를 끊고, 그런 다음 법문을 배우면 마지막엔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이 된 뒤에야 비로소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고, 그제야 첫 번째 서원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함없는 중생을 결정코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고 해낼 수 없다면 허망한 서원이 됩니다. 혹 사람들이 “꼭 부처가 되어야 하는가, 보살이면 안 되는가?”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살이 비록 중생을 제도한다 할지라도 계위가 그 보다 높은 보살을 제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등각보살_{等覺菩薩}이라도 같은 계위의 등각보살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되면 등각보살도 또한 제도의 범주 안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를 이루어야 비로소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있어야 자비의 힘을 발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록 매일 사홍서원을 외우지만 서원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여전히 옳고 그르다는 생각, 남이다 나다 하는 생각,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분별심이 있어 값이 나와 좋으면 나는 그를 제도하고, 내가 을을 싫어하면 그를 제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다함없는 중생을 결단코 제도하리라.’는 말 아래에 ‘어떤 사람은 절대 제도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서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만한 서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만한 서원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보살인지라 보살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초지^{初地}보살을 초발심보살^{初發心菩薩} 또는 발심주^{發心住}보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보리심^{菩提心}이라 하는데, 대단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절대 6도^道를 윤회하는 범부가 감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자비는 근본이고 방편은 방

법이다.’ 고 가르치십니다. 즉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평상시에 신경 써서 자비를 행하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해야 합니다.

방법 속에 또 방법이 있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디는 불법을 배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6바라밀은 여섯 가지 강령이고,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 각 바라밀마다 또 다시 많은 방법이 들어 있어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운용하기만 하면 자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즐겁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계바라밀입니다.

(3) 인욕忍辱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 인데, 인욕은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역경사(譯經師)들은 굴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중국인의 개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옛 서적에도 종종,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되게 하지는 못한다.” 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인은 무엇이든 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상관없습니다.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경사들은 이 어휘를 인욕이라 번역하였습니다. 모욕조차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인욕은 오로지 모욕에 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중국인의 성격을 전제로 번역한 것이고, 원래는 ‘인내’라는 뜻만 있을 뿐 모욕의 뜻은 없습니다. 그 어휘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는 작은 인내가 필요하고, 큰일에는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은 인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학문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면 4년제 대학을 마치려면 4년을 인내해야 하는데, 이 4년을 참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2시간 반 동안 강연을 듣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참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시간의 불법을 원만히 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주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항상 인내심과 의지가 투철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은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보살의 6

바라밀을 설하실 때, 특별히 ‘보시’와 ‘인욕’을 강조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간만 언급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이는 수행의 성패가 보시와 인욕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속담에,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 대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다. 요즘 사람 대하기가 예전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의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단지 우리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노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천만 가지로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 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가르치십니다. 인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위적인 가해를 참아야 하고, 남이 주는 모욕과 모함도 참아야 합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득이 됩니다. 어찌서인가 하면, 참을 수 있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선정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수행의 성취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이 어찌 최고의 복덕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둘째는 자연의 변화입니다. 즉 차고 뜨겁고, 춥고 더운 것과 같은 자연적 변화를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참을 수 있어야 하며, 자연 재해를 당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수행, 즉 불법의 수행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열을 얻기 전이나 공부에 힘을 얻기 전에는 수행도 고달프고, 가야 할 길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면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는 그 밑에서 빙글빙글 도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도 많고 막히며 짜증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편안하고 통쾌하며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불법을 배울 때는 대체로 이 법문 저 종파를 기웃거리며 모색합니다. 도대체 어떤 종파가 좋을까? 나는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 어떤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3년 또는 5년 만에 찾아냅니다. 마치 운이 좋은 사람은 좁은 길을 한 구역만 가도 바로 큰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년 혹은 20년, 심지어 한 평생이 걸려도 통로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자신의

선근·복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선근·복덕·인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불·보살께서 반드시 가지^{加持}하십니다. 이것이 곧, “불문에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도를 향하고 진정으로 도를 흠모하는 사람은 불·보살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보호하고 살피시다가 그가 참으로 불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에게 계시를 보이 어 환한 큰길을 찾게 합니다.

그렇다면 불·보살께서 왜 당신은 일깨워 주지 않는 것 일까요? 일깨워 주었지만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불·보살께서 당신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 방법은 그다지 좋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들으니 저 법문이 더 뛰어나다고 했어.’ 그러면서 불·보살에게 고집을 피우고 언쟁을 벌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보살이 당신에게 올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면밀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는 상당한 인내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력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내력은 선정^{禪定} 전의 방편이므로 참지 못한다면 진일보한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인내력은 정진^{精進}의 예비공부이므로 인내력이 있어야 ‘정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4) 정진精進

‘정진’의 정精은 정밀함에 몰두한다는 뜻이고, 진進은 발전을 뜻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불법이 결코 보수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은 매일 앞으로 나아감을 요구하므로 유학에서 말하는,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발전한다.”와 같습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학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불교는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의 6바라밀 가운데 정진이나, 유학에서 말하는 나날이 발전한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으킨 궤변입니다.

발전은 좋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하게 발전하는 정진입니다. 정은 순수하여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현시대 서방세계의 훌륭한 과학자들은 일생동안 아주 특별한 발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정밀함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연구를 거듭하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했기에 마침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간법도 이와 같지만,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한량없는 법문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문마다 다 배우고자 하면 절대 성

취할 수 없습니다. 법문마다 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한 법문을 성취한 후의 일입니다.

한 법문이 성취되면 한량없는 기타의 법문은 얼핏 보고 언뜻 들어도 바로 통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달하면 일체가 통달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통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법문마다 다 배운다 하면 불법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이점은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염불로써 성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수행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 법문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중화민국 초기에 제한 법사諦閑法師에게 제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제자는 나이 40세에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노스님과 비슷한 연배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한 법사는 어릴 때 가정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장사하는 삼촌을 따라 도시에도 갔었으며, 여행도 자주 다닌 편이라 세상 물정에도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라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냄비 때우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냄비 때우는 기술이라 합니까? 구멍

난 냄비를 때워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는 매일 지계를 지고 밖에서 “구멍 난 냄비 때워” 하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생활이 이만 저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고달픔을 깨달아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제한 법사를 찾아가 그가 주석하는 절에서 며칠 지내고는 출가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가, “무엇 때문에 출가하려 하는가?” 하고 묻자, 그는, “생활이 너무 곤궁하기 때문에 출가하려 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장난치지 말고 며칠 쉬었다 장사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노스님은 그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4·50세면 노인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이 대체로 약했습니다. 출가해서 매일 다섯 시간씩 배우는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경문도 읽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에 머문다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냉대할 것이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경전을 배우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글을 알지 못하니 글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해서 어느 해에 불법을 성취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인해 노

스님은 그의 출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장사를 그만두고 기어코 출가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노스님은 그의 고집을 어찌지 못했고, 또 어릴 때 같이 자란 정도 있고 해서 꼭 출가할 마음이 있다면 제시하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네. 이제 자네가 내 스승이 되는데 자네가 하는 말이라면 내 무엇이든 듣고 받아들이겠네.” 하고 약속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좋네. 내 자네 머리를 삭발시켜줍세. 삭발한 뒤에는 계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 절에 머물러서도 안 되네. 53일 동안 계속되는 수계의식을 자네가 견디지 못할 걸세. 녕파^{寧波} 촌마을에는 작은 암자나 낡은 암자가 많으니 아무 암자나 하나 구해 기거하게나.”

그리하여 노스님은 암자 부근에 사는 몇몇 호법 단월^{檀越}에게 그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과 쌀을 매달 보내게 했습니다. 또 그 부근에서 염불하는 노파를 구해 매일 빨래와 점심 저녁 두 끼 공양을 보살펴 주라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 명호^{名號}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자네는 오로지 이 한 구절의 불명

호만 읽게나. 읽다가 지치면 쉬고, 다 쉬었으면 다시 읽게. 이렇게 계속 읽어 가다보면 장래에 반드시 득이 생길 것일세.”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오직 이 여섯 글자의 부처님 명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읽다가 힘들면 쉬고, 쉬고 난 뒤엔 다시 또 읽는 등, 그 절에 머무는 3년 동안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오직 명호만 읽었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절을 떠나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 날 저녁공양을 마친 뒤 노파에게 내일은 공양 준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파는, ‘스님이 3년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다가 오늘 마을에 가서 친지와 친구를 만나니, 아마도 그 친지와 친구가 반가워서 내일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에 공양 준비를 하지 말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노파는 스님이 돌아왔는지 식사대접은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암자로 갔습니다. 그 암자는 아주 넓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암자에 이르러 노파는 큰소리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기에 여기 저기 찾다가 요사채에서 손

에 염주를 들고 창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보고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이 없기에 그 앞으로 다가가 보고, 그제야 이미 열반하신 뒤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스님은 열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서 열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불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신 것입니다.

노파는 놀랐습니다. 한 번도 서서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빨리 호법 단월에게 알렸습니다. 그 호법 단월들도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서 관종사觀宗寺 제한 법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없어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갔다 왔다 죽히 사나흘은 걸립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서서 왕생하고 다시 또 사나흘 서서 뒷일을 처리해줄 스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3년이면 성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정진하십시오.

제한 법사가 이를 보고 매우 찬탄하여 말하기를, “자네는 출가가 헛되지 않았네! 경을 강하고 법을 설하는 법사들이나 명산대찰의 주지 방장스님들도 자네의 성취에 비할 바가 아니네. 장하구려.” 라고 하였습니다.

한 구절 아미타불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지치면 쉬고, 쉬고 난 뒤에 다시 읽어 3년 만에 성공하여 생사를 초탈

했으니, 이같이 뛰어난 성취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처럼 아미타불 한 구절 읽는 것을 정밀함에 몰두한다 하고, 이렇게 물들지 않고 끓이지 않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이생에서 그 무엇을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진해야 합니다.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다라니를 수지하든, 또는 교리를 연구하든 모두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리연구에 대해 말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교리를 연구한다 합시다. 그것이 스스로의 수행도 되고 남의 수행도 도울 수 있다면, 일생동안 오직 한 부의 경전만 배우고, 한 부의 경전만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정밀하게 됩니다. 매번 강연할 때마다 매번의 경지가 있고, 매 번의 발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아미타경》만 강연한다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이 10년간 이 경만을 강의한다면 그가 곧 아미타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보문품^{普門品}〉만 강의하면, 그는 곧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10년 동안 10부의 경을 강의했다 하면, 결국 그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진’의 중요함을 알겠습니까?民国 58년 되는 해에 성운^{星雲} 대사가 나에게 불학원^{佛學院} 강의를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성운 대사에게 건의하기를 학생에게 한 가지 경전만 배우게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에게 권유하기를, “대사님, 한 학생이 한 가지 경전만 배우면 10년 또는 20년 뒤에 가서는 대사님의 불광^{佛光}이 온 지구에 두루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불학원이 아닙니다. 불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일반 대학과 같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하면 반드시 득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왔습니다. 만약 그 때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쯤 100명 가운데 50퍼센트만 잡아도 50명의 전문가가 나와서 홍법^{弘法}했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미타경》을 듣고자 하면 아미타불이 나와 설명하고, 만약 《지장경》을 듣고자 하면 지장보살이 나와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 개개 모두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어 강연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법을 진정으로 널리 두루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지, 이것저것 다 섭렵하되 정통하지 않는 그런 통가^{通家}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통가는 이것저것 다 배우기 때문에 걸

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느 하나에도 정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가지에 정통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모두 저절로 통달하게 됩니다. 비록 다 통달했지만 그래도 오직 그 하나의 법만을 펍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술선수범하고, 여러분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님이든 어떤 보살님이든 이것저것 다 통달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이를 표방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만을 주로 설하십니다.

여러분! 한 법문에 깊이 들어가는 수행을 ‘정진’ 이라 합니다. 정진의 이익과 공덕은 끝도 없고, 한량도 없습니다.

(5) 선정禪定과 반야般若

다섯 번째는 ‘선정’ 인데, 선정은 세간과 출세간의 선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간의 선정은 4선禪과 8정定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다 닦아 이룬다면 장래에 색계천色界天과 무색계천無色界天에 날 수 있습니다.

색계천과 무색계천은 높은 단계의 천상계이므로 반드시 선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출세간의 선정에는 대승과 소승의 구분이 있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닦는 선정을 우리는 출세간의 상상선정上上禪定이라 부릅니다.

전체 불법 수행의 중추는 ‘정_定’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만이 선정을 닦고, 다른 종파는 닦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염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마음 어지럽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음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정입니다.

교종에서는 지관_{止觀}을 닦는데, 지관도 선정입니다. 또 밀교에서는 삼밀상응_{三密相應}을 닦는데, 상응 역시 선정입니다. 이것만 봐도 매 종파 매 법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모두 정을 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바라밀의 ‘선정’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작은 ‘정’도 그 가운데 다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작은 정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것을 뜻하는데, 이 방향과 목표는 결국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소소한 ‘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가 한 연구에 종사하면서 다른 어떤 일에도 영향 받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삼매_{三昧}’입니다. 바로 과학 기술의 삼매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는 염불삼매를 얻은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한 제한 법사의 그 제자처럼 그는 진실로 일심불란(一心不亂)의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욕이 기초가 되어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정진할 수 있으며, 정진을 할 수 있어야 선정을 얻으니, 선정이 모든 수행의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선정’은 육조대사가 《단경(壇經)》에서 우리를 위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선을 닦는 것이 결코 가부좌를 틀고 앉기만(打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부좌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 무량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 외에도 선정을 닦는 방법이 한량없이 많습니다.

육조대사는 《금강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하는 법은 모두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선(禪)’은 밖으로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모든 경계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정(定)’은 안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금강경》에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어떤 태도로 법을 펼치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해 놓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형상을 취하지 않고, 한결같이 동요하지 않는다.”가 그것입니다.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선_禪’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심에 동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러 다닐 때, 선정을 닦는 죽향_{鬻香} 장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재가 어디 가서 그를 만났을까요? 이 장자는 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지도 않았고, 도량에서 선정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갔을까요?

그는 시장으로 간 것입니다. 시장이란 소위 불경에서 말하는 저잣거리_(市塵)입니다. 저잣거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붐비고 시끌벅적거리는 곳입니다. 마치 미국의 대형 몰(mall)과 같은 곳입니다.

장자는 저잣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왜일까요? 선정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저잣거리에서 닦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밖으로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인 선정을 닦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는 선정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가부좌를 틀고 면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향 장자와 같이 격이 높은 선사를 만나도 그를 우습게 봅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단계의 선정을 닦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가부좌를 틀고 면벽하는 선사를 존경합니다. 그런 이를 보면, “이 사람의 공부는 정말 대단해!” 하고 탄성을 연발합니다. 그러나 물을 돌아다니는 공부, 그런 공부를 하는 이의 공력(功力)이 그들보다 몇 배 더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높은 단계의 선정은 행(行)·주(住)·좌(坐)·와(臥)가 항상 선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선정’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째서 우리에게 ‘밖으로 형상을 여의고, 안으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를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일체 유위법(有爲法)은 꿈같고 거품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유위법이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유식(唯識)의 논서를 읽어 보았다면 알아듣기 쉬운 것입니다.

유식의 백법명문(百法明門)에서는 세상의 온갖 현상을 크게 백 가지로 귀납하였는데, 이 백 가지 가운데 8가지가 심법(心法)이고, 51가지가 심소법(心所法), 즉 심리작용에 관한 것이며, 24가지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이고, 11가지가 색법(色法), 즉 물질에 관한 것으로 이 모두 다 유위법이라 합니다.

비단 일체의 모든 물질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과 움직이는 생각, 그리고 망상을 피우는 것조차도 허깨비요 물거품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과 진상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계

에 대해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참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보는 안목이 여래와 같아지고, 그 때의 지견은 바로 불지(佛知)요, 불견(佛見)이며, 정지(正知)고, 정견(正見)이 됩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일상생활 속에 응용되어야 하고, 앞의 다섯 가지 바라밀에 응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살행(보살의 생활)을 배우는 까닭입니다.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일체의 법을 다 깨닫고 통달하여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심전력을 다해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왜 중생을 도와야 할까요? 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동체대비(同體大悲, 무연대자無緣大慈)’에서 연유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불·보살만이 온 허공과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은 자신과 일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일체이기 때문에 중생을 도움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체 가운데 오른손이 가렵다면 왼손이 그것을 긁어주면서 조건을 달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잃어버려 모든 중생이 나와 동일한 체라는 것도, 나와 동일한 진여본성(眞如本性)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미혹하고 전도되며, 의혹을 일으키고 업을 지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미혹을 타파하고 깨달음을 열어서, 의혹과 전도를 모조리 깨트려 사실과 진상 — 모든 중생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 것 — 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같은 자비심과 자애심은 모두 ‘동체대비, 무연대자’ 에서 비롯한 것이라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작위에는 방법과 차례가 있는 것, 그것을 ‘지계’ 라 하고, 인내심과 의지력이 있는 것을 ‘인욕’ 이라 하며, 한 가지에 몰두하여 나태하지 않는 것을 ‘정진’ 이라 하고, 마음에 중심이 서 있어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선정’ 이라 하며, 모든 현상을 꿰뚫어 명료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반야’ 라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6바라밀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보살의 생활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단지 보살계를 받았다 하여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살은 미혹하고 전도된 보살입니다.

다시 말해 6바라밀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설사 보살계를 받았다 하여도 그것은 진흙 보살에 불과합니다.

5) 10원願

3복_福 · 6화_和 · 3학_學 · 6바라밀_{波羅蜜} 모두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불법을 배운다 하고, 보살을 배운다 하며, 조금은 보살을 닮아간다 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단순히 6바라밀만 닦아서는 불과를 이룰 수 없고,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회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의 염불은 공부가 완성될 때까지 할 수 있고, 같은 현상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이치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뀌 말해 6바라밀의 기초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린 법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엄경》 보현보살의 10대원입니다. 이는 불과를 성취케 하는 법문이고, 같은 이치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법문이며, 법신_{法身} 보살의 경지이고, 가장 마지막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만약 6바라밀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10대원의 근처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현행의 특징은 마음의 도량이 마치 허공과 법계처럼 드넓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10대원, 하나 하나의 서원이 모두 구경원만합니다.

보현보살 10대원의 첫 번째는 ‘예경제불_{禮敬諸佛}’입니다.

제불^{諸佛}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화엄경》에 이르기를, “유정 무정이 더불어 일체의 종지^{種智}를 원만히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제불입니다.

‘유정’이란 모든 유정 중생, 즉 모든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무정’이란 식물과 광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불은 일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로 돌리는 것이 보현보살의 마음이라서 일반 다른 보살과는 다릅니다.

불법을 배우는 이들은 부처님을 매우 공경하고 경건하게 받듭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 공경과 경건함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강경^{講經}을 듣고 있을 때,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경을 경청하는 일은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 순간은 부처님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니 그런 공경과 경건을 어떻게 순수하다 하겠습니까?

진실로 지극히 공경한다면 경을 경청하는 일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을 경청하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앉은 자리에서 100만 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지금 있다고 말한다면, 보증컨대 여러분은 일어나 가

버리고는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하고, 보살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마주한 연후에 우리는 우리의 공경과 경건함이 한 톨의 가치도 없고, 조금도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현행^{普賢行}의 공경은 진실합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완전히 부처님과 동일하게 대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이므로 한 중생을 노엽게 하는 것이 한 부처님을 노엽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면 책상이나 의자도 중생이므로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생’은 뜻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은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그에게도 매일 정례삼배^{頂禮三拜}를 해야 합니까? 불법을 이런 식으로 배운다면 그것은 불법의 맹추입니다.

사물을 잘 정돈하고 깨끗이 사용하는 것이 사물에 대한 공경입니다. 즉 책을 책꽂이에 잘 정돈해 놓는 것이 책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전심전력을 다해 그 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일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나 사물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

나 한결같이 공경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큰 행원입니다. 그러므로 6바라밀의 보살행을 확대시키고 원만히 하는 것은 보현행이고, 그것은 가장 원만하고 가장 뛰어난 수행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여래^{稱讚如來}’입니다. 앞서 첫 번째에서는 예경제불^{禮敬諸佛}이라 했는데, 어째서 두 번째는 ‘칭찬제불’이라 하지 않고 ‘칭찬여래’라 합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경제불’은 형상에 입각하여 말한 것입니다. 형상에서 보면 모두 다 ‘공경’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도 공경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도 공경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삿됨과 바름을 나누지 않아서 정법^{正法}도 공경하고 사법^{邪法}도 공경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 없이 다 공경합니다.

‘칭찬여래’는 성품에 입각하여 말한 것입니다. 여기엔 차별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칭찬하고, 선하지 않는 것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즉 공경하되 찬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는 과정에 바로 이 같은 전례가 있습니다. 선재동자는 만나는 매 선지식마다 다 예경하고 찬탄하였으나, 오직 세 사람만은 예경은 하되 찬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승열 바라문^{勝熱婆羅門}은 외도^外

道로서 우치^{愚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재동자는 그를 공경하되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감로화왕^{甘露火王}은 진에^{瞋恚}를 대표합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불과 같아서 조금만 그의 노여움을 사도 그 자리에서 죄를 물었습니다 — 기름 솥에 집어넣고 칼산을 기계 하는 등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 선재는 그를 만나 예경은 하였으나 역시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벌소밀다^{筏蘇蜜多}는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선재는 예경만 하고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탐^貪·진^瞋·치^癡 3독^{三毒}, 즉 3독번뇌를 의미합니다. 선재는 공경하되 찬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찬탄은 덕성을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선했던 것, 반드시 정법인 것만 찬탄합니다. 만약 선법이 아니고 정법이 아니라면 찬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경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은 청정심이고 평등심이므로 설사 타 종교라 하더라도 공경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정법 정교라면 찬탄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정교로서 사람을 도와 천국에 가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경^{究竟}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3악도^{惡道}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찬탄합니다. 만약 사람으로 하여금 죄업을 지어 3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사이비 종교라

면 절대 찬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대원의 두 번째 원과 첫 번째 원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양자 모두 그 마음자리는 절대 청정합니다.

세 번째는 ‘광수공양_{廣修供養}’입니다. 보현행의 특색은 마음의 도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승불법에서 보면 원만한 덕성의 작용입니다.

일반 보살은 비록 견성(見性: 마음을 밝히어 성품을 봄)은 했으나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덕_{性德}의 작용이 부분적입니다. 오직 보현보살의 성덕 작용만이 원만한 것이어서 서원마다 하나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두루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바라밀 보살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양은 일공일체공_{一供一切供}으로서 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곧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 단순히 이미 성불한 여러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 중생, 나아가 무정중생들까지 전부를 뜻합니다 —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인 일즉일체_{一即一切}요, 전체가 곧 하나인 일체즉일_{一切即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방법이고, 우리가 종종 말하는 화엄의 경지입니다. 이 같은 도량이야말로 진정 원만한 것이고, 국한과 분별을 초월한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최고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오직 불법만이 미

혹을 깨트리어 깨달음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만한 자성을 회복하고 증득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공양으로도 이르지 못합니다.

법공양 가운데 ‘가르침을 따라 수행케 하는 공양’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불법은 사도師道이므로 반드시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기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야 비로소 구경원만의 불가사의한 공덕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린 것입니다.

불법에서 어떤 경을 가장 으뜸이겠습니까? 수·당시대 때 중국과 한국, 일본의 고승대덕들이 세존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경을 비교한 결과 《화엄경》이 가장 으뜸인 경이라고 만장일치로 공인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화엄경》의 가르침은 구경원만한 것이고, 이것을 세계가 공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덕들이 다시금 《무량수경》과 《화엄경》을 비교하여 《무량수경》을 가장 으뜸 경으로 하고, 《화엄경》을 그 아래에다 두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옛 대덕이 말하기를, “《화엄경》과 《법화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대 경전이어서 중국에서 이들을 일승원교一乘圓教라 한다. 일승원교에는 오직 이 양대 경전만 포함하고, 이 두 경전 모두 《무량수경》의 안내서로

씨 우리를 《무량수경》으로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수경》이야말로 으뜸 중의 으뜸이다.” 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이 말을 읽고 개인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나로서는 한량없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정토종에 입문한 이유는 《화엄경》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17년 동안 화엄을 강의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강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현행원품〉만 강의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깊이 보현보살의 마지막 10대원이 이끈 극락의 의미를 체험했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정토어로 입문하였습니다. 극락은 《무량수경》의 뛰어난 경지입니다.

여기서 《무량수경》이 전체 화엄의 귀착점이고 화엄의 정수임을 진정으로 체험하고서 그제야 옛 사람의 말이 절대적으로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을 찾아서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런거_{夏蓮居} 거사가 5가지 원역본_{原譯本}을 한데 모아 선서_{善書}로 엮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만하고 수승한 법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회집_{會集} 작업의 위대한 정도로 보아 확실히 하거사는 절대 보통사람이 아닌 불·보살의 화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보살이 이 시대의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한 이

시대 중생의 성불 기원이 완속하였기에 대보살을 세간에 내리시어 우리를 위해 이 위대하고 수승한 경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문을 말법末法 9천년 동안 크게 펼치어 널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북경에 갔을 때, 하거사의 학생인 황념조黃念祖 거사가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만으로 가져온 뒤 확대 현상하여 여러 신도들에게 공양하라고 나눠주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현상하느라 사진이 흐릿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진에서 불가사의한 감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 사진은 병풍을 배경으로 한 하거사의 사진입니다. 그의 머리 위로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광명을 발하고 있고, 그의 신발도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현상하였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부처님께서 정좌해 계시고, 그 아래 연화대도 있습니다. — 우리가 그를 공양하는 것은 이 대보살의 은덕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이같이 완전한 경본을 모아서 우리 수행과 홍법에 의거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무량수경》은 총 48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품이 가장 으뜸일까요? 근원을 끝까지 밝히어 가장 으뜸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선도善導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신 까닭은 오직 미타彌陀의 본원本願을 설하기 위해서다.” 하셨

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량수경》이 모든 경전 가운데 으뜸이고, 일체의 제불 여래께서는 모두 이 법문을 드날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이 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기타 다른 경전들은 이 경을 보조합니다. 《무량수경》 본경 48품 가운데 제6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6품은 아미타불이 설하신 48원이고, 아미타불이 직접 설하신 것을 석가모니불이 대신 전한 것입니다. 이른바 부처님과 부처님간의 도_道는 같은 것이어서 세존이 대신 설하셨다 함은 바로 아미타불이 직접 설하신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 전체 경문을 펼쳐 보면 석가모니불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극락세계의 모습이 결코 48원과 한 구절도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절 구절마다, 글자 글자마다, 모두 48원과 상응합니다. 이 48원 가운데 어느 서원이 가장 으뜸이겠습니까?

예부터 모든 고덕들은 한결같이 제18원이 가장 으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18원은 어떤 서원입니까? 10념왕생원_{十念往生願} — 10념과 1념으로 결정코 왕생하는 — 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불법의 진정한 원만하고 뛰어난 불가사의한 경지가 드러납니다.

오래 전 내가 처음 불법을 수학할 때,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있어 늘 생각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지중한 죄업을 지어 곧장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려 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성불토록 할 능력이 있을까?’

만약 부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온갖 덕과 능력을 두루 다 갖추신 분>이라 찬탄하는 것은 그저 찬탄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 지중한 죄업을 지어 곧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면, 부처님의 지혜와神通은 진실로 원만한 것이므로 오체투지五體投地로써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량수경》의 아미타불 48원을 읽은 뒤로 그제서 부처님의 지혜와 덕능이 진실로 구경원만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음을 알고는 이 같은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확실히 죄과가 지중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성불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에 달렸습니다.

만약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과실은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불·보살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읽은 후에야 부처님께서 온갖 덕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과장도 아니고 헛된 찬탄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묘법^{妙法}을 분명하게 찾아냈습니다. 이 법문을 따라 수행한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제한^{諦閑} 노법사의 그 제자는 아미타불 한 구절을 3년 동안 외우고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는 서서 왕생하였습니다. 그 왕생은 상품상생^{上品上生}으로,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서 갔습니다. 그것도 그의 스승이 와서 뒤처리를 해줄 때까지 3일을 서서 기다리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한 구절의 불명호가 바로 제18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취는 제18원의 인 증입니다. 이 법문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필시 큰 선근^{善根}과 큰 복덕^{福德}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즉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과거생 중에 일찍이 한량없고 다함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믿고 받들어 봉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고 두터운 선근이 없다면 권고하여도 그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이란 명호에는 무량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허공과 법계의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안다면 《무량수경》 전체가 이 명호에 대한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방광불화엄경》을 이해

하고자 한다면, 전체 대장경이 바로 《화엄경》의 주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천천히 체험하다 보면 이 명호의 공덕이 진실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의 명호가 곧 불교 전체이고, 이 한 구절의 명호가 전체 허공과 법계이며, 모든 일체의 법을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 구절의 명호를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읽은 것과 같습니다.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 때, 중국 불교사상 매우 유명한 관정 법사^{灌頂法師}라는 분이 계셨는데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가 《관무량수경직지^{觀無量壽經直指}》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세간 사람이 재난을 소멸하기 위해,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문과 다라니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참법^{鐵法}은 모두 효력이 있다. 만약 지중한 죄업이라면 모든 참법과 경문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작용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때 한 구절 아미타불은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없애 버릴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소멸하고 죄업을 씻는데, 이 한 구절의 불명호가 으뜸가는 공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약사경^{藥師經}》을 읽고, 재앙이 생기면 〈보문품^{普門品}〉을 읽는데, 이는 아미타불 한 구절

의 공덕이 모든 경전과 다라니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석가모니불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허다히 많은 경문과 다라니와 참법을 설하였을까요? 사실인즉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 최상품의 것을 두 번째에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만에서 고궁을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궁박물관에서 가장 진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주_{商周}시대의 청동그릇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단지 낡은 동 조각이고 지저분한 철 조각에 불과해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 또는 청나라 때의 옥그릇을 보십시오. 우아! 정말로 진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옥그릇 따위를 어떻게 낡아빠진 청동이나 쇠 조각(상주시대의 청동그릇)에 견줄 수 있습니까? 그 낡아빠진 청동이나 쇠 조각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식견이나 안목이 좁아서 볼 줄 몰라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용이하게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도 대사가 한 그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잘 알고 또 정토종을 일심으로 닦을 수 있으며 한결같이 널리 펼 수 있다면, 사실적으로 말해서 이는 삼보三寶가 가지加持하심이고, 이 시대 중생의 기원이 성숙한 것입니다.

최근 6, 7년 동안 판본이 각각 다른 《무량수경》을 대략 기백만권 정도 인쇄하여 전 세계에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하니, 이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매우 위안이 되고 법열로 가득 찹니다. 그 동안의 노고가 정말 한 순간에 다 잊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의지해 수행하고 이 법문을 널리 펼칠 수 있다면, 10대원의 세 번째인 ‘광수공양廣修供養’을 원만하게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이 중생을 맞이해 이끄는 방편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는 대자비심의 전개로 중국에는 모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인도합니다.

밀교를 보면 용수보살이 철탑을 열어 밀교의 시조가 되는 금강살타상사金剛薩埵上師를 뵈자, 금강살타상사가 비밀한 법을 용수에게 전해주면서 용수로 하여금 세간에 전하게 했다 합니다. 금강살타는 금강살수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보현보살의 화신으로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다른 한 분, 준제보살准提菩薩은 밀종의 위대한 대덕 고승인데, 그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곧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와 같은 범부의 마음속에야 현교顯敎도 있고 밀교密敎도 있지만, 불·보살은 완전히 원만하고 자재하며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맥락을 알아야 8만 4천 법문이 참으로 다른 길의 같은 목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기 다른 근성의 중생을 제접하기 위해 항상 중생에게 수순하여 중생이 좋아하는 공덕에 맞추고, 중생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무엇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본가本家로 돌아와 모두들 아미타불을 친견한 뒤에야 비로소 원래부터 다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알면 어떤 종파 어떤 법문이라도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수행 방법이 다르다 하나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같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업장참회業障懺悔’입니다. 업장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그것이 곧 업을 지는 것입니다. 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막히고 가려지는데, 무엇을 막고 가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을 막고 가립니다. 우리의 진심 본성 안에는 무량한 지혜와 무진한 덕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지혜와 덕능과 신통이 모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번뇌장(煩惱障)이고 다른 하나는 소지장(所知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장애를 없앨 생각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화엄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여래의 지혜 덕상(德相)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님과 같아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의 병통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단번에 환자에게 병이 생긴 연유를 진단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은 소지장의 근원이고, ‘집착’은 번뇌장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법문이든 방법이든 수단이든 모두 우리의 망상과 집착을 깨트리는 것 외에 불법의 수행이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 2장(障)이 깨트려지면 불성을 보게 되므로 ‘업장참회’는 불법수행에 있어 관건이요, 중추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행법은 모두 업장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업장을 끊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업장이 있으면 수행은 결정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한량없고 끝이 없는 법문 가운데 오직 정토법문만이 특

이합니다. 정토에서는 설사 우리가 지중한 업장을 지었거나, 심지어 5역^逆의 중죄를 지어 아비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다 해도 진정으로 원을 세워 참회하고,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왕생 정토하기를 서원한다면, 업장이 소멸되어 바로 성불을 이루어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설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운^{慈雲} 대사가, “아미타불, 이 한 구절은 모든 경문과 다라니가 소멸시키지 못한 업장을 소멸시킨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함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대경^{大經}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혹자는 업장을 지니고는 왕생할 수 없고, 오직 업장을 소멸시켜야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만에 살던 미국에 살던, 모든 정토의 염불법문을 닦는 이들은 당황하였습니다.

1984년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주선덕^{周宣德} 노거 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스님! 요즘 어떤 이들이 업을 지니고서는 왕생할 수 없고 오직 업장을 소멸해야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한단데, 그리되면 일생 동안 해온 우리 염불은 허탕이 아닙니까? 정토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끝장이 아닙니까? 어쩌면 좋습

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말했습니다.

“거사님! 업을 지니고는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의아해하면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만약 업을 지니고는 왕생하지 못한다면 서방 극락세계에 오직 아미타불 한 사람만 외로이 계실 것인데 그곳에 가서 뭐하시게요.” 하니, 그가 그건 또 무슨 연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거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서방세계에 4토_土 · 3배_輩 · 9품_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거사가 대답하기를,

“그건 있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업을 지니지 않는다면, 이 4토 · 3배 · 9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뜻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4토 · 3배 · 9품은 업을 얼마나 지녔느냐에 따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업을 많이 지녔으면 품계가 조금 낮고, 적게 지녔으면 조금 높습니다.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음보살과 문수보살 그리고 보현보살은 등각보살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등각보살

도 여전히 1품_品의 무명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등각보살도 업을 지니고 간 것입니다. 업을 지니지 않은 이는 오직 아미타부처님뿐입니다. 다시 말해 아미타불 외에 업을 지니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업을 지니고는 왕생하지 못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는 그제야 환히 깨닫고는 웃었습니다. 극락세계는 모두 업을 지닌 채 왕생합니다.

불법은 원만을 말하기 때문에 남과 원한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업장소멸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이겠습니까? 현전에서 보다 많은 업을 소멸하여 조금 덜 지닌다면, 서방 극락세계에서 그 품계가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심가정_{沈家楨} 거사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도 저를 보자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 비로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모른 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진상을 모를 때는 그렇다 해도 이해한 뒤에는 업을 지닌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 아니고, 업을 소멸하는 것도 좋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업장참회입니다. 아미타불 한 구절을 염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장참회입니다. 그러나 염송할 때 마음은 아미타불과 상응해야 하고, 서원 또한 아미타불과 상응해야 하며, 해행_{解行} 역시 아미타불과 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응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량수경》을 염송한다 합시다. 원만하게 《무량수경》의 이치와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염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이 이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 입으로만 염불하고 마음으로는 망상을 피운다면, 그 염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

그러니 부처님 명호를 염송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과 같게 하고, 내 서원을 부처님 서원과 같게 하여 48원을 자신의 본원_{本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염불한다 할 수 있고,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희공덕_{隨喜功德}’입니다. 수희공덕은 질투라 하는 범부의 무거운 번뇌를 다스립니다. 질투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또는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사탕을 줄 때 남이 조금 더 가져가면 그의 마음 속 질투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질투

심은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특별히 이 서원을 세워 우리로 하여금 ‘수희공덕隨喜功德’을 닦게 하십니다.

수희공덕이란, 비단 남을 질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남의 장점이 곧 나의 장점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희隨喜란 단순히 남의 좋은 일과 선행을 보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전심전력을 다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학에서 말하는 “남을 도와 성공시키고, 남의 선행을 이루도록 돕는다.”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도울 수 없다면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도 수희공덕에 속합니다. 수희할 때는 질투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성취하려 하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해 남을 도와야 진정한 수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전력을 다해 도우려 하지 않고, 그저 질투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되었다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수희공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 성취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성취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보다 뛰어난 것을 진심으로 용인하고 좋아해야 수희의 공덕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중국의 교수법^{教授法}은 다음 세대의 성취를 자신보다 뛰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다음 세대가 자신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면, 그 교육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됩니다. 요즘 사람처럼 질투와 장애심이 있어 행여나 남이나보다 더 뛰어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 자신도 한 수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온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법에 인색하다^{〔吝法〕}’ 합니다. 법에 인색하면 우치의 과보를 받고, 재물에 인색하면 빈곤의 과보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보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옛날 중국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를 진현관^{進賢冠}이라 하였는데, 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깊은 교육적 의의를 지닙니다. 그 관모는 2층 계단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의 층은 낮고 뒤의 층은 높습니다. 낮은 층은 자신을 뜻하고, 높은 층은 후학을 뜻합니다.

벼슬하는 이들은 늘 의식적으로 후학이 자신보다 뛰어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덕행에 있어서나, 학문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나아가 생활수준에 있어서나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래야 성공적으로 가르쳤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쓰는 모자는 위가 평평합

니다. 이는 마음이 평등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와 대신이 입는 관복과 쓰는 관모는 모두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뜻하고, 수시로 열심히 하도록 경책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세대입니다. 만약 우리의 덕행과 학문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 세대의 중생을 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받은 교육은 갈수록 과학 기술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회는 나날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보다 더 청정해야 하고, 지혜는 보다 더 높아야 하며, 덕행은 보다 더 두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의 근기와 기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회공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투와 성냄은 우리의 자성을 심하게 상처 입히는 것들로써 반드시 뿌리 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수회공덕’은 바로 이 같은 질투와 성냄을 뿌리 채 뽑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전법륜^{請轉法輪}’입니다.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실로 그 이익을 얻었다면, 무엇으로 스승 — 부처님 — 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불·보살의 형상

을 모셔 놓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올린다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보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형상 앞에 공양 올리는 의례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순간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진정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염원을 실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염원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정법을 듣고, 불법에 의지해 수행하여 하루 빨리 원만하게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염원을 만족시키고, 부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법륜法輪을 굴리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로써 대덕 스님들을 청하여 강경 설법케 하고, 널리 법을 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큰 복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 지역 사회에 법공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을 설하는 이는 스님이지만 예로써 청하는 인연이 없다면 스스로 자진해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법하는 사람의 복덕은 매우 큼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닦는다 함은 자기를 위해서 닦든, 대중을 위해서 닦든, 선망先亡 조상이나 친척을 위해 닦든, 경

을 독송하는 공덕은 큰 것입니다. 단순히 경을 염송하는 것도 공덕이 큰데 하물며 경을 강연하는 공덕이겠습니까? 그 공덕은 더 큼니다.

경을 독송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의 선근만 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스님을 청하여 강해講解를 듣는다면, 경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독송하기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을 강연하는 복덕이 경을 독송하는 복덕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요즘 경을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청하고 싶어도 청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 곳에서 요즘은 스님을 청해 법을 듣기 어렵다는 대중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법사에게 강경講經을 청하고 설법을 청해 듣는 것은 불과입니다. 과가 있으면 반드시 인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이 인을 닦을 생각은 않고 기성既成의 과보만 받으려 하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을 닦는다 함은 여기서는 스님들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법사나 이름 있는 법사가 와서 경을 강연하면 대중들이 모두 좋아서 서로 공양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초학자는 원래 경을 잘 강연하지 못합니다. 그런 초학자가 강연하러 오면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심히 대합니다. 그러면 초학자는 기가 죽어 ‘후! 경을 강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차라리 배우지 말고 부지런히 독송이나 하자.’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을 배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스님 또는 경을 잘 강연하지 못하는 스님일수록 그의 강연에 성원을 보내고 기세를 돋구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치켜 세워주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강경하는 것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면 내가 강연을 꽤잘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를 장려하고 고무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초학의 스님을 가벼이 보지 말고 특히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을 들으러 갈 때는 당당하게 모두 다 가야 합니다. 다 가서 그의 경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찬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찬탄은 비방보다 그 사람을 더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방을 받으면 비록 화는 나지만, 만약 기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발분하여 점점 더 노력하고 정진하여 훌륭하게 성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보게 합니다.

그리되면 비방은 그에게 오히려 증상연^{增上緣}이 된 것입니다. 만약 두둔하고 찬탄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

다. 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찬탄하는 것을 보면 나는 꽤 괜찮은 강경승^{講經僧}인가 보다.’ 그리되면 그의 경지는 겨우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짝 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탄이 사람을 해침이 가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초학자에게는 절대 찬탄해서도 공양해서도 안 됩니다. 공양을 하여 재물이 많아지거나 유명해지면 금방 타락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어 출가한 대부분의 젊은 스님들은 자칫 신도들의 찬탄과 공양에 의해 타락합니다. 누가 그들을 타락시킨 것입니까? 신도들이 그를 타락의 길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가 타락하여 장래에 과보를 받을 때 타락시킨 그 신도 중 어느 누구도 그 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연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공양해야 합니까? 온갖 바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 공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찬탄을 들어도 환희심을 일으키지 않고, 비방을 받아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찬탄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탄이 그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 선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알고,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하여 더 많은 중생이 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양! 즉 시주를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가에서 종종 “쌀 한 톨의 시주가 수미산과 같이 크므로 금생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축생이 되어 갇는다.”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함부로 시주를 받으며, 함부로 그 공양을 누리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복덕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모든 불·보살조차도 이러한 공양을 누리지 않습니다. 만약 공양하는 이가 복보(福報)를 심고자 한 것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고, 받은 뒤에 돌려서 그 공양을 되갚아 줘야 합니다.

근대의 인광(印光) 대사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귀의한 제자는 그 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가 받은 재물공양은 모두 경을 인쇄하는데 쓰여집니다. 소주(蘇州) 홍화사(弘化社)가 바로 그가 직접 운영하는 경을 인쇄하여 유통시키는 기구입니다.

나는 불교에 입문한 뒤로 완전히 인광 법사를 배워 제자가 올린 모든 공양으로 경전을 찍어 대중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설사 내가 도를 깨치지 못하여도 축생이 되어 갇지는 않을 것이다.’ 왜이겠습니까? 경전을 받은 이 모두는 다 나를 위해 빛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시의 복을 다시 보시로 돌리고, 다시 공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게 됩니다. 신도의 공양을 받아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여법如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도의 공양을 혼자서 누린다면 절대 여법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절을 짓고 도량을 세운다 하더라도 절에서 진정으로 법을 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보시하고 공양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공덕이 돌아갑니다. 만약 절에서 법도 펴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다면 이 절은 다툼의 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도량을 지을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병남 선생님이 말하기를, “도량을 지을 때는 사람마다 보살입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도량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량이 완성된 후에는 모두 나찰羅刹로 변해버립니다” 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권력과 이익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도량을 지을 때의 그 초심初心은 벌써 먼 하늘로 던져버렸습니다.

스님에게 시주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일(四事)로써 스님에게 공양하라 가르칩니다. 어떤 네 가지 일일까요?

첫째는 음식입니다. 스님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음식을 공양하여 생명을 유지토록 합니다.

둘째는 의복입니다. 스님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의 옷이 낡았다면(만약 그에게 여벌의 옷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옷을 지어 공양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약품을 공양하고, 잠잘 때 와구臥具를 공양합니다.

요즘 어떤 신도들은 스님에게 집을 시주하고 좋은 것은 모두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하여 생활이 너무 편하다보니 서방 극락세계에 갈 생각이 없어져 — 이곳도 살기가 나쁘지 않는데, 무엇 하러 서방 정토에 갈 것인가? —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는 스님을 양성하거나 불도를 성취시킴에 있어 그 해악害惡이 적지 않습니다.

스님이 출가한다는 것은 집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시주하고 살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유권이 있고 재산이 있게 되면 그 날로 퇴전해 버립니다. 누가 그를 해친 것입니까? 신도가 스님을 해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사실상 불법을 해치고 삼보를 해치는 줄 모르고, 오히려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명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변명해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무슨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불가에서 복을 닦을 때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많은 스님들은 설명하기를 꺼려합니다. 설명하게 되면 신도들이 시주를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여기서 고통 받기 싫으므로 저는 서방 극락세계에 가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주하지 않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주하지 않으면 번거롭지 않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불타교육기금회를 세워 전적으로 불경을 인쇄하여 대중에게 배포해 줍니다. 저는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간거사^{簡居士}에게 원칙을 하나 일러 주었습니다.

“시주가 많으면 경전을 많이 찍고, 시주가 적으면 적게 찍고, 없으면 안 찍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시주가 많으면 많은 대로 마음을 써서 어느 경을 먼저 찍을지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찍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주가 없으면 얼마나 청정하고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시주도 바라지 않고, 도량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이것이 도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청정심을 닦고, 남도 닦도록 도우며, 명문 이양^{名聞利養}을 절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불법입니다.

만약 젊은 스님들의 성취를 위해 그들을 돌본다면 그들은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다면 그들을 해치게 됩니다.

석가모니불께서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등 청정한 고행생활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쓰럽다 하여 모두 집으로 데려 온다면 그들이 어떻게 도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 처해질 때 종종 도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이 세간을 초월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고생하는 것이 싫다면 남이 기꺼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야지 그것을 막아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스님들을 양성하고 성취시켜야 비로소 법을 청할 수 있고, 비로소 법을 펴서 중생을 이롭게 할 훌륭한 스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請佛住世}’입니다. 위의 ‘청전법륜^{請轉法輪}’의 주된 목적은 불교를 널리 펴는 것입니다. — 불교를 널리 두루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 — 우리가 일생 동안 수행에 진정

한 성취를 얻고자 한다면 청전법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일생 동안 경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서 바로 깨우쳐 불과를 증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입멸한 뒤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좋은 스승이 항상 계시어 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훈습薰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만 비로소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중臺中에서 불법을 배울 때, 이병남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에게 묻기를,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해보아라” 하셨습니다.

마치 공자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자신이 지향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래 세계 각지를 다니며 법을 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가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하지만 너는 남을 성취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의 성취는 이룰 수 있겠지만, 남을 성취시키지

는 못한다는 말이다.” 하여 그 까닭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는 겨우 불교를 선전하는 것만 할 수 있겠다.” 하고는 이어서 그가 대중臺中에 30년 살았기 때문에 대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성취를 얻었노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대중에서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만 강연한다면 성취를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해서는 일일폭지 십일한지(一日曝之 十日寒之: 공부나 일에 끈기가 없음을 비유함)가 되기 쉽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인연을 말합니다. — 부처님께서서는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 — 이곳 저곳을 다니며 불법을 선양하는 인연은 알고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연緣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밖으로 다니며 교화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제게 참으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집’ (일반적으로 사람은 집이란 관념을 뿌리 깊게 갖고 있다)이란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매일 여행을 하면서 여관생활을 하니 어디에 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비록 제게 도량은 하나 있지만 1년에 겨우 열흘 정도만 머물고는 다시 떠나니 그 역시 여관과 같습니다.

‘집’이라는 관념이 깨어졌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종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도록 청해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입멸하셨습니다. 불제자 가운데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참된 수행과 학문과 덕행이 있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수행을 지도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를 이곳에 상주^{常住}케 하여 한 지역 대중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를 얻고자 하면 ‘청전법륜’ 외에도 참으로 마음을 일으켜 ‘청불주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경건한 불제자이고, 참으로 불법의 이익을 얻었다 하면, 마땅히 우리가 술선수범하여 대덕 스님들을 우리 지역에 상주하도록 예로써 청하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해 공양해야 합니다. 참된 대덕들은 생활이 모두 간결하여 시봉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다음으로 도량의 장엄^{莊嚴}은 대중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도량을 장엄하지 않으면 대중이 보고 이 도량에 별로 대단한 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량이 휘황찬란하다면 그들은 아마 이곳이 대

단한 곳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환희심과 공경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은 그저 외양만 볼 뿐 그 속내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양도 그럴싸하게 꾸며야 많은 대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참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외양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해야 할 대중은 일반의 대중이므로 도량을 장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도량은 비록 장엄하였다 하나 도량 내에서 기거하는 출가자들은 모두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중국대륙에 가서 보면 보다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대륙의 절은 하나 같이 궁궐 모양에 번쩍 들린 처마와 이중 누각이 장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출가자의 요사채는 매우 누추합니다. 방장이 기거하는 방도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이것을 보면 도량의 장엄이 대중을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모두 세심하게 살펴야 비로소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식으로 청불주세하여 불법으로 하여금 한 곳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10원 가운데 앞의 7개는 보살의 원행(願行)이고, 뒤의 3개는 보살의 회향행(回向行)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원인 ‘상수불학(常隨佛學)’은 우리에게 부처님을 수행의 모

범으로 학습의 전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부처님의 경전은 세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경전을 따라 수행하는 것을 ‘상수불학’ 이라 합니다. 경전은 불법을 수학함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恒順衆生)’ 입니다. 이는 법계의 모든 유정 중생에게 순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효(孝)’ 를 말할 때 반드시 아래에 ‘순(順)’ 을 덧붙입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효가 아닌 것입니다. 불법은 큰 효를 다하고, 중생에게 순응하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순응하는 가운데 기연을 관찰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악을 끊고 선을 닦도록 유도하고, 그를 도와 미혹을 타파하고 깨달음이 열리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절인연(時節因緣)을 알아야 하는데, 시절인연은 언제 어떻게 해야 딱 적당하여 원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혜와 선교(善巧)와 방편이 있어야 항상 순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보개회향(普皆回向)’ 인데, 이는 우리가 닦은 그리고 배운 모든 공덕을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고, 보리에 회향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넓히어 온 허공 법계가 바로 나라는

것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한 구경 대원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정토종을 수학할 때, 의거하는 경전은 정토의 5경 1론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3복·6화·3학·6바라밀·10대원입니다. 모두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여 조금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생 동안 이 원칙을 지키며 수행한다면 결정코 성취를 얻게 되는데, 옛 대덕이 말한, “만인이 닦아 만인이 이룬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의거할 이론적 근거도 있고, 수행할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해야 합니까?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연후에 일심으로 염불하여 정토에 나기를 희구한다면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7. 불법의 수학修學 차제次第

1) 신해행증信解行證

앞에서 불법 수학의 근거와 행문行門의 강령에 대해 소개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불법 수학의 선교善巧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방법이 매우 좋고 매우 교묘한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불법의 진실된 큰 이득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 수학은 크게 4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청량淸涼 대사가 《화엄경》소에서 말한 ‘신信·해解·행行·증證’입니다.

첫째, ‘신信’이란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인연이 완숙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연이라 합니까?

그건 바로 믿을 수 있음을 뜻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인연의 완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은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실 때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제도합니다.

불교는 다른 기타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의 ‘신信’, 즉 믿음은 입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은 뒤에는 반드시 ‘해

’가 필요한데, ‘해’란 이해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해解’는 우주와 인생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해한 뒤에 비로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行’은 ‘해’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이론도 분명치 않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한다 하면, 이런 행은 ‘막무가내로 닦고 엉터리로 수련하는 것’이지 참된 수행은 아닙니다. 참된 ‘행’은 이론적 기초와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行’의 최종 목적은 ‘증證’에 이르는 것입니다. ‘증’ 즉 증득證得이야말로 진정으로 수용受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이라 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자신이 믿는 것, 이해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일상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융화시키는 것을 ‘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량수경》을 두고 말하면,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며,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경인 것입니다. 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증’이라 하고, 진여眞如라 합니다. 불법이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신_信·해_解·행_行·증_證’이라는 수행의 차례를 알아야 합니다. ‘신_信’은 첫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_信’ 즉 믿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다른 점입니다. 신_神을 믿는 것은 종교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지, 바깥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고, 자신이 본래부터 부처였음을 믿는 것이며, 자신이 모든 부처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참된 성품이 비록 물들어 더럽혀졌지만, 그 더럽혀진 것만 없애면 자성을 회복하여 모든 부처와 같아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늘 자신의 죄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번뇌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정코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째서 성취할 수 없습니까?

자신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령 불·보살이 그들의 지혜와神通과 도력으로 그를 돕는다 해도 그는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보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을 돕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불·보살도 어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남_(他)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 이라 함은 불법을 지칭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많은 도리와 방법을 설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이를 믿어서 이 이론을 따라 이 방법대로 수행한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 을 믿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남’ 을 믿어야 합니다. 우익_{藕益} 대사는 이를 다시 ‘이_理’ 를 믿는 것과 ‘사_事’ 를 믿는 것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이’ 는 본질이고, ‘사’ 는 현상입니다. ‘현상’ 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현상’ 은 ‘본질’ 에서 옵니다. ‘본질’ 은 청정심_{淸淨心}이고, 진여_{眞如} 본성이라 일체 만상 모든 것은 ‘본질’ 이 겹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기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고, 그 인과는 연속적이며 순환적인 것입니다. 앞의 한 인이 과를 맺으면, 그 과는 다시 인이 되고, 인은 또 과를 맺습니다. 이처럼 순환하고 중첩되어 다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서부터 신심을 세워 ‘해_解’ 를 구해야 — 모든 것을 통달해 알기를 구하는 것 — 자신의 수행에 의혹이 없어져 비로소 즐겁고 장애가 없습니다.

불법을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을 가까이 모시어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학하는 것이 고금을 통해 변치 않는 배움의

바른 길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불법을 배울 때 먼저 5년간 계를 배웁니다. 이 ‘계_戒’라는 것은 삼장에서 말하는 율장이 아니고, 스승의 훈계를 지키는, 즉 스승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장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전적으로 스승에게 달렸으므로 스승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도_{師道}입니다.

요즘은 사실적으로 말해 이런 사도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스승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제자 또한 진지하게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쇠락은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은 제자를 돌보지도 않고, 그를 성취시키려는 염원과 배려도 없습니다. 5년 동안 계를 배운다는 것이 곧 중국 사람이 말하는 제자가 스승의 법을 잇는 ‘사승_{師承}’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계를 배우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 계·정·혜 3학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승의 책임이고, 이외에 스승이 달리 제자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선종에서의 은사맞이처럼 이 5년 동안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시키든 일단 일이 주어지면 제자는 암전히 착실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란 매우 간단한 수행으로 절대 바꾸지 않고 매

일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미건조함을 느끼고, 도량에서 보낸 5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가 배운 것은 매우 많은데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번뇌가 적어졌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것도 보지 말라, 저것도 보지 말라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만약 이것을 잘 지켜낸다면 이 5년이란 시간은 그야말로 복혜^{福慧}를 동시에 닦는 것이 됩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매일 절에서 일을 하니 보시행을 닦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가를 하였기 때문에 몸에 보시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노동으로 보시바라미를 닦고, 공양행을 닦은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이것도 들어서는 안 된다, 저것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등, 감각기관인 6근을 모두 막아버리고 섭수해 버리니 마음이 정해지고 청정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스승은 제자에게 복을 닦게 하고, 계를 닦게 하며, 정을 닦게 하고, 혜를 닦도록 가르칩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에 흔적이 없을 뿐입니다.

교종에서도 선종과 마찬가지로 이런 교수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화종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일단 천태종

도량에 들어와 스승을 맞이한 후부터 그곳 스승 역시 제자들에게 일상의 일을 시킵니다. 때로는 마당을 쓸게 하고, 때로는 물을 길어오게 하고, 때로는 공양간에서 허드렛일을 거들라 합니다. 그런 뒤에 경을 읽도록 합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데, 스승은 제자에게 《법화경》을 주고 한 5년 읽어 외우게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경전을 내려놓고, 일이 없을 때는 경을 봅니다. 경을 보는 것 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잡일만 합니다.

이렇게 5년을 하다 보면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이는 결코 초학자를 하인처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초학자를 하인으로 대한다 하면, 그것이 계·정·혜를 닦는 참다운 수행이고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5년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복덕과 지혜를 닦게 하고, 그런 뒤에 다시 강원 같은 곳에서 1년, 2년 강경을 듣게 한다면, 그들의 깨달음은 열릴 것이고, 마음을 밝히어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고승전》을 보면 옛사람의 이러한 교수법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제자가 절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불과佛果를 증득케 하고, 깨달음이 열리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한 도량에서 30년, 또는 50년, 심지어 한평

생을 살아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설사 삼장三藏을 모두 다 외울 정도로 읽었다 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겨우 약간의 불교학 상식만을 얻게 됩니다. — 많이 보아서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 그것은 번뇌를 끊거나 혹은 지혜를 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가까이 모시어 스승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처음 그 길을 갈 때는 혹여 무미건조하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때 맛볼 수 있는 환희란 불가사의한 것이고, 그 환희는 진정 얻고자 한 것을 얻은 희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법 수학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넓게 배우고 많이 알려는 것’ 때문입니다. 옛 고덕들은 ‘번뇌 끊기’ 부터 배웁니다. 즉 ‘다함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겠습니다.’ 가 그것입니다.

번뇌가 모두 끊어지는 순간에 정·혜가 완성됩니다. 그런 연후에 다시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른 길이니 단계를 뛰어넘어선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법수학을 할 때 범하는 과실은 바로 번뇌를 먼저 끊지 않고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배우고, 심지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량 대사는 이러한 수학방법을 두고 ‘얕은 있으나 행

이 없는〔有解無行〕’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저 알음알이의 측면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의 진정한 공부에는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번뇌도 끊지 않고, 청정심도 닦지 않은 채 널리 배우고 많이 배우면 오히려 샅된 견해를 증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는 것은 모두 샅된 지견^{知見}이고 바른 지견이 아니라 하는데, 이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2) 계정혜제수^{戒定慧齊修}

그렇다면 불법은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까요? 늘 한 권의 경전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끊이지 않았고, 복혜^{福慧}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샅된 지견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늘 이 한 권의 경전만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을 읽는 것은 선종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밀종의 삼밀가지^{三密加持}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두는 다만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경을 읽는 이유는 계·정·혜 3학을 한 번에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계율이란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을 읽을 때는 마음 속에 허튼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악행’ 은 ‘짓지 않음’ 이 됩니다.

또한 경전은 부처님의 진여 법성에서 흘러나온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경은 바로 ‘모든 선행 받들어 행함’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경할 때는 계율이 원만해지므로 하나 하나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을 읽을 때는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이 정을 닦는 것입니다. 또 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읽지 않고, 빠트림 없이 읽고, 또렷이 분명하게 읽은 것이 바로 혜, 즉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을 독송하는 것은 ‘계·정·혜’ 3학의 겸수(兼修)입니다.

만약 경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경을 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연구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건 경전을 세간 일반 서적과 같이 여기는 것이 되므로 계·정·혜 3학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경을 수행의 기초, 수행의 근본이라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수행에 입문하여 경전을 그 수행 방법으로 한다면 여기 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하루에 한 시간을 독송하면 한

시간을 수행한 것이 되고, 두 시간을 독송하면 두 시간을 수행한 것이 됩니다. 물론 수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제가 대만과 달라스 도량에 있을 때 적지 않은 법우들이 《무량수경》을 하루에 10번씩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2천 번은 족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이 매우 익어 한 번 읽는데 30분 내지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처럼 하루에 10번씩 읽는다 치면 적어도 하루에 5~6시간은 계·정·혜를 닦은 것입니다.

몇 년을 매일 이처럼 긴 시간을 수행하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다시 경을 보면 눈에서 광명이 발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한 번만 봐도 뜻이 모두 명료해져 완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경은 부처님의 청정심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게 되니, 어떻게 그 경문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청정한데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고, 산란한 마음으로는 청정한 마음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명(共鳴)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참으로 선지식, 또는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이라면, 그가

결코 나를 속이지 않고, 그가 가르치는 방법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토를 닦는다면 먼저 《무량수경》을 선택하고, 천태를 닦는다면 《법화경》을, 화엄을 닦는다면 《화엄경》을, 어떤 종 어떤 파를 닦든 그 종의 가장 주요한 소의경所依經을 착실히 한 권 선택하여 한 문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먼저 본종의 경전을 착실히 5년을 읽어야 합니다.

바뀌 말하면 5년 안에 반드시 번뇌를 없애어 청정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첫 단계입니다.

사실상 5년 동안 청정심을 닦는 일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자리가 덜 더럽혀지고 그 정도도 낮았기 때문에 5년이면 거의 깨끗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은 그 더럽혀진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은 열 몇 살이 되어야 더럽혀져 웅고 그름, 남과 나, 그리고 탐貪·진瞋·치癡·만慢이 생기는데, 요즘 아이는 두세 살만 되어도 탐·진·치·만慢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 온 것일까요?

TV에서 배워 온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TV를 보면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은 사라지니 현대인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열댓 살 되어서야 겨우 철이 났습

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무척 겁니다. 어릴 때는 세상 모든 고락이 저와는 상관없고 그저 노는 것밖에 모를 만큼 철부지였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되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 사람 노릇하기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자리가 청정해지고, 지혜가 열릴 때까지 수행한 뒤, 그때부터 제방을 두루 다니며 배워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 다 봐도 되고, 들어도 되며, 접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자리가 청정해지고 고요해졌으므로 외부 환경에 의해 갈팡질팡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이 섰기 때문에 많이 들을수록 많이 볼수록 점점 더 지혜가 증장되고, 정의 힘이 증장됩니다.

정·혜는 어떻게 증장되는 것입니까? 외부 경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면 정의 힘이 증장되었다 하고, 모든 것이 뚜렷하고 선명한 것은 지혜가 증장되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두루 배우고 다니면 정·혜는 더욱 더 성장합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교수법입니다. 즉 먼저 계·정·혜와 같은 근본지_{根本智}를 닦은 연후에 참학_{參學}하여 원만한 후득지_{后得智}를 성취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반야경》에 이르기를, “반야는 앎이 없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앎이 없음’을 닦는데, 5년 동안 계를 닦는 것은 바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사회와 접촉하면 무엇이든 다 알게 됩니다. —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 참된 수행은 바로 이와 같은 차례와 방법으로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옛 대덕들은 비단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규칙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유학의 기초를 수학의 기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불교가 소승을 버리고, 유학으로 소승을 대신케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자의 덕행을 불교 입문의 기초로 하였는데, 이른바 논어에서 말하는 5덕^德, — 온후(溫厚) · 선량(善良) · 공신(恭愼) · 절검(節儉) · 인양(忍讓) — 즉 온^溫 · 양^良 · 공^恭 · 검^儉 · 양^讓입니다.

이 다섯 가지 덕목 위에 다시 3복 · 6화 · 3학 · 6바라밀 · 10대원을 세워 진정한 구경원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 대승불법 안에서 어떤 종파 어떤 법문을 불문하고, 또는 선종이든 교종이든 불문하고, 또는 현교든 밀교든 불문하고, 모두 이 기초를 떠나지 않고,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바뀌 말해 이 구조를 따라 차례대로 수행한다면 어떤 종파를 닦든지 간에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

로 5덕과 6화의 기초 위에 불법을 세운 것이 중국 대승불교의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면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겨우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수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시 그의 성문제자 —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아직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여 독립할 수 없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회상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미 성취를 이룬 이를 보살이라 하는데, 보살은 부처님을 도와 교화를 펴니다 — 로 하여금 부처님을 대신해 홍법케 합니다.(각 지방에 가서 도량을 세우고, 강경설법을 하며, 불법을 널리 드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부처님 회상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여름방학처럼 학생은 방학하였지만 선생님은 방학 없이 연수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의 회상으로 돌아와 다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 3개월을 ‘하안거^{夏安居}’라 합니다. 하안거에 들어간다는 것은 서쪽으로 중생을 제도하러 나간 제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부처님의 강경과 설법을 듣게 하여 그들 자신의 정혜^{定慧}와 덕학^{德學}이 더욱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학상의 여러 상황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서로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중국 역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하안거식의 연수교육은 칭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

니다. 다만 몇몇 곳에서 여전히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지만 이미 그 정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예를 들면 사원이나 재가단체에서 주최하는 하령영_{夏令營}·동령영_{冬令營}·불학강좌·타불칠_{打佛七}·타선칠_{打禪七}과 같은 유사한 연수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널리 제창할 만합니다.

번뇌를 끊고, 계·정·혜를 닦고, 생사를 끝내는 일은 이 세간에서는 확실히 보기 힘들고, 설사 말해주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매우 뛰어나고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사람들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하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무한한 것이니 사실상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몇 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 요즘의 교수법을 보십시오. 양적으로 말하면 겨우 한 사람에게 몇 개 정도의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도록 돕고, 약간의 명성과 공양을 얻는 것이 고작입니다.

번뇌를 끊는다든가 생사를 끝낸다든가 3계를 벗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8. 불법佛法의 예술교육

다음으로 불법의 예술교육에 대해 논해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 열국列國을 두루 다녔던 공자처럼 부처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여러 곳을 다니며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계실 때, 부처님의 단체는 어느 지방에 요청이 있으면 곧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동안 설법을 하신 뒤, 다른 지방의 요청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부처님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1,250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갑니다. 그래서 초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재력과 물질적 힘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불법이 중국으로 전해온 뒤부터 사원과 총림이 생기어 비로소 고정된 거주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중국의 제왕이 중국으로 모셔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회의 대중들은 탁발하는 승려를 매우 존경하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양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탁발을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구걸행위’로 여겼습니다.

승려는 황제가 모셔 온 손님이고, 황제가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구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래서 불법이 중국으로 전래된 뒤 중국화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탁발하지 않고, 아란야(阿蘭若)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 사원을 지어 그들을 주석케 하고 또한 궁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승려를 공양케 하여서 더 이상 승려로 하여금 생활을 위해 고생하지 않게 했습니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사원은 총림^{叢林}으로 발전하였고, 백장^{百丈} 대사와 마조^{馬祖} 대사(마조묘(媽祖廟)의 마조가 아닙니다)가 총림의 제도를 제창하였습니다. 마조 대사는 선종의 도일 선사^{道一禪師}로서, 속성이 마씨이고, 선종 제8대 조사이자 육조 혜능의 손제자입니다.

“마조가 총림을 세우고, 백장이 청규를 제정했다.” 라는 글귀에서 보듯이 총림의 모든 규칙은 백장 대사가 초고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총림은 이 두 사람의 손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총림이란 무엇입니까? 규모도 있고, 제도도 있는 즉 불교교육을 제도화한 불교대학입니다. 아무런 규모나 제도 없이 개인적으로 학문을 전승하는 옛날 서당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마조 선사 이후 중국의 불교는 제도화되어 큰 규모의 학교로 변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총림은 전문대학이 되었는데, 이는 중국불교의 특색입니다. 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총림의 교리 내용·강연 방식·교재·교수법, 어느 하나 최고의 예

술이 아닌 게 없습니다. 경전·음악·조각·불상·건축·공양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총림교육은 대단히 완벽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이 많고 완벽한 교육체계가 모두 유실되어 전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불문에서 행하는 범패^{梵唄}는 이미 변질이 되어 옛날에 비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교는 참으로 인재가 부족합니다.

비단 예술적 인재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 예술인재는 보다 깊은 불법의 수양이 있어야 그가 표현하는 것이 살아 움직이고 진정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마치 세간의 예술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철학적 내용을 충실히 담지 않으면, 그가 창의한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림 한 폭, 시 한 수 혹은 곡조 한 자락이라도 반드시 고도의 철학적 수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비로소 진^眞·선^善·미^美·혜^慧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불교범패의 가사는 모두 옛사람이 지은 것이라 그 마음의 경지가 모두 높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는 그 가락도 청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속

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찬송가처럼 사람을 감동시키지도 못합니다. 이는 불교의 쇠락입니다.

불교인재의 부족은 불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 진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회화나 조각예술만 보더라도, 여러분! 중국의 돈황벽화 敦煌壁畵와 운강석굴 雲崗石窟 그리고 최근 북경 근교 방산 房山에서 발견한 석경 石經을 보았습니까? 만약 보았다면 중국불교 예술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석경은 중국 불교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대혁명 이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장경보다 그 내용이 더 풍부합니다. 후기에 번역된 경전 중 일부는 대장경에 채 입장 入藏하지 못하였는데, 석경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석경은 큰 조각의 두꺼운 석판을 이용해 양면으로 조각하였습니다. 매 글자의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이고, 글자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전체 석경은 무려 400년간 조각하였다 하는데, 이런 공사는 사실상 만리장성에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가장 완벽한 것으로 모두 몇 만 개의 석판이 7개의 동굴에 나누어 수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다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2개의 동굴만 개방하여 관람케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고 그

장엄함에 감탄해 마지 않았고, 옛사람들의 마음씀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교경전이 유실될 것을 걱정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불경을 후대에 남기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후손들에게 선조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불교사원의 체계는 마치 학교와 박물관을 결합해 놓은 결합체 같습니다. 요즘은 박물관과 학교가 분리되었지만, 사원은 박물관과 학교를 결합시켜 놓은 특수한 구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모든 예술은 모두 고도의 교학적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순한 예술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심오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고, 고도의 영성지혜를 갖고 있어 일반 범부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합니다.

불·보살의 상_像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교에 이만큼 많은 신상_{神像}이 있음을 보고 불교를 저급종교 또는 범신교로 봅니다. 그들은 고급 종교라면 유일신 — 유일한 절대신 —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공양하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신이 아니고, 법문을 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간에는 한량없이 많은 현상이 있고, 다함없이 많은 이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다함없는 것들을 한 개의 형상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표현하기 어렵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많은 예술품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불교 교육에 있어서 불교예술이 가지는 특별한 의도를 이해한다면 불법을 신학^{神學}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참으로 납득이 간다면 탄복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성덕^{性德}을 의미하고, 일체의 모든 보살은 우리의 수덕^{修德}을 의미합니다. 비록 성덕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지만 닦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서 수용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덕의 현현^{顯顯}은 수덕에 의지합니다.

보살은 ‘닦음’을 뜻하고, 부처님은 ‘본성^{本性}’을 뜻합니다. 그런 까닭에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1불과 2보살을 공양하는데, 불은 진여의 ‘본성’을 뜻하고, 보살은 ‘본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본성은 공^空이자 체^體이고, 작용의 일어남은 유^有입니다.

이른바 체^體·상^相·용^用 가운데 ‘체’는 공적인 것이나, ‘체’에서 ‘상’이 드러나고, ‘상’이 드러난다 함이 곧 작용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상’과 ‘용’을 의미하고, 부처님은 ‘본성’을 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습니다. ‘본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일으키는 작용을 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설법을 합니다.

‘상’에서 보든, ‘본체’에서 보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체’에서 보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본체는 할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른바 “입만 열어도 틀리고, 생각만 움직여도 어긋난다.” 하는 것이 ‘본체’ 상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체’를 의미하고 한 분만 공양합니다. 그렇다면 ‘용’은 어찌하여 두 분을 공양하는 것일까요? 한량없고 다함없는 ‘상·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얕이고, 둘째는 행입니다. 이른바 해_解·행_行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양명_{王陽明}이 주장하는 지행합일_{知行合一}의 학설이 바로 불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해행상응_{解行相應}’을 말합니다. 왕양명은 어찌만 ‘지행합일_{知行合一}’로 바뀌어서 자신의 철학사상을 폈는데, 사실 그의 철학은 불법을 환골탈태_{換骨奪胎}하여 얻은 것입니다.

‘해_解·행_行’은 바로 ‘이_理·사_事’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양하는 석가모니불은 ‘본체’를 뜻하고, 그 양변에는 두 분의 나한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협시_{脇侍}로 모셔집니다. 아난존자는 다문제일_{多聞第一}이라 ‘해_解’를 뜻하고, 지혜를 뜻합니다. 가섭존자는 고행제일_{苦行第一}이라 ‘행_行’을 뜻합니다.

또 석가모니불을 공양할 때 양변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보살_{脇侍菩薩}로 모시는데, 문수보살은 지혜제일이라

‘해’를 뜻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뜻합니다. 바뀌 말해 얼마나 많은 보살이 있든 간에 결국은 ‘해·행’ 두 가지 분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을 공양합니다. 그가 바로 ‘본체’입니다. 관음보살은 대자대비하여 ‘행’을 의미하고, 대세지보살은 지혜제일이라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양하는 불상마다 다 제각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반드시 1불 2보살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절대 2불 3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양하는 때 부처님마다 성덕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 부분마다 구경 원만합니다. 그런 까닭에 ‘일즉일체—卽一切, 일체즉일—一切卽—’이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명호상에서 보면 명호 그 자체가 바로 덕을 나타냅니다.

‘석가’는 인자하다는 뜻이므로 남을 대할 때는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니’는 청정함을 의미하는데, 고요하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는 자비롭게, 자신은 청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성덕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불_{阿彌陀佛}은 범어를 음사한 것으로 ‘아’는 ‘무_無’

라 번역하고, ‘미타’ 는 ‘량’ 이라 번역합니다. 아미타는 무량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무량하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무량하여 무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무량하고, 신통이 무량하고, 도력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무량한 무량함 가운데 수명 무량이 가장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없으면 모든 무량함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명이 무량하다면 일체의 모든 무량이 비로소 진정한 수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량함 가운데 무량함을 어찌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무량함은 바로 자신의 자성이요, 진여본성입니다.

육조가 말하기를, “어느 때의 자성이 본래 갖춰졌으며 (한 가지도 결여되지 않고), 어느 때의 자성이 만법을 생기할 수 있는가?(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나타난 것임)” 하였습니 다. 이것이 바로 무량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 무량을 얻습니까?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 두 분을 따라 수행하면 됩니다. 관음보살은 우리에게 대자대비를 가르치고, 대세지보살은 우리에게 일심염불을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에게, “청정한 생각이 이어지면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절로 마음이 열린다.” 고 가르칩니다. — 불명호^{佛名號} 한 구절이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불명호 한 구

절뿐이라 하면 그건 소승법입니다. 그 위에 관음^{觀音}의 행이 덧붙여져야 대승이 됩니다. 관음행^{觀音行}은 바로 대자대비행입니다.

남을 대할 때는 대자대비로써 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불명호 한 구절을 전심전력을 다해 외우면, 반드시 ‘무량수^{無量壽}’를 얻게 되고, 반드시 성덕이 개발되며, 무량무변한 공덕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공양할 때 각각의 부처님과 각각의 보살은 불교의 수행방법을 의미하고, 우주간의 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은 바깥에서 볼 때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안을 보면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은 진^眞·속^俗, 2제^諦를 뜻하고, 안은 진·속이 둘이 아니고 만법이 일여^{一如}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외양적으로는 차별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는 하나임을 뜻합니다.

불교의 전형적인 건축 구조를 보면, 산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천왕전^{天王殿}입니다. 천왕전 안에는 사대천왕이 모셔져 있고, 그 가운데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러한 봉불 형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문에 들어서서 먼저 미륵불을 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미륵불상은 대체로 포대화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만연에 웃음을 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불법을 배우러 왔느냐? 그럼 먼저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지 성질 부려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성질을 부리면 불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즐겁고 유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보십시오. 그의 배가 아주 큼니다. 크다는 것은 사사건건 남과 다투지 않고 무엇이든 다 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는 것은 평등심과 희열상입니다. —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물을 마주하든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평온하여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불가에 들어 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륵부처님께서 산문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당신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불가에 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산문을 마주하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미륵부처님의 양옆은 호법신으로 동·서·남·북 사대 천왕이 서 있는데, 동방대왕은 책임감을 상징하고 지국대왕(持國大王)이라 부릅니다. 지(持)는 유지(維持)이고, 국(國)은 국가입니다. 한 가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를 지가(持家)라 하고, 한 회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를 사장 또는 회장이라 합니다. 한 나라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를 제왕이나 총통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반드시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각기 직분이 있습니다. 그들 각각이 자신 본분의 일을 전력을 다해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그 사회는 화합이 되고,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지국대왕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남방대왕은 증장대왕增長大王이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직분 내의 일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날마다 발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퇴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증장대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덕행의 증장, 품행의 증장, 나아가 학문·지혜·재주·능력의 증장입니다.

보십시오! 불교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진실로 발전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시대의 첨단에서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를 따라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국과 증장을 원만하게 하겠습니까? 뒤의 두 분 대왕이 우리에게 그 실천 방법을 일러줍니다.

서방의 광목대왕廣目大王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보게 하고, 북방의 다문대왕多聞大王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 길을 두루 다닌다.” 입니다.

독서는 가장 근본적인 학문을 성취하는 것이고, 만리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광·여행·답사와 같이 여기 저기 다니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남의 장점을 보면 받아들이고, 남의 허물을 보면 경각심을 내어 개선합니다.

만약, “남의 허물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는 마음 자세로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한다면,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호법護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불상이 그곳에 모셔진 것은 우리에게 강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곧 알아차리게 되고, 또한 시시각각 자신을 일깨워 이러한 이상과 목표를 향해 정진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불교가 어떻게 미신이 되고,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

사대천왕의 수중에 모두 도구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 도구도 법을 상징합니다. 동방 지국천왕 손에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는 매사를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중도中道’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마치 비파를 타듯 줄이 너무 느슨하면 탈 수 없고,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학에서 중용을 말하듯 불가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 하되 딱 좋은 선이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아야 원만합니다.

남방 증장천왕은 나날이 새롭고 발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지혜의 검이라는 칼이 쥐여 있습니다. 즉 ‘잘 드는 칼로 얽힌 마_麻를 자르고, 지혜의 검으로 번뇌를 끊는다.’의 뜻입니다.

서방 광목대왕의 몸에 용이 한 마리 감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뱀이 감겨져 있기도 한데 사실 뱀이나 용이나 상징하는 것은 같습니다. 바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령스러운 용은 머리는 보이되 꼬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현실세계의 사회·모든 사람·모든 현상·모든 사물의 무상한 변화와 다양한 변화를 만드시 잘 보아야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방 다문천왕은 손에 우산을 쥐고 있습니다. 우산은 가리개(遮蓋)이므로 변화무쌍하는 세계의 갖가지 오염을 막아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널리 배우고 익히되 동시에 자신의 청정심이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현실사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지혜와 능력이

생기어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현상에 대처하든 불문하고…….) 천왕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신명으로 받들어 향을 사르고 공양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기약해 주지 않습니다. 천왕전을 그렇게 안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원 내의 그 무엇이라도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공양구^{供養具}라 할지라도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앞에 올리는 한 그릇의 정화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법을 상징합니다. 물이란 청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물과 같이 청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릇에 담긴 물은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물과 같이 평온하고 고요해야 합니다. 이 한 그릇의 정화수를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저 물과 같이 청정하고 평온해야 됨을 상기합니다. 정화수는 바로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꽃은 ‘인^因’을 의미합니다. 꽃이 핀 뒤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꽃은 6도만행^{道萬行}을 뜻합니다. 과일공양도 이와 같습니다. 과일공양을 하는 것은 불·보

살림 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_果’를 볼 때마다 ‘어떤 과를 받고자 하면 바로 어떤
인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불가의 모든 시설과 공양은 우리를 일깨우고 교
육시켜 줍니다. 그리고 ‘등_燈’은 지혜와 광명을 상징하고,
‘향_香’은 계정의 참 향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가의 모든 것은 법을 상징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교육적 의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향을 피우는지, 왜 이 같은 공
양물을 올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것이 마치 ‘미신’ 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 사회 일부에서는 불법 배우는 사람을 ‘미신’을 믿
는 사람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불법
을 배우는 사람을 전부 다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그 사람
은 잘못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을 배우는 이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 알아서 남에게 잘 설명해준다면, 그들도
아마 불법을 배우려 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불법을 중국대륙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불법
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은 진실된 지혜와 한량없는 큰 깨달음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도와 참된 이익과 진정한 즐거움, 즉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다함없는 자비심으로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를 막론하고 또는 종파나 법문을 불문하고, 전체 불교사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다 이 같은 방법을 따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성과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르러 불법이 쇠퇴하고 방향을 잃어 참된 불법을 알지 못하여 전에 비해 성과가 줄어들고 암담하기 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말법시대에 사는 중생은 업장이 지중하기 때문에 염불수행이 그들에게 가장 뛰어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염불수행의 뛰어남은 간단하고 용이하며 긴 시간과 별다른 의식이 필요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 법문으로 성취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만이란 곳은 좁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혀 과장됨 없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보건대, 지난

40년 동안 진실로 염불수행에 의지하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은 적어도 5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것은 성불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였다니, 대만은 참으로 보배로운 섬입니다.

중국대륙의 관율 법사^{寬律法師}가 쓴 《근대왕생전^{近代往生傳}》에 의하면 대륙에서 염불왕생한 이는 대략 100명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정토종의 뛰어난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토종에서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다시 특별히 여러 법우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5경 1론은 정토종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경전에 분명히, “보리심을 일으키고, 한결같이 전념^{專念}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에 근거하고 방법을 확실히 알았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과덕의 수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명^{馬鳴} 보살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말하기를, “본각^{本覺}은 본래 있는 것이고, 불각^{不覺}은 본래 없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미혹·삿됨·염오’는 악업이고, 본래 없는 것입니다. ‘불성정지^{佛性正知}’는 최상의 선이고, 본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있는 것은 당연히 회복할 수 있고, 본래 없는 것은 당연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업’은 미혹이고 샅됨이며, 본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제거할 수 있고, ‘불도’는 본래 있는 것이라 반드시 증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 이론을 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업장이 확실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아미타불’로 마음속의 구습과 악습을 쓸어버립니다. 그런 연후에 고행으로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다시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염불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염불삼매를 (즉 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것) 얻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몸과 마음이 자재하고 온갖 경계가 여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눈앞에서 공부가 성취된 경우입니다.

서방세계의 왕생은 사실상 자재自在 왕생입니다. 무엇을 자재라 합니까? 가고 싶은 날짜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간에 몇 년 더 머물고 싶으면 더 머물러도 상관없는 것을 자재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얻을 수 없을까요? 우리로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염불하여야 공부가 충분해졌다 할 수 있습니

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로부터 내려 온 경험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3년이면 충분히 자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 세간에 머문다 하더라도 겁날 것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설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원자폭탄이 머리 위에서 폭발한다 해도 여러분은 웃으면서, “나는 이제 서방극락세계로 간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도 받지 않고, 두려움도 없는 자재를 진실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에서 말하는, ‘중생에게 진실한 이익의 혜택을 준다.’입니다.

구양경무(歐陽竟無) 대사가 말하기를, “불법이란 방편이 많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음을 마땅히 알라!” 하였습니다. 정면의 가르침이 이익이 되면 정면으로 가르치고, 뒷면의 가르침이 좋으면 뒷면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법의 교수방법은 변화가 다양합니다. 즉 직설법(正面)을 써도 되고, 방편(反面)을 써도 되며, 순조로운 처지를 이용해도 되고,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인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을 도와 미혹을 깨고 깨달음을 열며,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질과 욕설로 이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

다면 매질과 욕설 또한 교수방법이 됩니다.

이른바 선종에서의 봉^棒과 할^喝, 그 또한 진정한 자비입
니다. 반대로 모든 허망한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미혹과
집착은 불법이 아니니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을 배우는 모든 이들은 미혹과 집착을
여의어서 ‘미혹을 깨고 깨달음을 열며,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는다.’ 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희
망합니다.

1991년 12월

석정공법사 마이애미에서 강연하다

〈부록〉

달라스 불칠강화(佛七講話)

경에 이르기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행운으로 사람 몸을 받았으며, 어떤 행운으로 큰 법을 만났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행운인 것은 마침내 무상지원지돈無上至圓至頓의 정종묘법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네 생명력이 충만하고, 청정한 고요를 얻어 안락한 것은 모두 정종淨宗에서 얻어진 것이니, 실로 이 몸에 이른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정공淨空은 불법을 배운 이래, 위로 사은四恩을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일생 동안 자신의 진실한 수용을 전심전력 다해 모든 중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발심하여 경전을 두루 유통시키는 까닭입니다. 말년에 이르러 이러한 마음이 더욱 절실하고 급박하였기에 오직 정종수행을 닦고, 오직 정종의 경론을 유통시키는 것을 저의 임무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량을 새 건물로 옮겨온 날이라 대충 규모를 갖추고 불칠법회佛七法會를 열었습니다. 부디 한영韓瑛 회장님 인솔하에 활기차게 번창하여 이로부터 부처님의 은혜가 두루 베풀어지고, 항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천龍天이 칭송하며, 진실로 모든 사람이 끝없이 예찬할 것입니다.

올 3월경에 화장도서관華藏圖書館 조직위원단이 견학차 중국 대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지극히 평이한 어구로 대륙 동

포들에게 간단히 불법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교는 불타가 온 세상 중생을 위해 설하신 지선원만至善圓滿한 가르침이다.
2. 석가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경의 주된 내용은 우주와 인생의 참 모습에 대한 해설이다. 인생은 곧 자신이요, 우주는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다.
3. 깨달은 이를 부처 또는 보살이라 하고, 깨닫지 못한 이를 범부라 한다.
4. 수행이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과 언설과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다.
5. 불교수행의 요점은 ‘깨달음·올바름·청정’이다. 즉 깨달아서 미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살되 지 않으며,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계·정·혜를 의지하여 이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6. 배움의 기초는 3복이고,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6화에 의지하며, 처세함에 있어서는 6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보현의 10대원을 따르고, 마음을 정토에 귀의한다면 부처님 교화의 능事能事를 마감할 수 있다.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이르시는 곳(所行處: 불타가 가르침을 펼 지역을 가리킴)마다, 그 곳이 한 나라의 수도이건 촌락이건 그의 교화를 입지 않은 곳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은 곳은 온 천하가 화순하고, 기후가 청명하며, 비바람이 때를 맞추기 때문에 재해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나라는 풍요롭고 백성은 안락하니 병

기가 소용없으며, 덕德을 숭상하고 인仁을 세우며, 온 힘을 다해 예의와 겸양을 닦기 때문에 나라에 도적이 없어 원망함이 없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도 없고, 각자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 경문은 불타 교육의 진실한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매광희梅光羲 거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불법을 펴고자 하면 반드시 정토법문을 제창해야 하고, 정토법문을 펴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대경을 널리 유통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지송持誦할 수 있다면, 인과가 자명해지고 몸과 마음이 자연 청정해지므로 —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 — 시간이 지나면 평온함은 절로 이른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너무 혼란하여 사람마다 한결같이 이 세계가 잘 다스려지기를 염원합니다. 전 세계를 두루 구하고, 화급한 겁난劫難을 방지하며, 일그러지고 어긋난 것을 형체 없이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며,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적극적으로 대각교육大覺教育을 권장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동서고금 성현들의 보배로운 가르침에 귀의하여 동일한 인식[共識]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인식을 부처님께서는 ‘견화동해見和同解·계화동수戒和同修’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서적들을 모아 그 중에서 격언을 고르고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대장경,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 회요會要, 사감史鑑 등과 같

은 서적에서 정수만을 골라내어 편집하여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면, 옛 성현이 교화를 드리운 노파심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채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하고 쉽고 짧은 어구를 선택하되 긴 장문은 선택하지 않는다.

2. 절실하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취하되 실질적이지 못한 현담玄談은 선택하지 않는다.

3. 반드시 자신의 수양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의 성패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 사회가 화합하고, 나라가 부강하며, 세계가 화평하고, 각 민족·각 학파·각 종교가 두루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을 제반 목표로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

4. 분류하고 회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 각지에 유통시킨다. 그리하여 중국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고 대동大同세계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내 개인의 이상이요, 목표인 것이다.

5. 기타 서양학술의 정화, 예를 들면 이슬람성전, 신·구약성서, 금훈격언金訓格言과 같은 것을 전 세계에 두루 유통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동일한 인식과 공존, 그리고 함께 하는 번영, 화목한 대동세계, 서로 돕고 돕는 원만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

정종학회의 범우 여러분!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수순하고, 더 이상 의혹 없는 굳은 의지로 생을 구하십시오. 여기 이

새 건물이 신대륙 전수전홍專修專弘의 정종도량이 되어 인조印祖의 규칙을 본받고, 연기가 열거하는 원행願行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칠불법회와 정종의 강습회를 자주 개최하여 해행解行을 아울러 중시하고, 정혜定慧를 동시에 배우십시오. 불법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난국을 막으며, 혼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승학자의 본분사입니다.

동일한 이념 아래서 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열심히 정진하여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얻도록 도우십시오. 그리하여 각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평온하고 번영하며,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가 대동일치 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의 은혜가 전 지구에 두루 하기를 염원하는 큰 서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불조佛祖가 교화에 응하신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0월 1일

사문 석정공釋淨空이 달라스에서

석정공釋淨空 법사

정공법사는 성은 서(徐)씨이며, 속명은 업홍(業鴻)으로 1927년 2월 안휘성(安徽省) 여강현(廬江縣)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소년(少年) 시기에는 귀주성(貴州省) 국립 제3중학과 남경시립중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949년에는 대만(臺灣)에 와서 실천학사(實踐學舍)에서 복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경사(經史)와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스님은 숙세에 지혜의 근(根)을 갖추어 마음은 항상 부처님을 향하고, 세속의 무상함을 깨닫고 생사해탈을 구원하고자 일찍이 철학자 방동미(方東美) 선생, 티베트 고승 장가(章嘉)대사, 이병남(李炳南)거사 등 선지식을 모시고 13년간 불법(佛法)을 공부하였습니다.

1959년 대북에 있는 임제사(臨濟寺)에서 염의 삭발하고, 법명은 각정(覺淨), 자는 정공(淨空)으로 구족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널리 불법을 전하며,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원각경》 《육조단경》 《금강경》 《정토오경》 등 불교삼장 경론을 강설하여 40여 년간 끊임없이 홍법과 수교(受教)를 하고 계십니다.

1979년 중국 〈정토종실천연구원(中國淨土宗實踐研究員)〉, 〈화장법시회(華藏法施會)〉, 〈화장불교시청도서관(華藏佛教市廳圖書館)〉, 〈불타교육기금회(佛陀教育基金會)〉, 〈화장정종학회(華藏淨宗學會)〉 등 수십 개의 불교교육과 정토전문 수행조직을 창립하였습니다.

1995년 5월 싱가포르 불교거사림과 정종학회를 창립하고, 홍법인재배훈반을 창설하고 불교인재 후배양성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공스님은 1959년 출가하신 이후로 불타교육(佛陀教育)을 발전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세계 각국을 다니며 경전을 강설하고 법문을 설법하는 일을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정공스님은 인연과 과보를 가르치고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 도

덕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한 인생과 화목한 사회를 건설하여 덕학(德學)을 성취하는 근본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정공스님은 세계 각지의 정종학회를 이끄는 영도자로서,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명예교수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www.budaedu.org.hk

www.amtb-aus.org

www.dfg.hk

www.dfg.cn

www.amtb-dba.org

www.hwazantv.com

www.amtb.org

www.amtb.org.tw

정공법사의 모든 저술과 녹음테이프와 CD 등의 출판물 및 사부대중이 함께 정리한 서적은, 누구나 번역하여 배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다만 마음대로 주석을 더하거나 판권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영리로 공중의 권익과 원서의 취지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고의로 이를 어길 때에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불경을 인쇄하거나 불상을 조성하여 얻게 되는

열 가지 큰 이익

人造佛經佛像之十大利益

첫째는 종전에 지은 바 가지가지의 죄악과 과오過誤가 있더라도, 가벼운 사람은 선 자리에서 곧 소멸되고, 무거운 사람은 점차 가벼워진다.[從前所作種種罪過，輕者立即消滅，重者亦得轉輕.]

둘째는 항상 길신吉神이 옹호하므로 일체의 전염병과 수재水災 · 화재火災 · 도적盜賊에게 빼앗기는 일, 흉기에 다치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등 일체의 재난을 받지 않는다.[常得吉神擁護，一切瘟疫，水火，寇盜，刀兵，牢獄之災，悉皆不受.]

셋째는 오래도록 원한이 맺힌 원수를 대하더라도 감응시켜 법을 이익되게 하고 해탈을 얻게 하므로 원수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면한다.[夙生怨對，咸蒙法益，而得解脫，永免尋仇報復之苦.]

넷째는 아차夜叉와 악한 귀신이 능히 침범치 못하고, 독사와 굶주린 호랑이 등 일체의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다.[夜叉惡鬼，不能侵犯，毒蛇餓虎，不能爲害.]

다섯째는 마음에 안위安慰를 얻고, 날마다 험한 일은 없어지며 밤에는 악몽惡夢을 꾸지 않고, 얼굴색이 밝아지고 윤택해지며, 기력氣力이 충만하여 넘치고 하는 일마다 길하고 이롭다.[心得安慰，日無險事，夜無惡夢，顏色光澤，氣力充盛，所作吉利.]

여섯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을 받들므로 비록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나 자연 의식衣食이 풍족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복덕과 수명이 길어진다.[至心奉法，雖無希求，自然衣食雙足，家庭和睦，福壽綿長.]

일곱째는 말하고 행동함에 사람과 하늘이 기뻐하므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많은 대중이 정성을 기우려 사랑하고 받들며, 공경하고 예배한다.[所言所行, 人天歡喜. 任到何方, 常爲多衆傾誠愛戴, 恭敬禮拜.]

여덟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되며, 빈곤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여자의 몸이지만 과보가 다하는 날 문득 남자의 몸으로 바뀐다.[愚者轉智, 病者轉健, 困者轉亨, 爲婦女者, 報謝之日, 捷轉男身.]

아홉째는 지옥·아귀·축생과 같은 악도惡道를 길이 여의고, 선도善道에 태어나며, 얼굴의 생김새가 단정하며, 복록福祿이 수승해진다.[永離惡道, 受生善道. 相貌端正, 天資超越, 福祿殊勝.]

열째는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선근善根의 종자를 심으며, 중생의 마음으로써 큰 복전福田을 지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승한 과보를 얻어 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뵈옵고 법을 얻어들으매 곧바로 삼혜三慧가 크게 열리어 육신통六神通을 증득하고 속히 성불成佛하게 된다.[能爲一切衆生, 種植善根. 以衆生心, 作大福田, 獲無量勝果. 所生之處, 常得見佛聞法. 直至三慧宏開, 六通親證, 速得成佛.]

불상·불화를 조성하거나 혹은 개금改金하고 불경을 출판하면 이와 같은 수승한 공덕이 있다. 그러므로 무릇 오래 살기를 빌거나福壽, 기쁘고 경사스런 일이 있거나賀喜, 재난을 면하고자 하거나免災, 잘못을 뉘우치거나懺悔, 바라는 바 소원을 기원하거나祈求, 천도재를 지낼 때薦拔之時, 모두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印造經像, 既有如此殊勝功德, 故凡遇 ○祝壽 ○賀喜 ○免災 ○懺悔 ○祈求 ○薦拔之時, 皆宜歡喜施捨, 努力行之]

이상은 《인광법사문초》 권4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란 글을 발췌한 내용이다.[以上節錄印光法師文鈔卷四印造經像之功德一文]

널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수지하고 유통시킨 사람을 위해

회향하는 게

普爲出資及受持轉流通者回向偈曰

원컨대 이 공덕으로 전생과 현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모든 복과 지혜가 증장되고 수승한 선근을 원만하게 이루며,
願以此功德 消除宿現業 增長諸福慧 圓成勝善根

모든 도병겁과 기근 등이 다 남김없이 소멸되고,
사람들마다 각자 예의와 양보를 닦으며,
所有刀兵劫 及與饑饉等 悉皆盡滅除 人各習禮讓

자금을 낸 사람이나 유통시킨 사람들의 현생의 권속이 모두 다
남김없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선망 조상들은 극락왕생을 이루고,
一切出資者 展轉流通者 現眷咸安樂 先亡獲超昇

비바람이 항상 순조로우며,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위없는 도를 증득하길 바라나이다.
風雨常調順 人民悉康寧 法界諸含識 同證無上道

【삼보제자】에서 나오는 책들은 저자 분들과 역자 분들의 지극한 불심과 원력으로 펴내고 있기에 서점에 책을 배포하지 않으며 법보시를 목적으로 소중한 책들을 배포시키고 있습니다. 본 도서는 대만(臺灣) 화장정종학회(華藏淨宗學會)의 법공양에 의하여 출간된 책으로 원서는 『인식불교(認識佛敎)』입니다. 본 법공양으로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우주 법계에 두루 회향하기를 발원합니다.

법공양 전문출판사인

【삼보제자】에서 나오는 도서들은

저자 분들과 역자 분들의 지극한 원력과

삼보제자이신 많은 분들의 재보시와 법보시를 통하여

信心과 願力 그리고 空力을 담아 법공양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도소, 병원에 계시는 분들, 불우시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각처에 불교도서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삼보제자】법보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서점에는 책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법공양 올리실 분이나 재보시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수희동참을 기대하며 법공양에 동참한 복된 인연이

온 우주 법계에 두루 회향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9-1 『삼보제자』

전 화: 02-722-7484 팩스: 02-730-2646

사이트: <http://www.lotuskorea.net>

카페: <http://daum.cafe.net/sambojeja>(삼보제자)

e-mail: sambojeja@paran.com

불교 바로 알기(認識佛敎)

- 행복 아름다움 그리고 원만한 교육

발행일: 불기 2550(2006)년 2월 21일

강술: 釋淨空法師 / 옮긴이: 김귀주

표지디자인: 방소정 / 본문편집: 김법등심

등록: 2005년 4월 28일(제300-2005-77호)

펴낸이: 김현희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9-1 삼보제자

전 화: 02-722-7484 팩스: 02-730-2646

사이트: <http://www.lotuskorea.net>

카페: <http://daum.cafe.net/sambojeja>(삼보제자)

e-mail: sambojeja@paran.com

<법궁양>